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ss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Miss Dissertation entitled

A STUDY OF MISSION MOBILIZATION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written by

Chung Ha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ssiology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_____

Mentor: Timothy K. Park, PhD

_____

Committee Member: Peter Im, PhD

Date March 2018

A STUDY OF MISSION MOBILIZATION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관한 연구

By

Chung Han Kim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ssiology

March 2018

ABSTRACT

Kim, Chung Han

2018 "A Study of Mission Mobilization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194 pp.

This is a study on mission mobilization of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five components that work as catalysts for world mission and especially of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e subjective contents were studied biblically, missiologically, and in view of the status of today's world mission. An effective strategy for mobilizing world mission through sending out Korean-Americans as missionaries will be proposed from this research. The following important questions must be raised by this research. First, what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mission mobilization? Second, what i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mission mobilizaton? Third, what is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mission mobilization? Fourth, what are the assets and problem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in relation to mission mobilization?

The content of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seven chapters. The first part is literature review, the second is field research, and the third covers change dynamic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describing the background, purpose, goals, importantance, central research issue, research questions, delimitation, definitions of the terms used, methodology, and the outlines of this research. Chapter two discusses a bibl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Chapter three discusses a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Chapter four discusses the histor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Chapter five analyzes mission mobilization of Korean-Ame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Chapter six discusses the strategy

of mission mobilization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in the Unted States of America. Chapter seven is the conclustion of this research.

Mentor: Timothy K. Park, Ph.D. 254 words

개요(ABSTRACT)

김정한

2018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관한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194 pp.

본 연구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하여 교회들 안에 있는 선교동원력이 구성되는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측정하여 그 내용을 성서적, 선교학적,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하여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효과적인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공동체 구성과 선교사 파송을 위한 효과적인 선교동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첫째, 선교동원의 성서적 관점은 무엇인가? 둘째,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은 무엇인가? 넷째,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 현황은 어떠한가?

본 연구논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3 부와 8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 부는 문헌연구, 제 2 부는 현장연구 그리고 제 3 부는 변화 역학이다. 제 1 장은 본연구의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중요성, 중심과제, 질문들, 범위, 용어 정의, 방법론 그리고 개관을 다루었다. 제 2 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성서적 관점을 다루었고, 제 3 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을 다루었다. 제 4 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을 다루었다. 제 5 장에서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 현황분석을 다루었다. 제 6 장에서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전략을 제시하였다. 제 7 장에서는 전체를 요약하고 결론과 제언을 하였다.

Mentor: Timothy K. Park, Ph.D. 142 words

헌정(DEDICATION)

평생 기도와 동역으로
늘 사랑과 격려로 남편을 섬겨준
사랑하는 아내 김진실 사모와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어머니 김춘자 권사님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무엇보다 이 논문이 완성되도록 격려와 자상한 지도와 학문적 견해와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신 지도교수이신 박기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이 논문이 완성되는 데 중요한 조언과 제안을 주신 임윤택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내가 선교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1985 년에 케냐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늘 멘토링을 해주시는 케냐의 임종표 선교사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나의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 사역 가운데 선교지 현장에 계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멘토링을 해주시고 계시는 최찬영 선교사님, 신홍식 선교사님, 이은무 선교사님, 김정웅 선교사님, 최용순 선교사님, 이재환 선교사님 그리고 조용중 선교사님과 많은 동료선교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논문의 연구와 제언을 통하여 북미주 한인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더욱 많이 파송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선교동원의 지침서가 되어서 북미주 한인교회들이 강한 선교교회로 선교적 성장이 일어나며 전문인선교사 파송이 은퇴한 이후의 연령에 있는 세대들 가운데 에서도 확산되기를 기도하며 이 선교동원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는 저의 SON Ministries/ GMAN 사역자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이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 김진실 사모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또한, 매일 노구를 이끌고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신 어머니 김춘자 권사님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드린다.

또한, DMiss 1 기로 함께 입학하여 서로 격려하며 오늘까지 있도록 해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에녹 교수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의 지도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

목차(TABLE OF CONTENTS) v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i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v

제 1 장 서론 1
- 연구의 배경(Research Background) 1
- 연구의 목적(Purpose Statement) 2
- 연구의 목표(Goals) 2
-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2
- 연구의 중심 과제(Central Research Issue) 3
-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3
- 연구의 가정들(Assumptions) 3
- 용어의 정의(Definition) 3
- 연구의 한계들(Limitations) 6
- 연구방법(Methodology) 7
- 연구개관(Overview) 7

제 1 부 선교동원에 관한 문헌연구 9

제 2 장 선교동원의 성서적관점 10
- 구약에 나타난 선교동원 10
  - 모세오경에 나타난 선교동원 10
    - 아브라함 11
    - 요셉 12
    - 모세 14
  - 역사서의 선교동원 16
    - 나아만 집의 이스라엘 소녀 16
  - 시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17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18
다니엘과 친구들 19
이사야 20
요나 21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동원 22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22
예수님 23
제자들 24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동원 25
서신서에서의 선교동원 28
요약 29

제 3 장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 31
선교의 정의 31
선교동원의 정의 32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이론 33
찰스 벤 엔겐의 관점 33
랄프 윈터 관점 35
폴 피어슨 관점 37
조동진의 관점 40
데이비드 J. 보쉬 외 선교학자들 관점 44
요약 46

제 4 장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 47
개신교 선교역사에 나타난 서양 선교동원가들 47
윌리엄 캐리와 존 모트 47
존 모트 51
한국교회 선교동원가 53
김활란, 조동진, 김의환, 김준곤 54
김활란 54
조동진 55
김의환 58
김준곤 59
북미주 한인 선교동원가들 61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선, 정상우 61
김의환 62
이원상 63
임동선 64
김광신 65
정상우 66
요약 67

제 2 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관한 현장 연구 68

제 5 장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 현황 분석과 평가 69

현장조사의 배경 69
현장조사의 목적 70
현장조사의 방법론 70
북미주한인교회의 동원현황 71
선교지도력 72
선교공감력 73
선교동원력 74
선교재생산력 75
선교재정헌신력 77
선교동원 재생산력 78
설문을 통해 본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긍정 평가 78
설문결과가 말해 주는 것 78
설문결과를 통해 본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특징 79
소형교회의 가능성과 방향 제시 79
설문을 통해 본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구조개선 분야 80
인터뷰를 통한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애 관한 질적 조사 82
북미주 중소형한인교회의 목회자들 선교 참여가 어려운 점 82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사에 부정적인 면들 85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추천하는 선교동원 가능 그룹 85
현장 선교사들의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지도력 개발 86
요약 87

제 3 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전략 88

제 6 장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제안 90
중소형교회 선교동원재생산력을 키우라 90
현장 선교사들이 북미주한인교회들 선교공동체 구성과 선교사 부흥단을 구성할 것 91
목회자들의 선교지도력 개발을 위한 목회자 선교학교를 열 것 92
지역별 전문인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93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높이기 협력사역을 시도하라 93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의 원심적인 선교운동을 할 것 94
선교공동체 연합 전문인 단기선교운동을 할 것 94
인터넷네트워크 구축 통한 전문인 선교사 동원 시스템 구축할 것 95
소형선교대회로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높이라 96
적정기술 훈련학교를 세울 것 97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운동을 개혁할 것 97
전국적 차원에서의 강소형선교교회 연합운동 네트워크 구축할 것 98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높여서 강소형선교교회로 전환하라 99
세대별 특성에 맞는 선교동원을 할 것 100
차세대 100
중년 세대 101
노년 세대 102
교회 규모별 선교동원을 할 것 104
대형교회의 지역 안에서의 중소형교회와의 협력 선교동원을 할 것 104

중소형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초교파 네트워크와 연대를 할 것 104
개척교회(소형교회)-선교사 공동파송 시스템 구축할 것 105
요약 107

제 7 장 결론 110
요약 111
제언 112

ENGLISH SUMMARY 113

TABLE OF CONTENTS 114

TEXT OF SUMMARY 115

CHAPTER 1 INTRODUCTION 115

CHAPTER 2 BIBL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117

CHAPTER 3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119

CHAPTER 4 HISTOR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121

CHAPTER 5 STATES OF MISSION MOBILIZATION BY KOREAN CHURCHES OF NORTH AMERICA AND ITS ANALYSIS 123

CHAPTER 6 STRATEGY of MISSION MOBILIZATION for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124

CHAPTER 7 CONCLUSION 126

APPENDIX A 현장조사 목적과 설계 및 분석 cxxviii
5개 분야별 점수를 통한 그룹별 분석 cxliv
교회 성도 수별 비교 5개의 점선 그래프 cxliv
분석 cxlvi
나이별 비교 4개의 그래프 cxlvi
분석 cxlvii
목회 기간별 비교 cxlvii
분석 cxlviii

APPENDIX B 선교교회 연합동원 모임 보고서 및 평가 cliv
선교교회 연합동원 모임 1, 2차 결과 보고서 cliv
설문에 대한 결과와 분석 clv
종합평가 clxiv

APPENDIX C 2011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대상 선교지 후원 및 연결 특성 설문조사 결과 clxv
2011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대상 선교지 후원 및 연결 특성 설문조사 결과 clxv
종합평가 clxvii

APPENDIX D 본 연구 Change Dynamics의 사용이론 clxviii
본연구 Change Dynamics의 사용이론 clxviii

APPENDIX E 2017년 12월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보고 clxxii
다시 N 곡선으로 clxxii
발전적 상황 파악을 위한 선교사 통계 조사 항목 추가 clxxiii
2017년 파송 현황 clxxiii
권역별 선교 현황(2015년, 2016년, 2017년 비교) clxxvi
최다 활동 국가 clxxvii
주요 사역 현황 clxxix
선교사 자녀 현황 clxxix
2017년 통계 조사 소결 clxxx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182

약력(VITA) 194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한인목회자 연봉현황 84

<표 2> 나이별 그룹 CXXXV

<표 3> 성도 수별 그룹 CXXXVI

<표 4> 목회 기간별 그룹 CXXXVI

<표 5> 선교경험 여부 그룹 CXXXVII

<표 6> 50교회 선교동원 재생산력 총평가를 위한 교회 수와 비율 CXXXIX

<표 7> 81점 이상 선교동원의 모델이 되는 교회 CXXXIX

<표 8> 71점 이상 북미주선교동원이 지속되는 기본그룹 CXL

<표 9> 61점 이상 선교동원 주체세력이 될 수 있는 중심그룹 CXL

<표 10> 51이상 선교지도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이 필요한 그룹 CXLII

<표 11> 41점 이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그룹 CXLIII

<표 12> 31점 이상 CXLIII

<표 13> 각 그룹 간 평균점과 그룹 사이의 평균격차 CXLIV

<표 14> 교회 성도 수별 비교 CXLV

<표 15> 나이별 비교 CXLVI

<표 16> 목회 기간별 비교 CXLVII

<표 17> 목회자의 선교사 경험 CXLVIII

<표 18> 설문 1항 CLV

<표 19> 설문 2항 CLVI

<표 20> 설문 3항 CLVII
<표 21> 설문 4항 CLVIII
<표 22> 설문 5항 CLIX
<표 23> 설문 6항 CLX
<표 24> 설문 7항 CLX
<표 25> 설문 8항 CLXI
<표 26> 설문 9항 CLXII
<표 27> 설문 10항 CLXIII
<표 28> 조사대상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CLXXIII
<표 29> 연도별 현황 CLXXIV
<표 30> 전방개척 지역 선교사 현황 비교(2016년과 2017년 비교) CLXXV
<표 31> 활동 선교사 수 CLXXVII
<표 32> 10대 파송 국가 CLXXVIII
<표 33> 주요 사역 현황 CLXXIX
<표 34> 연도별 선교사 자녀 환황 CLXXX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그림 1> 강소형선교교회 연합운동 네트워크 구조 99

<그림 2> 전체 총점 CXXXVII

<그림 3> 전체 총점 50교회 5개 분야 합산 총점 CXXXVIII

<그림 4> 교회 성도 수별 5개 분야별 평균점 비교 CXLV

<그림 5> 나이별 평균점 비교 CXLVI

<그림 6> 목회 기간 분야별 평균점 비교 CXLVIII

<그림 7> 목회자의 선교경험 유무에 따른 평균점 비교 CXLIX

<그림 8> 50교회들의 5개 분야별 측정 평균점 CL

<그림 9> 50교회들의 5개 분야별 측정 총점과 평균점 CLI

<그림 10> 선교지도력 비교 CLI

<그림 11> 선교공감력 비교 CLII

<그림 12> 선교동원력 비교 CLII

<그림 13> 선교재생산력 비교 CLIII

<그림 14> 선교재정 헌신력 비교 CLIII

<그림 15> U THEORY 7단계 CLXXI

<그림 16> 연도별 선교사 현황 CLXXV

<그림 17> 연도별 증가 현황 CLXXV

제 1 장

서론

본 논문은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관한 것이다. 북미주 한인교회는 21 세기 세계선교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영적, 인적, 그리고 물질적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주한인교회들은 세계선교 운동에 있어서 아직 그 역량을 충분히 개발되지도, 활용되지도 않고 있다. 1988 년 이래 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이하 KWMC) 가 주최한 한인세계선교대회(Korea World Mission Conference)가 시카고 휘튼 빌리 그래함 센터에서 매 4 년마다 개최되었다.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치러진 이 대회들을 통하여 2012 년 현재 20,000 여 명의 선교헌신자들이 나왔지만, 아직 이 선교헌신자들이 선교현장에 동원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을 북미주한인교회의 상황에 맞는 선교동원 전략의 부재로 인한 현상으로 본다. 선교동원은 세계선교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선교동원 운동이 북미주 한인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연구의 배경(Research Background)

필자는 1986 년 초부터 1991 년 말까지 만 6 년을 케냐 마사이부족 마을에서 선교를 하였고, 1995 년부터 미국 남가주에서 영어권 한인 2 세들을 단기선교에 동원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한인 1 세 선교동원 사역으로는 전문인선교사들을 동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선교연결과 동원사역으로 GMAN (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ing) 선교 전문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다. 미주 안에 선교동원과 선교운동을 위한 사역경험으로는 KWMF 사무총장(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KWMC 부회장 및 단기선교 분과위원장, 현 미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전 KIMNET 총무(Kingdom Inter-Missions Network)의 선교동원 사역을 해오고 있다.

필자는 전국규모의 대형선교집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집회를 통해서 북미주한인교회 안에 선교가 보편화 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각종 선교집회에서 참석자들을 도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교동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Stat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주한인교회의 효과적인 선교동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연구하게 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문헌연구를 개관하고, 둘째, 본 연구를 위한 현장 연구를 하게 될 것이며,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문헌연구에서는 선교동원의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을 다루고, 현장 연구에서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현황을 조사하고, 전략 제시 부분에서는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첫째, 본 연구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경험한 선교동원 사역들의 효율성을 재평가하고 좀 더 효과적인 선교동원 사역을 위해 이론적 실제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선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론적 실제적 이해가 부족하여 선교동원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북미주 한인 선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선교동원 사역에 관심을 가진 복음주의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교동원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중심 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북미주한인교의 선교동원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교동원을 성경적, 선교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본 연구에 관하여 연관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동원의 성서적 관점은 무엇인가?

둘째,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은 무엇인가?

넷째,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의 가정들(Assumptions)

본 연구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언어와 문화적 자산을 고려할 때 선계선교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선교동원 사역은 북미주교회로 하여금 21 세기 세계선교운동에 독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의 실제적인 문제는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의 선교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어의 정의(Definition)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미주한인교회*: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인들이 세운 교회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어나 영어로 주일예배와 성경공부를 하며 한인 교단이나 북미주 타민족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북미주 한인교회라 함은 중미와 남미를 제외한 미국의 한인교회들을 의미하고 캐나다 한인교회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선교동원*: 지리적 경계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선교 도전을 하고 헌신하게 하여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도록 하는 일 또는 사역을 말한다.

3. *선교운동*: 교회나 성도 개인 또는 단체들이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선교와 연결이 안 되거나 관심이 적은 교회와 성도 개인이 선교지 또는 선교사역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모든 사역을 말한다.

4. *선교네트워크*: 선교에 관계된 교회, 단체, 개인들이 선교를 위해 자료와 인적교류, 정보교류, 전략공유, 자원공유 등을 위하여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연결을 말한다.

5. *선교운동기구*: 선교운동기구는 북미주지역에 세워진 교단 및 초교파 선교단체들을 을 말한다.

6.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KWMC)*. KWMC 는 지난 1988 년도에 1 회 선교대회를 시카고 휘튼대학(Wheaton College, Chicago)에서 시작하여 매 4 년마다 북미주 전 지역의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대회를 열고 있는 선교기구를 말한다.

7. *한인세계선교사회(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KWMF)*: KWMF 는 1977 년 한인 세계선교 친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다. 현재 모든 한인 선교사들이 자동회원이 되는 단체이다. KWMF 는 1988 년도 제 1 회 KWMC 대회 때부터 함께 하여 선교사들이 대회의 강사들로 선교대회를 돕고 있다. 한인 선교사들의 기구이다.

8. *Kingdom Inter-Missions Network (KIMNET)*: KIMNET 는 2002 년도에 미주지역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선교운동을 위한 네트워크와 선교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출범된 기구로 미주지역의 43 개 선교단체가 연결되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교회들을 위하여 선교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미주 안에 있는 선교동역기구를 말한다.

9. *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ing (GMAN)*: GMAN 은 2012 출범한 선교네트워크로 전체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동종의 전문사역들을 진행할 때 초교단, 초교파적으로 전문사역 그룹으로 네트워크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들 안에 동종의 전문가 성도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선교지에 연결과 선교지에서 전문사역 포럼개최, 선교 정보공유, 평신도들을 전문인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말한다. 이 네트워크의 미디어 사역으로는 GMAN 선교 전문 인터넷방송이 있다.

10. *선교지도력*: 선교지도력은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선교 영향력을 말한다.

11. *선교공감력*: 선교공감력은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설교, 선교보고, 선교초청 등 현지 선교 소식을 전할 때 성도들이 직접 들으며 선교에 대한 소망과 의욕, 관심과 공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12. *선교동원력*: 선교동원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여 선교에 헌신케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선교지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13. *선교재생산력*: 선교재생산력은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며 다른 교회가 선교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영향을 주는 능력을 말한다.

14. *선교재정헌신력*: 선교재정헌신력은 교회가 선교에 더욱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 성도들의 재정헌신력을 의미하며 또한 성도들의 선교를 위한 재정헌신을 측정하는 것이다.

15. *평신도선교사*: 평신도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라오스'(λαος, laos)(이현정 2010:29)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헬라어로 "라오스"는 베드로전서 2 장 9-10 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백성을 의미한다. 평신도선교사는 안수를 받지 않은 성도가 해외 선교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인선교사*: 전문인선교사는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의 기회를 가진 자들로서 헌신 되고 훈련된 체험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자신의 세상의 직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다(김성욱 2010:22). 전문인은 숙련가를

뛰어넘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모험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이수환 2009:24).

17. *실버선교사*: 실버선교사는 은퇴한 목회자나 평신도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 기간에 선교지에 파송을 받거나, 또는 해외 선교에 관여된 선교기관에서 헌신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8. *중소형교회*: 북미주한인교회들 안에 성도의 수가 200 명 이하의 교회를 중소형교회라고 정의하였고 중형과 소형교회의 합성어이다.

19. *연합선교교회*: 연합선교교회라 함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회의 선교적 성장에 초점을 둔 교회로써 교회의 크기는 중소형교회 범주 안에 들지만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회를 말한다.

20. *강소형선교교회*: 강소형선교교회는 교회의 크기가 중소형교회이지만 선교에 초점을 두고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를 말한다.

연구의 한계들(Limitations)

첫째, 본 연구는 북미주 내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관한 연구로만 제한한다

둘째, 연구대상 범위는 교회, 선교단체, 선교운동기구로 제한한다

셋째, 선교동원의 대상인 성도들은 주로 평신도전문인들로서 현재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시기에 은퇴할 전문인들 또는 은퇴한 전문인들이며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할 뜻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한다.

넷째, 연구에 필요한 인터뷰 혹은 설문조사는 1) 그룹으로 교회 담임목사, 2) 그룹으로는 선교단체장으로 북미주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동원 네트워크 또는 선교훈련단체 사역을 하는 사람들, 3) 그룹으로 전국규모의 선교운동기구 파송과 사역에 직접 관계된 세 그룹으로 제한한다.

다섯째, 북미주한인교회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한인교회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으로 제한한다.

연구방법(Methodology)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 연구방법과 현장 연구로 이루어진다. 북미주한인교회 담임목회자, 개인성도, 선교동원가, 선교단체장들에 관하여 설문을 통한 관찰연구 방법이다. 풀러선교대학원 도서관의 문헌과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역사와 북미주 선교단체들의 선교운동의 역사에 관련된 문헌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세계선교운동의 자료들이 문헌적 연구방법에 사용된다.

선교동원에 대한 성서적 고찰은 성경 본문에 기록된 예들을 통해서 원칙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설문을 통한 관찰연구방법은 KWMC, KIMNET 같은 전국규모의 선교운동기구들과 남가주에서 선교적 교회로 인정된 교회들의 목회자, 중소형교회 목회자들 대상 설문과 인터뷰, 선교에 헌신 된 평신도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단기선교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설문을 통해 나타난 5 개의 선교동원에 필요한 영역을 분석하여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동원재생산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반응을 분석한다.

네 번째 단계는 나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발견한 내용을 확인하고 본 필자의 선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위의 네 단계를 정리하여 종합하고 분석하여 본 논문의 진행 과정상에 실제와 이론을 확인하여 본 연구논문이 실제 사역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든다.

연구개관(Overview)

본 연구논문은 제 3 부 7 장으로 이루어진다. 제 1 부는 문헌연구, 제 2 부는 현장조사 그리고 제 3 부는 변화 역학이다. 서론과 본론을 포함하여 7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선교동원에 대하여 성서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현황을 분석 평가한다. 제6장은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제7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

제 1 부

선교동원에 관한 문헌연구

본 연구 제 1 부는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관한 전략 제시를 위한 기존 문헌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문헌연구에서는 선교동원에 관한 성경적 관점,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적 관점, 선교동원에 관한 역사적 관점을 기술한다.

제 2 장

선교동원의 성서적관점

본 장에서 나는 선교동원의 성경적 관점을 기술한다.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글라서 2012:22). 선교 교과서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하심을 볼 수 있다. 본 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동원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구약 성경의 관점을 기술하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살펴본다. 이어서 신약성경의 관점을 기술하면서,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살펴본다.

구약에 나타난 선교동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기술함에 있어서 성경적 근거를 중점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먼저 모세오경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살펴보고 이어서 역사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시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그리고 예언서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살펴보겠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선교동원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선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시면서 선교동원에 얼마나 비중을 두시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동원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선교동원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선교동원의 관점으로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선택하고 동원하신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선교의 시작은 동원의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전략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선교동원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창세기 12 장 1-4 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관찰해보면 우선 동원 대상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동원 대상자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변경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으로 대상자를 설득하신다. 일반적인 관점은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으로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선교동원을 하시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선교동원의 대상을 이끌어 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창세기 12 장 1-4 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원하실 때 그의 나이는 75 세 노인이었다. 노인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고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때 동원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미리 주신다. 아브라함을 동원하시며 창세기 12 장 1-4 절은 하나님의 통치회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아브라함에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 손석태는 이 본문의 해석에서 복과 저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본문의 복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브라카(ברכה)”로 그것의 의미는 “아브람이 복이 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아브람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과는 다르다. 지상만민들에게 주어질

여호와의 복이 아브람을 통하여 열린다는 뜻이다. 이는 영적인 의미의 복을 말한다"(1993:124) 저주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쓰고 있는 카랄(Kalal)은 "홀대하다"(to treat lightly), 혹은 "모욕하다"(to contempt), 해하다"(to cause harm)는 뜻이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불손한 자에 대한 여호와의 대응은 보복적 성격을 가진 것이고 이는 아브람과 여호와의 굳건한 계약적 일체성을 보여준다"(1993:125).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교에 동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특권과 다른 이들로부터 보호해주시는 특권을 동시에 허락하신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동원하실 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계획이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다.

윌터 카이저(Walter C. Kaiser)는 3 절의 "모든 족속들"을 뜻하는 "pasai hai phulai" (πᾶσαι αἱ φυλαὶ LXX)란 어구는 여호수아에서는 "집안"(Households)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수 7:14 개역개정)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주어진 축복은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을 축복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가정과 같은 작은 집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축복의 범위와 목적을 말한다(2013:208).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다. 구약에서의 선교동원 개념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모든 족속으로 전달되는 모든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였다. 아브라함을 선교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받는 교훈은 선교동원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약속을 수반하는 동원이었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으며, 강제적이 아니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동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셉

창세기 37 장부터 50 장에나타난 선교동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하는 방법으로 오늘날 교회의 선교동원 방법과 전혀 다른 동원이었다. 하나님은

선교동원의 대상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숨은 방법도 사용하신다. 그러나 이 동원방법은 동원대상을 미리 설득하거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전체를 미리 알려주는 동원이 아니었다. 요셉은 하나님께 동원과정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선교동원 대상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동원 대상자인 요셉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도력과 신앙의 훈련이 시작된다. 요셉의 경우는 본인이 이해를 못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동원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사례이다. 창세기 45 장 5, 7-8 절에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판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 . .
>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은 요셉이 사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과 이스라엘과 인류를 파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동원하신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처럼 동원을 받는 사람들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가게도 하시고 요셉의 경우처럼 선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후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아 선교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한종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 “노예로 팔려가 낯선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섭리하셨다.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게 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후에 자기 백성들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셨다”(2009:260)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요셉의 예를 통하여 볼 때 선교동원의 형태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동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선교동원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라는 것도 말한다.

모세

출애굽기 3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교에 동원하시는 방법을 소개한다. 7-10 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가를 보여준다.

> 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9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10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교에 동원하심에 있어서 모세에게 모든 짐을 지우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친히 애굽에 내려가셔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일을 함께하자고 말씀하신다. 모세에게만 이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셨다면 모세가 이 사역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일을 할 터이니 모세에게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설득하시며 모세를 선교에 동원하심을 볼 수 있다. 선교사가 선교 사명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부담으로 인하여 순종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를 동원하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다. 6 절에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12 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시며 설득을 하신다. 그리고 14 절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며 이후에는 자세히 무엇을 말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해주신다. 모세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를 수 있었을 터이니 모세에게도 격려가 되는 일이었다.

>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 3:14-15)

출애굽기 3 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선교동원 방법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든 과정을 미리 동원하려는 대상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세를 선교에 동원하시는 장면에서는 무조건 믿음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도 자세히 계시해주시며 아직 지식과 경험이 없는 모세를 배려하시며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동원을 하신다. 이것이 모세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동원형태는 설득과 동시에 동원 대상에게 사명에 대해 자세한 이해를 시켜주며 또한 격려와 자신감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라고 임마누엘, 곧 함께하심과 동행 약속을 주신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동원의 특징은 축복, 동행 약속 그리고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동원대상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냄을 받지만, 모세의 경우는 자신이 잘 아는 동족에게 보냄을 받는다. 두 사람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타민족과 자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동원하심을 알 수 있다.

모세는 자신을 배척한 자신의 동족에게 가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통하여 부드럽게 그를 위로하시고 자신감을 주시면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동원하신다. 따라서 모세의 경우를 통하여 보는 선교동원의 성경적 원칙은 설득이다. 아브라함과의 공통점이 하나님은 선교동원을 하실 때 설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모세오경에서의 선교동원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원하여 선교사역에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출애굽기 6 장 5-8 절 말씀이 바로 그것들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선교에

동원하심을 의미한다. 이 선교동원의 원칙은 신약과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역사서의 선교동원

역사서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더욱 다양성을 보여준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교동원의 목적은 이방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기 위한 목적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나아만 집의 이스라엘 소녀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녀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동원하셨다. 시리아 군대 장군 나아만(왕하 5:1-19)의 문둥병 치료는 유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B.C. 852-841 년 사이에 일어났다(카이저 2013:64). 나아만 장군의 치유사건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세상의 어느 신보다 뛰어나다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소녀를 통하여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 경위를 말해준다.

>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왕하 5: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녀를 사용하심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동원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소녀 역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은 아니었다. 전쟁포로로서 비자발적 상황으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녀를 시리아로 가게 하여 나아만이 구원을 받도록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다. 나아만 장군 집에서 수종 들던 이스라엘의 소녀와 그 소녀의 소개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며 문둥병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선교전략은

언제나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뛰어넘는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적국인 시리아 군대장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여 그의 불치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이 섬기는 시리아의 신보다 뛰어난 여호와를 알도록 해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전쟁포로로 약한 소녀를 선교에 동원하셨는데, 그 소녀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소녀에 대한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람에게 잡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던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취한 정정당당한 자세이다. 즉 그 어린 여자아이는 적국 안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증거했던 것이다”(강병도 1992:122). 따라서 하나님은 여성 또는 어린 여자아이라도 선교의 도구로 쓰여질 준비가 되어있다면 선교에 동원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만 장군 집의 이스라엘 여자뿐만 아니라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인들이다. 성경을 선교동원의 기준으로 삼는 교과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선교동원의 원칙 중 하나는 여성들을 선교에 동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예로 드보라를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여성도 지도자로 동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최형묵 2006:229). 김신숙은 여성 선교사는 남성 선교사의 동역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성과 여성은 창조질서에서 서로 동등하며 상호보충적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을 해야 한다”(2015:478).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소녀를 동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선교를 위해 동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시가서에도 선교적 주제가 있다. 시가서는 문학 형식으로 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섯 권의 성경을 의미한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며 주변 나라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빠져있는 것에 대한 잘못을 말하고 있다. 시가서의 중심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해야 하는 당위성을 문학적 표현으로 말하며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선교에 동원하는 내용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택하셨다.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교에 동원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에 동원하시기로 하셨다. 시편 67 편 2 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말씀으로 모든 열방에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에 동원하시기 위해 시편 135 편 4 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라고 하시며 선교에 도구로 선택하신다. 이 선택은 개인은 아니지만,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동원하심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시편 2 장 8 절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위한 선교에 부르심의 약속이며 동시에 선교동원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시가서에는 개인의 선교동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하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정치와 국제적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 선교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를 역사적 사건들에서 부름을 받고 선교에 동원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이사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요나를 선교에 동원하시는 사실을 관찰해보기로 한다.

다니엘과 친구들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쟁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곧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선교에 동원하심을 보여준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나간 사람들이 아니었다.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자신들이 장래에 바벨론 제국의 구원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이교도들의 나라 바빌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러나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셨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삶을 살던 중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나아가서는 고레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통하며 왕들과 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결국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선교사들보다 위대한 선교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였다(단 3:28-29; 6:25-27).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왕국의 적국 바벨론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로로 만들어 보내셨다. 유대 적국, 이방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교는 전쟁을 통해서 다니엘을 포로가 되게 하여 이방으로 옮겨가게 하신다.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 그룹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주전 539 년 메데 바사에 의해 바벨론이 정복된 후에도 이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사역은 계속된다.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며 적국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풀무 불에 던져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고 이 일로 느브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 고레스 1 년에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으며 다니엘은 적어도 고레스(주전 536 년) 왕 제 3 년대까지 사역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상황적으로는 선교와 상관이

없었지만, 후에 일어나게 될 느브갓네살과 고레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게 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교방법이었다. 선교동원 이후 하나님은 동원된 종들을 선교대상 지역에 보내시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선교사를 동원하여 파송하는 교단이나 선교회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종들을 동원하시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형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에 동원된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들이 선교사역에 동원된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은무는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동원에 대한 예를 다니엘에 대한 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다니엘은 선지자(선교사)요 정치가였다. 그이 포지션에서 그는 권력자들(다리오 왕을 만났고, 어떻게 보면 다리오는 선교적 동역자가 되어 다리오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전하는 좋은 파트너쉽을 만들어 냈다. 저변층(grassroots)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저들을 통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수준 있는 이들과 만날 수만 있다면 저들의 저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십분 이용할 수 있다. 다니엘은 다리오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었다. (2009:290)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특별한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다니엘의 동원에 대한 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이사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실 때 언제나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징이 있다(슈미트 1989:87).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인간은 자신에게 누가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인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에 이미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

>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사 45:5-8)

이사야는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신 분이심을 다시 알게 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동원을 받는 동시에 선교 동원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중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가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고레스왕에게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이 일에 도구로 이사야를 사용하신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이사야서 42 장 6 절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신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목적을 위하여 쓰임 받은 종이였다. 그리고 이사야 49 장 6 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계속하여 하나님 자신의 선교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이 된다.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선교사로 동원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욘 1:1-2).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잠시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셔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게 된다. 요나는 결국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동원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사는 니느웨 성읍에서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선교동원의 특징은 한번

정하신 선교동원의 대상은 초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동원대상인 종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선교지로 보내심으로서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동원

선교동원에 관한 성경적 관점 가운데 신약 성경의 관점을 논함에 있어서 복음서의 관점, 사도행전의 관점, 서신서의 관점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 하실 때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 예수님 자신은 보냄을 받고 왔다고 하셨고(마 10:40), 마태는 그 보내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라고 계보를 설명한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표현이었다(하용조 1990:13).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 오심은 선교사로의 신분도 겸하여 오시었다. 성육신의 의미는 인간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오심은 선교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들이 되기 위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으며, 신적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성을 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배우고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원리이자 자세다”(홍기영 2015:212). 홍기영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서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한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선교사로서 동원하신 근거를 보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심을 볼 수 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동원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은 제도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모델을 보여주셨다. 인간들의 느끼는 필요(Felt Needs)를 채워주시고 해결하시며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도록 선교동원을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선교동원 측면에서의 관찰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선교동원의 교과서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는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으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눅 4:43)라며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에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선교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동역에 합당한 사람들을 동원하시게 된다. 이렇게 선교에 동참할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예수님이 하신 첫 선교동원이 된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후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에 대한 선교동원이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복음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사명을 받고 선교동원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전할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선교사로 동원이 되고 선교사로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갖는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며 그들을 세계선교에 동원하는 선교동원 사역도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의 전도는 동시에 선교동원의 목적이 함께 수반이 되었다.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이중적인 목적은 개인의 회심과 동시에 그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동원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 사역을 선교동원면에서 관찰한다면 예수님은 첫째로 개인 관계를 시작하여 그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둘째로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 중심적이었고, 셋째로 영적 전쟁의 실예를 보여주시며 그

사역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자로, 선교사로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로 예수님의 선교동원 목적 중 하나는 가르침이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의 일차적 수행자로서 제자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루츠 2002:63).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선교사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한복판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를 보여주신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다"(방동섭 2010:238) 라고 산상수훈이 가지는 선교사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신다.

또한 예수님의 선교동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회개 메시지"는 다윗왕국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선포가 큰 충격이었다(오병수 1997:41).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며 선교동원이 되었다.

예수님의 선교동원의 대상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은 선교동원의 범위에 있어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의 모음은 율법에 의한 종교적 제약 속에서 저항된 바리새적이거나 에쎄네적인 운동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해 열려 있는 운동이다"(김옥순 2010:288). 따라서 선교동원의 대상을 폭넓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자들

예수님의 선교공동체인 제자들을 선교동원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선교팀을 만드시는 것이었다. 다수가 아니라 12 명의 제자를 선택(마 4:18-19)하여 훈련하시게 된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선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원사역이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막 3:14-15)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원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현대선교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교동원도 공동체의 구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선 퀴스트는 공동체의 의미를 동반자 관계라고 표현한다. “복음에서 말하는 동반자 관계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분의 관심사를 실천하는 것이다”(2015:704) 라고 하며 제자들의 공동체는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제자들을 동원하신 것은 동반자로서의 공동체를 만든 의미가 있다. 공동체의 팀워크에 대하여 아서 글라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팀워크는 “유대인들만 선택”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의 팀은 상당한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예수님과 바울의 팀워크의 다른 점을 말한다(2012:478).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동원

사도행전은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시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령이 선교의 주체임을 사도행전 1 장 8 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에 동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동원의 특징은 사도행전 1 장 8 절에 “땅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계비전을 심어주고 선교에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하신 명령은 마가복음 16 장 15 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선교의 동원에 관한 동일한 말씀이다. 사도행전은 선교동원의 주체는 성령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체 선교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역을 위해 따로 세우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선교지를 보여주시고 **선교사들과** 함께하며 사역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동원할 때 선교사 동원 기본조건으로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는가를 리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아임스는 “바나바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명성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모든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사랑과 헌신은 한이 없었다”고 했다(2011:227).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동원하였던 조건 중 하나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들이 선교사로 동원되기 전에 그들은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안디옥교회에서 1 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런 결과로 교회는 성장하여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이장식 2005:130).

현대 선교학적 용어로 미전도종족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동원의 예도 성경에 나온다. 고넬료는 당시 복음이 미전도종족인 이방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접촉점으로서 동원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의 한계가 아직 유대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점에 성령의 계획은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계기로 이방인 고넬료를 선교에 동원한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하려는 생각이나 비전이 없었다. 성령께서는 선민사상과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도전하시기 시작하였다. 고넬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도하며 많은 구제를 하는 자로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에 준비된 사람이었다(행 10:2-5). 성령께서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 전개된다. 이미 이 사건은 현재 글로벌시대의 선교전략을 미리 앞당겨 시작한 성령의 이방 선교와 동시에 글로벌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영향력 있는 백부장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선교사로 동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되었다. 복음이 이방 선교로 확장되는 사건에 결정적인 선교동원의 진행자는 성령이었다.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선교동원의 특징은 인간 중심의 선교동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선교동원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교를 동원하시지만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강림 이후의 선교동원 사역의 특징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 성령과 선교의 관계에서 안승오는 다음과 같이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3 가지 역할을 이해한다. 첫째, 성령은 선교의 주도자이시다. 둘째, 성령은 선교의 전략가이시다. 셋째, 성령은 선교의 동반자이시다(2008:29).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은 모두가 성령의 주도하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 가는 기록들임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사역을 이루어갔다. 그리고 선교동원의 결과들은 성령이 일하시는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

사도들의 사역은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행 2:43) 성령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며 또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게 된다. 안승오는 성령의 기사와 이적에 의한 선교적 연결과 동원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된다. 둘째, 이적과 기사는 이적을 체험한 당사자를 구원으로 이끌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2008:39).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선교동원의 주체이시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다.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보내는 일과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부르는 일에 주체이심을 성경은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행 13:4);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행 16:9-10)

위의 두 성경 구절은 성령이 선교동원을 하시는 두가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보내는 일(가게 하시는 일)과 두 번째 특성은 오게 하는 일이다. 구브로로 가게 하시고 마케도니아로 오게 하시고, 성령이 선교를 동원하는데 주체가 되어 선교사들을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는 역할로 선교동원도 하시고 파송도 하는 특성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성령의 선교동원의 또 다른 특징은 선교동원에서 팀으로 선교를 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실라(행 15:40)를 2 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행 16:17)와 의사 누가(행 16:17), 3 차에서는 디모데, 에라스도(행 19:22), 누가(행 20:5-14)”를 선교에 동원하였다(조귀삼 1995:137).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동원의 새로운 형태는 자비량 선교였다. 자비량이 가능한 선교동원에 대해 헤셀그레이브(Hesselgrave)는 다음 세 가지를 말한다. 자신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설교 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 지역교회 재정을 관리하지 않았다(1980:112). 현대 선교동원을 할 때 자비량 선교사를 동원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선교사 비자가 나오지 않거나 또는 선교사가 후원이 적을 때는 자비량 선교를 통한 선교동원도 중요한 전략이다.

롤런드 알렌은 사도 바울의 선교전략은 도시 중심의 선교동원전략이었다고 한다. 그 도시들은 대부분 로마의 행정구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사도 바울은 도시 중심 지역을 선교전략의 교두보로 삼고 세계선교를 시도하였다(윤기순 2011:95).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 선교 방법은 현재 비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매우 중요한 선교전략이 되고 있고 선교동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강승삼 2000:138).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는 도시에 있던 교회였다. 도시교회에서의 조직과 교육의 장점을 살린 교회였다. “안디옥교회는 교회의 조직과 교육의 결과가 선교적인 열매로 연결된 교회였다. 오늘날 교회 양육의 목적이 선교 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교회 자체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행해진다면 교회의 성장은 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이다”(신현수 2011:216). 한국교회가 선교동원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과 교회 내부구조가 선교 지향적으로 교육과 양육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서신서에서의 선교동원

서신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임을 보여준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사역이 모두가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로마서 15 장 18-19 절에서 고백한다. 그는 자신의 3 차 전도 여행에 걸쳐 일어난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고백한다. 바울 사도의 선교사역의 특징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였고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동시에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선교 확장을 위한 선교동원의 열매들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선교동원은 베드로 전서와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 장 9 절에서 그의 서신을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사명감을 고취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며 선교적 삶의 도전을 통한 선교동원을 볼 수 있다.

요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선교동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대상이 선교동원의 부르심을 본인이 의식하도록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는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동원을 하실 때는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도록 하시는 특징이 있다. 구약에 나타난 선교동원의 메시지나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문학적인 메시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당시의 국제적인 정치와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하심으로 첫 선교동원의 당사자가 되심으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며 보내시는 형태의 선교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의 선교동원은 공동체 구성, 가르침, 선포, 교제를 통한 선교동원의 형태가 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선교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령의 역할 중 선교동원 사역에 중요한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에서의 특징 중 하나는 헌신 된 한 사람의 선교동원의 역할이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이

부름받아 사역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선교사역을 위해 불러 훈련하여 보냄으로 선교동원의 재생산이 이루어짐도 본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동원은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첫 부분에 진행되는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동원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볼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다양한 시대 환경, 문화환경, 개인의 환경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들을 부르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성경의 메시지 중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21 세기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에 중요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교동원을 하신다.

다음 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을 기술할 것이다. 선교의 정의, 선교동원의 정의 그리고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

본 장에서 나는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을 기술한다. 선교의 정의, 선교동원의 정의 그리고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펴본다.

선교의 정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게린 반 레힌(Gailyn Van Rheenen)은 선교를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다(1996:20). 도날드 A. 맥가브란(Donal A. McGvran)은 선교는 문화의 영역을 뛰어 넘어가는 일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선교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이 교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다. (1983:26; 목만수 2002:10에서 재인용)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선교는 경계선을 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선교는 하나님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 교회에 위임한 전체 과제를 일컫는다. 선교는 활동하고 있는 교회, 이웃을 위해 사는 교회, 폐쇄적이지 않는 교회, 내부로부터 뛰쳐나와(호겐다이크) 세계를 향하는 교회의 과제이다"(1980:29)라고 말한다. 그리고 찰스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은 맥가브란과 보쉬의 주장과 동일하게 "장벽을 넘어가는" 개념을 말한다.

>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부터 교회가 없는 곳으로, 신앙이 있는 곳에서 신앙이 없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 서로 간에 그리고 세상과 화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 교회에 모이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표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벤 엔겐1996:26-27)

선교는 개인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도록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경계를 넘어 타문화권의 범위로 확대되며, 출발은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경에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선교동원의 주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에 참여하도록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선교동원 하시는 것을 말한다. 래리 리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선교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의 선교동원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북미주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문화영역과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그러므로 선교의 동원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성경은 말한다.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주권을 다음과 같이 7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하나님은 왕권으로 다스리신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개인적 헌신을 요구한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의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한다. 넷째, 구약에 나오는 왕의 공동체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섯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혹독한 저항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일곱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방향은 언제나 미래로 향한다(2012:22-39).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선교의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아서 글라서는 정확히 말한다. 아서 글라서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선교는 모두의 사명임을 알게 한다.

선교동원의 정의

선교동원이란 지리적 경계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선교 도전하고 헌신하게 하여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도록 하는

사역을 말한다. 제이 메텐가(Jay Metenga)와 맬컴 골드(Malcolm Gold)는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3 가지 포인트를 통하여 선교동원을 설명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일어나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 둘째로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찾는 것, 셋째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으로 선교동원을 정의한다(2016:74-75). 이것이 선교동원 패러다임이다. 선교는 시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21 세기 현대 세계선교의 큰 흐름은 세계화(Globalization) 패러다임이다. 서구교회 주도의 선교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비서구교회의 선교 대중화와 인터넷이란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들어섰다. 반면 세계화가 가속화되어가지만 이와 동시에 갈수록 선교 제한 접근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목사 안수받은 선교사가 입국을 하기가 어려운 선교대상 지역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은 세계화된 시대와 선교지 접근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세우고 이에 따른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 선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선교접근지역에 합법적으로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주체로 기여할 수 있는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한 평신도선교동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기에 와 있다.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이론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관점을 논함에 있어서 찰스 벤 엔겐의 관점, 랄프 윈터의 관점, 폴 피어슨의 관점, 그리고 조동진의 관점을 논하도록 하겠다.

찰스 벤 엔겐의 관점

찰스 벤 엔겐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강조한다. 그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있고 4 가지의 본질인 통일성, 사도성, 성결성, 보편성인데 지역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말한다(1999:88).

벤 엔겐은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규정한다. 지역교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한다. 현대 교회론보다 성경에 나타난 지역교회의 모습을 재연한다. 역사적 관점에 나타난 지역교회의 참모습을 서술한다(2014:97).

벤 엔겐은 지역교회의 선교적 의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오순절과 재림 사이에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특정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활동, 세상 속에서 변하고 있는 교회의 위치와 특성 등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개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도록 종용한다”(2014:122-123).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위한 존재’는 교회의 사도성과 관련되는 교회의 ‘보내심을 받음’에 대한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로 제자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다. 제자도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도이다”(2014:126).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규정하는 성경적 용어가 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 성경적 용어를 살펴보자. 네 단어는 코이노니아(koinonia), 케리그마(kerygma), 디아코니아(diakonia), 말투리아(martyria)이다.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안에 있는 지역교회에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를 실천하는 사역에 동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014:148).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는 상관관계를 가진다.

> 하나님 나라는 현존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도래할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이나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이다. 복음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2014:185)

> 예수님은 리더십을 섬기는 종의 개념으로 설명하셨다.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는 낮은 지도자들을 섬겨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교한다. 여기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섬김의 대상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섬기고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섬긴다. (2014:285)

벤 엔겐은 선교를 수행하는 주체를 평신도로 범위를 넓힌다. 그는 평신도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헬라어로 “라오스”)이라고 규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일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에서는 구별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 구성원 중 일반적으로 10 퍼센트 정도가 교회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나머지 90 퍼센트의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필자가 평신도 전문인들을 선교에 참여하게 하고 동원하는 연구를 할 때 일반 교회의 현실 속에서 평신도전문인 선교사 동원을 하는데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 주고 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흩어져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이 90 퍼센트의 평신도전문인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평신도전문인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 이제 선교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과 열정을 가진 선교 행정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물을 주는 일, 거름을 주는 일, 잡초를 뽑아주는 일, 열매를 잘 맺도록 가지를 쳐 주는 일, 그리고 장미를 다듬어 주는 일이다. (2014:328)

랄프 윈터 관점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탁월한 북미주 선교동원가였다. 그는 기독교 문명사를 보는 거시적 퍼스펙티브스를 서술한다. 그는 기독교 선교를 기독교 문명 운동으로 이해한다(2013:296).

윈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기술한다. 그는 기독교 문명사를 구속사, 창조,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 우리에게는 문명사를 보는 거시적 퍼스텍티브가 필요하다. 거시적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지만, 그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만 집중한 나머지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나무로 숲을 말할 수 없듯이, 작은 일화들만으로 거대한 이야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 즉 거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2013:42)

윈터는 세계 제 2 차대전 이후 비서구교회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철수한 후, 비서구교회들에 폭발적인 교회성장과 선교동원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퇴각한 이후의 사반세기 동안, 서양인들은 기독교 구 식민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다만 그들은 기독교가 과연 식민지 나라들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기우일 뿐이었다. 기독교는 구 신민지 국가 안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성장했다. (2012:18)

윈터의 비서구 선교 운동사에 따르면, 비서구교회들은 성장했다. 비서구교회 가운데 놀라운 선교동원이 일어났다.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 놀라운 선교역량이 폭발했다.

> 먼저 '비서구 선교 운동사'는 지난 1,500년 역사 가운데 역사적 전환점으로 작용한 전조적 사건들이 가득하다. 이 시대 전반을 통해 일어난 세계적인 기독교 운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모든 면에서 암울한 상황에서 깜짝 놀랄만한 긍정적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 기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기성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부도덕과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기독교 운동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모습을 드러냈다. (2012:14)

윈터는 소달리티 조직을 강조한다. 선교조직체가 구속적 선교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활발한 선교운동, 선교동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 조직체와 선교조직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기독교가 서구적 형식을 띠든 아시아적 형태를 띠든지 간에 기독교 선교운동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직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를 하는 두 조직체가 기독교 수 세기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 두 조직체가 온전히, 그리고 적절하게 인정되며,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활용될 때에만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선교적 노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2012:247)

선교동원을 위한 두 조직체는 상호조화를 이루며 동역해야 한다. 윈터는 강조한다. "역사적 패턴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모달리티 조직체 이외에, 때로는 모달리티 조직체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사용해 오셨다. 두 조직체는 모두 정당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선교적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며 동역해야 한다"(2012:282-283).

윈터는 문명운동을 위한 선교동원을 기독교 문명운동사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중세시대의 개신교의 선교 확장에 대하여 기독교 문명의 확장이라는 다른 측면의 관점을 가지고 선교 확장을 이해한다. 그는 1600 년부터 2000 년 사이에 선교 주자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갔으며 1500 년부터 1800 년까지 가톨릭 선교의 독무대였음을 말한다. 그 당시 프랑스혁명으로 인하여 가톨릭의 세계선교를 지원하던 재정이 바닥이 나서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이때 대영제국의 탄생으로 동인도회사가 시작하였다(2013:231).

당시 동인도회사는 선교사들이 회사의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해외 선교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였다고 말한다. 랄프 윈터의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한 견해는 서구인들이 원래부터 해외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구인들이 비서구권에 가는 목적은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선교였다고 한다(2013:232). 랄프 윈터는 서구식민주의 정책에 의해 서구교회의 선교 확장이 된 것이 아니고 식민주의와 관계없이 선교의 동원이 되고 확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랄프 윈터의 해석을 통해 볼 때 서구교회의 확장은 선교동원을 위한 서구 문명과 식민지시대의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서구교회는 국가의 식민주의 정책에 편승하여 선교사가 파송되고 동원이 되었다는 해석이 그동안 주된 해석이었지만, 랄프 윈터는 선교동원은 서구의 식민지 정책으로 확장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인의 관점은 랄프 윈터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서구교회가 선교동원이 일어나야 하는 시대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서구 제국주의가 확장되어가며 선교동원을 위한 도구가 되는 일정 부분의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고 해석을 한다. 서구식민주의 확장은 선교동원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현상이었다고 재해석 할 수 있다.

폴 피어슨 관점

폴 피어슨(Paul E. Pierson)은 선교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선교운동사를 제시하였다. 기독교 선교운동사에 나타난 선교학적 원리들을 기술하였는데, 선교학적 관점을 핵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선교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의 역사를 선교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선교운동의 역학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극한 위험을 감내하며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신앙 운동이 선교운동을 태동시켰는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선교구조와 조직은 어떤 것이었는가? 선교운동을 주도했던 리더들이 가졌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 선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속한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는가? (2009:16-17)

피어슨의 선교운동사관은 역사를 보는 하나의 틀이다.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선교학적 관점이다. 피어슨의 9 가지 선교학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2009:17-19).

1. 변두리 이론이다.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 교회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
2. 두 조직체 이론이다. 두 조직체는 교회조직과 소달리티라 부르는 선교단체 조직을 말한다.
3. 핵심인물 이론이다. 모든 선교운동은 핵심인물이 발기하였다.
4. 새로운 리더십 개발이론이다.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의 특징은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리더십 개발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 새로운 신앙 생활양식 이론이다.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새로운 신앙 생활 양식을 수반한다.
6. 새로운 신학적 돌파 이론이다.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새로운 신학적 돌파를 동반한다.
7. 부흥과 확장이론이다. 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8. 역사/상황적 조건이론이다. 교회 부흥과 확장은 역사적/상황적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난다.
9. 정보확산 이론이다. 선교 정보의 확산은 선교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어슨은 선교운동사를 다루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에 전개된 선교운동의 역학을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강조한다.

>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독특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강조한다. 평생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부탁한다. 복음이 왜 다른 곳으로 전해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인간집단에게 전해졌는가? 복음전달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였는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인간집단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복음에 적대적이었는가?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을 지나치고 말았는가? 이런 질문은 선교학적 질문이다. 나는 독자들이 선교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선교학적 질문을

> 던질 수 있기 바란다. 이것이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선교운동사의 연구방법이다. (2009:31)

피어슨은 이 시대를 선교동원에 창의적인 시대라고 주장한다.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교운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확신한다. 선교적인 필요와 도전도 크다. 하지만 선교적인 기회들 또한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계속 따라야 한다. 윌리엄 캐리와 함께 고백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리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2009:724)

선교동원과 선교 확장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피어슨은 중세 서구교회의 선교 확장에 대한 원인을 말하기를 유럽의 영향력이 1000 년 동안 이어오던 이슬람의 강한 군사력과 문화를 넘어서는 결과였다고 말한다. 유럽인들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2009:349). 그러나 폴 피어슨은 서구의 선교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를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동일시하여 유럽인은 기독교인이며 피선교지의 사람들은 유럽식의 옷과 유럽식의 문화와 유럽식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지적한다(2009:350).

중세 이후의 기독교는 유럽의 문화와 함께 전해졌고 교회의 선교동원은 막강한 군사력, 정치력, 문화를 통해 함께 가는 선교동원의 형식이 되었다. 유럽 선교사들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힘없고 약한 나라로 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선교의 형태는 선교동원이 일어나도 잘못된 기독교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보게 된다.

피어슨은 강자의 복음이 약자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그러나 나의 질문은 잘못된 선교의 방향이 있을 때 선교동원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진다. 피어슨의 주된 관점은 유럽의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가 기독교 확장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선교동원은 교회 활동에서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유럽교회가 하지 않을 때 일반 사회의 문화확장이라는 형태로 기독교가 확장이 되면서 그 밑그림에는 선교동원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폴 피어슨의 주장을 통해,

선교동원은 기독교와 상관없이 일반 문화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동진의 관점

조동진은 탁월한 비서구 선교동원가이다. 그는 비서구 선교동원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는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운동사관을 바탕으로 비서구 문명운동사관을 발전시켰다. 조동진은 1966 년부터 비서구권교회의 선교 사명을 인식하고 아시아교회, 아프리카교회 그리고 중남미교회들의 선교운동을 촉진시켰다. 그는 비서구권교회의 선교운동을 도와달라고 서구선교단체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번번이 협조를 거부당했다.

> 서구단체들이 볼 때는 아직 시작단계인 한국교회가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서구선교단체들과 협력의 장을 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조동진의 선교전략은 아시아권 선교협력으로 방향이 바뀐다. 조동진은 범아시아 선교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먼저 형성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서구 선교단체들과의 연결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아시아 12개국을 찾아가서 나라마다의 선교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한 특별 순방 여행을 시작하였다. (2011a:261)

조동진은 비서구권교회의 선교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아시아교회들을 필두로 아프리카교회와 중남미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나셨다. 조동진은 서구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서구선교의 기본구조가 정복이라고 보았고 새로운 선교의 정의는 해방이라는 접근을 말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선교는 생명의 사신'이다. 선교는 인류구속을 위한 헌신이다. 선교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헌신'이다. 선교는 정복이 아니라 해방이다. 선교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다. 선교사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것이다. 선교의 결국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업이 강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후에 그 교회들이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게 되므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2011b:111)

조동진은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운동사관을 바탕으로 비서구 문명운동사관을 주창한다. 조동진의 선교학은 정복과 지배의 개념이 아닌 해방과 섬김에 강조를 둔다. 이것이

서구선교와의 연결과 계승이 안 되어야 하는 그의 선교학임을 정확히 말한다. 따라서 조동진의 선교학은 해방과 섬김 즉 자유 선교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난 100년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약소민족 정복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서구선교는 동조하거나 침묵을 지킴으로서 피선교지 민족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서구 강대국의 정복과 지배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혼동하게 만들었다. 서구 국가를 기독교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이 식민지 교회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고 서구 문명이 곧 기독교 문명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2011b:112)

조동진은 서구선교의 역사평가는 서구선교는 피선교지를 서구 국가들이 정복함으로 기독교가 전해질 때 기독교는 정복자의 종교이었고 정복지에서의 기독교는 노예종교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선교역사에 대한 관점으로 조동진은 다음과 같은 선교운동의 방향을 제안한다.

조동진은 비서구 선교운동을 강조한다. 그는 비서구 선교운동의 당위성에 대하여 그동안 서구선교 안에 있었던 잘못된 선교운동을 차단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지적은 다음 다섯 가지를 단절하고 시작할 것을 제시한다.

물론 서구선교의 길고 긴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 준 많은 교훈을 우리는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일방주의와 차등주의와 독점주의 그리고 패권주의와 종속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21 세기 새로운 세계선교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2011b:114).

비서구권 선교운동의 중심에는 서구교회와 함께 선교운동을 해나갈 것이지만 서구선교 지도력이 비서구 선교 지도력 위에 군림하려는 강권주의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존중과 합의와 협약에 의한 동역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비서구권 선교운동에서 그의 제안은 그동안 21 세기 선교의 큰 장애물이었던 서구선교의 일방주의와 함께 서구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부도덕과 부정에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 인간 생명의 최고의 자유를 지향하는 '해방과 자유의 선교'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

조동진의 비서구 선교운동의 출발은 철저하게 기존의 서구선교의 틀을 단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단절로부터 새롭게 시작 될 수 있는 비서구 선교운동의 기본 선교개념은 해방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포함시키고 있고 자유라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조동진은 미래 선교의 방향으로 지난 세기 역사에서 절망에 빠진 무력한 민족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 절망적인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을 체험하였고 우리는 강도 만나 죽음에 직면한 민족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선교의 장점은 고난과 가난을 체험한 것이다(2011b:116).

조동진은 서구선교의 특징인 대기업 같은 선교의 특징을 따르지 않기를 제안한다. 그러한 방식에는 많은 거침돌과 올무가 있고 또한 그 방법은 개발주의적 뱅법이라고 지적한다. 서구선교의 규모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도 안될 것을 강조한다. 조동진의 미래 선교 제안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가난의 체험이 큰 자산이므로 소망의 빛을 전하는 선교를 할 것을 제시한다.

조동진은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에서 문제점을 선교구조가 잘못 구축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교회는 사도적 선교원형으로 복원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한국선교가 성장한 것의 원인은 교회들의 성장이었는데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성숙과 상관없이 성장을 하였고(2011b:253) 그 결과 한국선교도 양적인 동반성장을 하게 됨을 지적한다.

조동진의 지적은 한국선교의 성장과 팽창은 개발 논리와 성장 논리에 근거한 현대 미국 선교학을 따라간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선교의 구조를 오히려 엉성하게 형성된 개발과 성장제일주의 시대의 세계선교 구조가 철거되고 성경적 원형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동진은 직접 선교동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선교사 증가라는 현상을 선교동원이라는 결과라고 볼 때 그의 지적은 한국선교의 동원 분야에서 연결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조동진은 한국교회의 선교동원 구조와 연결되는 8 가지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개인의 내적인 소명과 교회를 통한 외적인 소명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선정하는 잘못을 한 것

2. 부적절한 선교사 훈련

3. 선교사 파송 후 관리를 제대로 한 선교단체가 없었던 것

4. 선교지 선정이 제대로 안된 점

5. 선교재정 공급이 원칙이 없었던 점

6. 선교지에서 선교사 간 협력과 공동사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7. 목회자와 직원들의 무분별한 단기선교라는 이름의 여행

8. 한국선교사들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협력이 없는 것

조동진은 위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선교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선교동원의 구조와 병합이 되는 구조이고 선교동원의 문제를 함께 가지게 된다. 따라서 조동진의 지적으로 볼 수 있다면 한국교회 선교동원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선교구조를 철거하고 사도적 선교원형으로 복원될 때 선교동원도 함께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조동진 선교학은 비서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조동진은 서구의 선교학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식민주의 시대(1750 년-1960 년)의 선교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서구 기독교 국가의 아시아, 아프리카 침략과 식민 정책 하의 식민지에서의 선교, 서구화가 곧 선교로 인식되던 시대, 지배와 착취와 선교가 혼재하던 시대, 식민지 지배 민족의 노예교회 같은 지배자의 종속교회, 선교 중심 교회가 서구화의 문명 이식 중심세력으로 보았다. 서구 선교학자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피선교지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 조동진은 서구식민주의와 선교세력은 두 날을 가진 흉기에 비유한다. 하나는 미화된 개척정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탐욕스런 교세확장주의가 있었다고 비판한다. 선교지에서 이들 정치세력과 선교세력은 유착된 관계임을 주장한다(2011b:134).

조동진의 관점은 피선교지 국가교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구의 선교방법을 비판하였지만, 선교동원의 측면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서구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지만 그런 면이 선교동원으로는 다시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조동진의 서구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느 위치에서의 역사해석도 가능하지만, 선교동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기독교 역사를 해석을 하게 되면 선교동원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석을 해본다.

조동진은 식민주의와 선교가 동시에 되었지만 잘못된 선교의 방법이었음을 지적한다. 선교동원에 관한 해석은 없다. 기독교의 역사를 해석할 때 이제는 선교동원에 관한 비평을 할 수 있을 때 현재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서구 기독교 확장의 역사에서 교훈은 교회들이 선교동원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데이비드 J. 보쉬 외 선교학자들 관점

하나님이 평신도들을 중요하게 선교사로 동원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다른 선교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한다. 첫째로 평신도전문인 선교에서의 선교학적 이해를 돕는 주장으로는 선교 신학, 신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Withness to the World)를 통해 볼 수 있다. 데이비드 보쉬는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보쉬 1980:90)는 선교 신학을 말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시대별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선교가 확장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로 허버트 케인의 선교 신학의 성서적 기초를 볼 수 있다. 허버트 케인은 초대교회의 선교의 특징으로 초대교회는 선교기관으로서의 조직이나 특별업무로 조직적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복음의 전파는 평신도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박해를 피해 평신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어디를 가든지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설명한다(1988:94). 그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직업적인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의해 사역자를 선택하시고 선교사역의 유형을 결정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988:149). 이 주장을 통해서 교회나 평신도 자신들이 평신도전문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로 리처드 보캄의 '세계화에 맞서는 기독교적 증언'을 살펴보면 평신도전문인

선교의 신학적 이해를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이동하는 선교 신학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리처드 보컴은 성경의 흐름이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동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고 해석한다. 하나에서 다수로 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족속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설명한다(2010:49).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선교는 우선 선택되어진 특수적 상황에서의 하나님 선택에서 점차로 모든 보편적 상황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동된다는 해석을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선 일정한 특수적 사람을 선택하여 보편을 지향한다고 한다. 신약성경은 특수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 타당성을 설명한다(2010:49)고 해석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개인은 특수성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교 확장을 위하여 보편성을 가지고 세계화에 맞추어 평신도전문인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로 요하네스 베르카일(Johannes Verkuyl)의 평신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동반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동반자로 로마서 9-11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동반자”라고 정의 한다(1991:188).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평신도 전문인들로 진행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선교동반자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임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세계선교의 책이며 신약의 존재 자체가 초대교회 선교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신약성경 자체가 선교사역의 기구임을 강조한다(1991:160).

다섯째로 게오르크 F. 휘체돔(Georg F. Vicedom) 역시 성서 전체의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의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의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휘체돔 1980:15).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인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이해를 같이하고 있고 휘체돔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분이라고 표현한다(1980:18).

요약

본 장에서 나는 선교의 정의, 선교동원의 정의, 그리고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관점을 다루었다. 선교의 정의를 논함에 있어서 게린 반 레힌, 도날드 맥가브란, 데이빗 보쉬, 찰스 벤 엔겐의 선교관을 다루었고, 선교동원의 정의는 래리 리서의 정의를 소개하였으며, 선교동원의 선교학자들의 관점을 다룸에 있어서는 찰스 벤 엔겐, 랄프 윈터, 피어슨의 관점을 서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선교동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기술할 것이다. 첫째, 선교동원의 역사를 기술할 것이다. 둘째, 북미 주한인 교회들의 선교동원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제 4 장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

본 장은 선교동원에 대한 역사적 관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첫째, 세계선교역사 안에서 서양 선교동원의 역사를 기술한다. 둘째,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을 기술한다. 그리고 셋째,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대하여 기술한다.

선교 선교역사에 나타난 서양 선교동원에 대하여는 핵심인물들로 윌리엄 캐리와 존 모트 사례를 서술한다. 비서구권교회의 선교동원은 한국교회 선교동원의 핵심지도자들의 예를 기술한다. 이어서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가들에 대해 기술한다.

개신교 선교역사에 나타난 서양 선교동원가들

세계선교의 역사에서 볼 때 선교동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선교운동의 확산은 그 전에 반드시 선교동원에 특별히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선교동원 과정에는 우선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일어나 나가게 됨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섭리 가운데 세계선교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양 선교동원의 대표적인 이들은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와 존 모트(John Raleigh Mott)였다. 캐리와 모트가 어떻게 선교동원가들로서 탁월한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윌리엄 캐리와 존 모트

선교동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과하여 시대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선교동원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선교동원은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선교를 수행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미시오 데이(mission Dei)가 교회를 조직하고 선교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미시오 데이에 의해 진행되는 선교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비드 보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시오 데이는 교회를 정화시킨다. 그것은 교회를 십자가 밑에 놓는다. 십자가는 갱신과 새 출생의 장소이다"(2000:763).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윌리엄 캐리라는 한 위대한 선교사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그가 18 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통해 그가 개종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 와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피어슨 2009:425). 폴 피어슨은 "선교 정보의 확산이론"을 통해서 선교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며 실례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일종의 선교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피어슨은 윌리엄 케리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선교에 결정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2009:428). 선교학에서는 윌리엄 케리의 업적에 대하여 인도에서 있었던 사역의 열매들에게 초점을 마추어 캐리를 위대한 근대선교의 아버지로 평가를 하지만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던 선교동원가로서의 업적도 재조명을 해야 한다.

근대선교운동을 위하여 1792 년 Baptist Missionary Society(BMS)가 영국 Kettering 모임에서 세워졌는데 거기서 12 명의 목사들, 곧 Thomas Blundel, Joshua Burton, John Eayres, Andrew Fuller, Abraham Greenwood, William Heighton, Reynold Hogg, Samuel Pearce, John Ryland, Edward Sherman, John Sutcliff, Joseph Timms 가 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Smith 2011:52). William Staughton 이 그 모임에 동석했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어서 서명하지 않았다(2011:108). 첫 번째 선교사들인 William Cary 와 John Thomas 가 1793 인도 뱅갈로로 파송되었다. 많은 동역자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는데 먼저는 인도로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카리비안,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남미로 갔다. Timothy Richard 가 아마도 중국으로 간 침례회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BMS World Mission" n.d.:Wikipedia Online).

1773 년 6 월 3 일 아내와 4 자녀 동료 2 명(처제와 토마스)과 11 월 11 일 인도 후글리(Hooghly)에 도착한 캐리는 존 가랜드(John Garland)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내 선교회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일로 1975 년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LMS)가 생겼고 후에 런던선교회는 로버트 마펫과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로버트 모리슨을 중국으로, 존 윌리엄스를 남태평양으로 파송했다. 이후 스코틀랜드 선교회, 교회선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일들은 캐리의 영향을 받아 생기게 된 런던선교회의 영향으로 설립되었다(피어슨 2009:434). 영국에서 런던선교회가 조직된 후에 영국 해외 성서 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 공회 등이 설립되어 세계선교의 기틀이 잡히게 된다. 결국, 이런 선교회들의 설립과 선교운동의 확산으로 세계선교의 주축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게 된다. 이런 결과로 오늘날의 세계선교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동원의 특징은 우선 한 사람을 동원하신다. 캐리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선교동원의 특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 있다. 캐리는 처음부터 그를 동원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선교지에서 그는 영국회사인 동인도회사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덴마크 영내인 세람포르로 옮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1793 년 인도로 가고자 하는 열망은 가족과 그의 교회인 하비레인 교회 성도들도 완강히 반대를 하였다. 그는 영국 침례교 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 BMS)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되었고 인도에는 그의 가족과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동역자와 함께 인도로 출발한다.

캐리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1792 년도에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번역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을 개종시켜야 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의무’)라는 책을 발간하여 영국 내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책을 ‘선교적 탐구’라고도 한다. 그는 문서를 통하여 선교동원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1 년 후에 자신이 직접 인도를 향해 나간다. 그는 다른 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하여 책을 내지만 그 실제 본을 자신이 선교에 동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캐리의 선교동원의 큰 업적은 서구 기독교가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그의 도전으로 선교회들이 시작되게 한 것이다. 1796 년도에는 스코티쉬와 글래스고우 선교회들(The Scottish and Glagow Missionary Societys), 1810 년도에는 미국해외선교위원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geign Missions), 1814 년도에는 미국 침례교총회 총 해외선교회(The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of The Baptist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oreign Missions)가 시작되었다(캐리 2008:18). 이러한 형태의 선교운동이 시작되게 된 기초를 놓은 캐리는 근대선교의 문을 열고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 지원자들로 하여금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지로 나가게 하는 세계선교를 위한 서구교회들의 선교동원이 시작 되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였다.

또 하나 그의 위대한 선교동원의 방법으로는 통계를 통한 도전이었다. 그는 그의 저서 *'An Enquiry'* 중 제 3 장 'A World Survey'(2008:67-88) 부분에서 국가들 리스트와 땅의 크기, 인구수, 종교에 대하여 통계를 내어 발표를 했다. 이때 조사되어진 대륙과 국가들은 터키, 아라비아, 그레이트 타타리,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섬들이었다(2008:89). 캐리는 선교동원에서 말씀만을 기초로 선교동원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국가들과 인구수 통계를 발표함으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계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객관적 사실을 통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 선교를 동원한 전략이 또 하나의 위대한 동원 전략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예를 통해 오늘날의 선교동원의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선교회들의 역할이 선교동원에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캐리의 선교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선교를 동원하는 자신이 우선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를 하는 것이다. 선교동원을 하는 선교회나 선교동원가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로 동원하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은 선교하지 않는 것이다. 캐리처럼 자신이 먼저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동원하는 예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윌리엄 캐리 때부터 시작된 또** 다른 유럽의 초기선교의 특징은 자발적 선교, 문화적 선교, 평신도선교, 소그룹 운동, 교회운동이며 미국선교의 특징은 교회중심, 직접선교와 전문인선교, 국내 인디언 선교가 있다. 여기서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 중 하나가 평신도선교와 전문인선교였다(박영환 2012:292). 따라서 역사적으로 선교동원은 다양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존 모트

존 모트(John Raleigh Mott)는 탁월한 선교 지도자였고 놀라운 선교동원가였다. 그는 YMCA 를 통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동원을 했다(1924:11).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회 최상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개인 삶의 전 영역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1924:7).

모트는 감리교 소속 평신도로서 1800 년대 말부터 1900 년대 전반기, 대서양을 100 여 차례, 태평양을 14 회 이상 건너다니며 당시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하여 선교동원 면에서 누구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이었다. 모트는 개인적으로는 미접촉 족속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도 개척하지 않았지만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를 요구하는 그의 1990 년 책이 나온 수년 안에 그의 메시지는 2 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 책이 주장한 비전을 따라 나가도록 촉매 역할을 하였다(Bush 2015:2). 그는 학생 자원운동(SVM)과 기독교 청년회(YMCA) 운동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는 선교지 현장에 파송 받은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평신도로서 복음 전도자로, 선교동원가로서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그는 YMCA 국제위원회의 학생부와 해외책임자로(1888-1915) 사역하였고, 또 세계연맹의 회장(1926-1937)으로 활동했다. 1895 년에는 WSCF(World's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즉, 기독학생연맹을 세워 여러 해 동안 회장으로 또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회장(1912-1942)으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1910 년에는 범 세계적인 에딘버러 대회(Edinburgh Conference)를 주최하여 위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평신도 선교동원가 존 모트를 세계선교 동원역사에서 크게 쓰시었다(Bush 2015:2).

모트는 선교단체를 조직하여 선교 열정을 전달하고 선교동원의 규모를 크게 하여 젊은 세대를 선교사로 동원하는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선교지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은사를 통하여 서구 기독교가 세계선교를 폭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간 선교동원 전략가였다.

모트의 생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모트(Mott)는 학생자원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과 세계학생 기독교연맹(Christian Fedration)을 설립했으며 에딘버그(Edinburge)에서 열린 1910 세계 선교사 대회의 소집이었다. 그는 지속위원회의 의장을 맡아서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창립과 세계 교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참여했다. 그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서 "지금"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는 시대에서의 위기, 약속 및 행동의 시기라고 강조한 복음 주의자였다. 모트(Mott)는 선교사의 활동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애가 되고 있는 인종 차별을 국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Woodbridge 1992:272)

모트(Mott)는 학생자원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과 세계학생 기독교연맹(Christian Fedration)을 설립했다. 영국 에딘버러에서 1910 년도에 열린 세계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고 인도하였다. 그는 진행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창립과 세계 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세계선교동원을 위한 주장으로 “지금”을 강조하였고 지금이 위기이며, 약속의 시대이며 및 행동의 시기로서 "지금"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강조한 에큐메니컬 지향적인 복음주의자였다. 모트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종적 장벽을 허물고 국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선교사 파송으로 보았다(1992:272).

그의 선교동원의 특징은 국제대회 조직과 대학생 중심의 젊은이들에게 선교동원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젊은 세대를 선교에 동원한 서구교회는 윌리엄 캐리의 근대선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세계선교가 확장되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선교동원의 전략은 그의 철학인 “하나 됨, 연합” 이였음을 그가 이루어 놓은 세계규모의 선교대회 외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교파, 모든 인종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선교동원에 중요한 기초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모트의 선교동원의 핵심을 보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선교대회를 조직하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가장 깊은 동기는 선교를 동원하여 복음을 이 세대에 지금 복음을 전하자는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윌리엄 캐리가 19 세기 근대선교의 문을 열고 선교동원의 기틀을 만들었다면 존 모트는 20 세기에 선교동원의 꽃을 피우는 한세대를 살았던 역사의 인물이었다.

모트의 선교동원은 일단 당시의 서구교회들을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고 대형 선교대회와 전국적 차원의 대학생 선교운동과 교회 차원에서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는 선교동원이었다. 모트의 선교동원의 방법에서 지금의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현재까지는 이러한 대형규모의 선교대회를 북미주 한인교회들도 대형선교대회의 외형적 모습을 답습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위기”라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니라 젊은 세대를 동원해 초점을 맞추고 위기감과 지금이라는 긴급성을 선교동원에서 놓치면 안될 것이다. 선교동원의 중요한 핵심은 외형적인 규모가 아니라 선교의 긴급성이 강조되고 도전되는 선교동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모트 당시의 세대는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지리, 교통, 경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기에 일단 크게 모이는 것도 중요했다. 그러나 현재는 모임이 수월한 시대가 되었기에 모임의 규모보다는 선교의 긴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선교동원을 위한 대회가 필요하다.

한국교회 선교동원가

한국교회 선교동원가는 한국교회 해외 선교에 기여하였다. 박기호는 한국교회 선교운동사에서 중요한 네 명의 지도자를 지목한다. “이 네 명의 선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선교사로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선교동원 사역에 기초를 놓는 역할들을 감당하였다. 그들은 김활란, 조동진, 김의환 그리고 김준곤이다”(1999:160). 또한 개척기의 시기적인 특징은 소수의 선교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말하는데, 한경직, 김활란, 조동진 등 총회 차원이나 대학교 등 큰 기관들이 주도하는 것이다(김한성 2011:121).

김활란, 조동진, 김의환, 김준곤

한국교회 선교운동사에 중요한 네 명의 지도자인 김활란, 조동진, 김의환, 김준곤이 선교동원 사역에 기초를 놓은 역할들과 그들이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 기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활란

김활란은 이화학당 초기 학생이었다. 김활란은 이화학당에서 신앙과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녀는 1924 년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25 년 9 월 보스턴 대학교 철학석사를 받았다. “귀국 후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교사와 교감, 부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8 년 미국 유학 중 ‘무지와 구습의 타파’를 이유로 공개 단발을 하였다. 그녀는 1931 년 10 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다. 한국인 최초 여성 박사가 된 것이다.[1]

김활란은 이화여자대학을 통하여 선교동원을 하였다. 김활란은 1939 년 이화 총장직에 취임하였는데 김활란의 총장직 취임은 한국 여성들에게 여성도 사회적, 학문적으로 정상에 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김활란은 해방과 미 군정기 한국 전쟁 그리고 근대사의 격동기를 잘 견뎌냈다. 취임 당시 9 개 학과 900 명이던 이화를 1961 년 퇴임 시 35 학과 8 천 명인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다(이대학보 1999:6 월 1 일 Home 면 기사). 김활란은 YWCA 를 통하여 선교동원을 하였다. 1918 년 이화학당 대학부를 졸업하고 중앙기독교청년회(YMCA)에서 활동하였다. 이 활동을 계기로 하여, 그녀는 여자 YMCA 를 독립시켰다. 1923 년 유각경 등과 함께 조선 중앙여성기독교청년회(YWCA)를 조직하였다.

김활란은 다양한 조직체를 통하여 선교동원을 하였다. 김활란은 1927 년 근우회의 창립에 참여하였다. 근우회와 신간회 활동 외에도 김활란은 여성 기독교 선교 및 교육, 계몽 활동 역시 병행하였다. 1961 년 금란전도협회를 조직해 농촌 기독교 전도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기독교교육자협회 회장, 전국복음화운동 명예회장, 한국기독화운동위원회

[1] 위키백과, 김활란, n.d., 2017년 11월 1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9%9C%EB%9E%80

위원장 등을 맡았다. 1962 년 신경염으로 병석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활동하였다. 이후 1964 년까지 양주, 인천, 포천, 충주, 부여, 원주, 전주, 대전, 신탄진, 대구 등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과 선교동원을 하였다.

김활란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활동한 지도자였다. '여성 박사 1 호, 전문학교의 유일한 여성 교장, 여성 YWCA 창립자의 한 사람' 등이라는 수식어가 따랐다. 김활란은 교육, 기독교계의 여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활란은 또한 사회단체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학사협회, 대한부인회, 주부클럽연합회, YWCA 등 여성단체를 설립하고 회장 등의 임원직을 역임하였다.

전재옥은 김활란이 자신과 함께 다른 이화여대 출신들, 곧 조성자, 김은자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보낸 일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김활란이 국제회의에서 만난 파키스탄 찬드레이 감독은 당시 파키스탄 연합교회(감리교, 장로교, 성공회)의 초대감독으로 1960 년-1970 년까지 섬겼다. 당시 피곳 이라는 이름의 영국 선교사가 100 년 전에 신드 하이브리드 지역에 세워 놓은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니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김활란을 만나 요청하였다. 이 일로 김활란은 학생들에서 선교사로 갈 것을 도전하였고 전재옥은 1960 년 여름에 감리교의 유형기 감독, 김종필 감독, 김활란 장로와 김옥길 장로, 마경일 목사, 조찬선 목사 그리고 원로 감리교 미국 선교사들 6 명이 안수함으로써 파송이 되었고 14 년간의 선교 활동을 신드지역에서 전개하였다(전재옥 2005:255-256).

김활란은 당시 이화여대학생회라는 선교단체(Modality)와 교회(Sodality)가 연합하여 선교를 동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인을 선교에 동원하는 귀한 일을 한 것이 한국선교의 초기 선교동원의 특별한 결과를 만들었다.

조동진

조동진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아시아교회들과 제삼세계교회들을 위한 탁월한 선교동원가이다. 그는 비서구권 선교단체를 조직하여 비서구권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주도적인 지도자이다. 그는 한국국제선교회(Korean International Misson, KIM), 아시아선교협의회(Asia Missions Association, AMA) 그리고 제삼세계선교협의회(Third World Missions Association, TWMA) 등을 조직하여 한국교회, 아시아교회, 제삼세계교회의 선교동원 사역에 전력을 다하였다.이때 세워진 선교회가 한국의 경계를 넘어서 아시아권 교회들에게 선교동원 운동이 확산되도록 기여하는 아시아선교회(AMA)를 1975 년도에 그리고 1988 년도에는 제 3 세계선교협의회(TIMA)를 설립하여 한국의 국내 선교동원 운동과 동시에 이제 신생으로 자라나고 있는 제 3 세계의 교회들이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박기호 1999:161).

조동진은 1924 년 12 월 29 일 평안북도 용천군 양광면 충렬동에서 독립운동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후 100 일 때에 선교사 도날드 스위코드(Donald A. Swicord: 한국명 서국태)에게서 유아세례를 받는다. 열일곱 살 때 평안북도 용천군 동산면에 있는 용상교회에서 김예진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후에 그는 조선신학교, 고려신학교 다니다 1949 년에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1956 년 전도와 선교를 공부하기 위해 조동진은 미국으로 유학을 하여 바링턴대학(Barington College), WEC 선교사훈련원, 베다니 선교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석사과정으로는 애즈베리신학교에서 선교학 전공 신학석사(Th.M. in Mission)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 후 귀국하여 1960 년부터 1978 년까지 후암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한국에서는 가장 초기의 개교회로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성장을 시킨다. 후암교회는 그가 처음에 부임할 때에 150 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1963 년도에는 1,000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한다.

조동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교훈련과 선교사 파송을 위해 선교단체를 만들었다. 1964 년 3 월에는 국제선교연구원, 1968 년에는 국제선교협력기구(Korea Evangelistic Inter-Mission Alliance, KEIMA) (1970 년부터는 한국국제선교회(Korea International Mission, KIM 으로 이름이 바뀜)를 설립한다. 그는 동시에 한국신학교들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게 된다. 그가 강의한 학교들은 장로회총회신학교, 감리교신학교, 성결교회의 서울신학교 등이었다. 조동진의 이후 중요한 활동은 세계선교계의 지도자들과 게속 교류하며

아시아권 안에서의 자체적인 선교기구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1973 년 8 월 서울에서 범아시아 선교 지도자 대회소집, 1975 년에는 아시아선교협의회(Asia Missions Association, AMA)의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하여 아시아인들로서는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1974 년 스위스 로잔세계복음화대회에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선교구조의 갱신'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 1975 년에는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 선교위원회 창립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1979 년에는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 웨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등의 미국 신학교에서 아시아 출신 선교학자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1989 년에는 제삼세계선교협의회(Third World Missions Association, TWMA)의 창립과 동시에 회장으로 선출되어 1995 년까지 지도력을 발휘하였다(박기호, 마원석 2010:40-59).

조동진이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동진의 국제선교 활동은 풀러 선교대학원과 랄프 윈터의 윌리엄 케리 선교센터가 주축이 되어 서구 선교학자들과 활발한 교류가 되어졌다. 그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 초기인 1980 년대에 영향을 크게 미친 선교사들 중 그의 제자들이 있다. 김정웅, 이은무, 박기호, 조용중 등이다. 따라서 조동진은 일찍이 선교훈련센터와 파송 기구인 KIM 을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에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후 조동진은 1988 년도 7 월 25 일-30 일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열린 제 1 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주 강사로 참여하며 북미주 안에 세계선교를 위한 대회의 문을 함께 열었다.

조동진은 본인이 국제적인 선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동시에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기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북미주에서 선교 관계 사역을 하면서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그동안 확인받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따라서 조동진의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에 연관된 업적이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김의환

김의환은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동원에 기여하였다. 김의환의 선교동원에 영향을 받아 선교사가 된 사람이 많다. 그 중 한 사람인 박기호는 그의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김의환은 1960년대 말에 일본에 파송된 동양인 최초의 OMF 선교사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아마도 민족적 편견의 이유로 그에게 선교사 비자를 발급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감지하였다.... 그는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젊은 목사 후보생을 가르쳤으며 그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예장합동 선교사들이 그의 신학교사역의 열매로 헌신하게 되었다. (1999:161)

김의환은 전략적이었다. 선교동원 전략에서 볼 때 김의환 한 사람이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국교회의 선교동원에 대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한국교회 선교동원 운동의 섭리를 알 수 있다. 선교는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행위이지만 그런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교육하고 일으키는 사역도 필요하다.

김의환은 탁월한 선교동원가였다.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 운동의 역사를 고찰할 때 김의환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김의환 목사는 OMF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되었다가 비자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 귀국한 후 본인은 선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로 그는 한국선교동원 운동에 기초를 놓는다. 총신대에서 신학생들을 도전하여 총신대 2 회 졸업생 22 명 가운데 9 명이 그의 영향을 받아 타문화권 선교사로 헌신하여 섬기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김활영, 이연호, 김신숙, 박기호, 장정일, 이명자, 윤미정, 이강옥, 우예덕이 있다. 총신 신대원 출신으로는 신대원 학우들 중심으로 일어난 선교운동에서 김유식, 강승삼, 정운진, 이재환, 박시경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다. 한국교회 중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기관인 GMS 선교사들 가운데 초창기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이 김의환 박사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아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다.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에 기여한 나성한인교회와 국제신학교(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를 세워 선교운동을 펼친 김의환 목사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섭리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움직이는 일이었다. 김의환은 이미 한국선교운동의 네 명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고 이미 선교동원과 훈련에 대한 깊은 경험과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다. 박기호의 기록에 보면 김의환이 1976 년에 총신대교수직을 사임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는 이민을 와서 2/3 세계의 학생들을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국제신학교(ITS)를 설립하고 또한 나성한인교회를 개척하여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의 기초를 놓게 된다(1999:161).

김준곤

김준곤은 풀러에서 수학하던 중 풀러에서 빌 브라잇(Bill Bright)을 만나 CCC(Campus Crusade for Christ)를 알게 되었다. 또한 김준곤은 Korean Campus Crusade for Christ (KCCC) 설립을 도전받고, 1958 년 11 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KCCC 를 창설하였다. KCC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주요 대학에는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6천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영적 운동을 일으킬 내일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 41개 도시, 300여개 대학에서 2만여 명 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n.d.:CCC 캠퍼스 사역)

김준곤의 기여는 대학 캠퍼스 사역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세계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을 동원한 것이다. 박기호는 다음과 같이 그의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990년까지 그는 2,300,000명이 넘는 평신도를 훈련시켰다. 한국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 중 약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KCCC가 훈련한 사람들이다. 그의 세미나에서 훈련받은 남녀들은 정부 주요기관, 사무실, 가정, 군대, 잠수함들에서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 타임즈 LA판 1990년 1월 22일 기사; 1999:162에서 재인용)

김준곤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였다. 김준곤은 1958 년 한국 CCC 를 창설해 30 만여 명의 대학생을 복음으로 키워냈다. 미국 유학 시절 접한 조찬기도회를 모방하여

1965 년 국회조찬기도회를 시작하였다. 1966 년 국가조찬기도회를 창설했다. 그리고 1968 년 '민족 복음화 제 3 의 집단'으로 나사렛 형제들을 창설했다. 1969 년 전군신자화운동을 시작했다. 1970 년 12 월 31 일 0 시 CBS 기독교방송을 통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선언하고 주도했다. 그의 평생은 젊은이들을 복음화와 선교에 동원하는 일이었다.

김준곤은 1971 년 대전 충무체육관 1 만 명에게 민족 복음화 요원 훈련을 실시하였다. 1972 년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했다. 1974 년 8 월 13-18 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 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1980 년 서울에서 '80 세계복음화대성회를 개최하여, 10 만 명의 선교사를 헌신하게 했다. 당시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 이유로 파송 선교사가 100 명도 되지 않은 때였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1990 년 7 월과 8 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 한국 CCC 대학생 3 천여 명을 단기선교사로 파송해 '단기선교 시대'를 열었다. 또 1995 년 5 월 20 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청년대학생 8 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SM 2000 대회'를 열어 세계선교단·통일봉사단으로 헌신하게 했다.

1999 년부터는 북한 젖염소 보내기운동을 전개해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에 32 만 평의 CCC 은정젖염소 목장을 만들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상임대표로 10 년간 활동하면서 평화와 통일에 힘썼다. 그의 정신은 지금도 KCCC 가 계승하고 있다(이대웅 2016: 크리스찬투데이 9 월 30 일 기사).

> CCC는 'Movement Everywhere'(어느 곳에서나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화 할 수 있도록 파송하여,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 단체이다. 3중 목적은 전도(Win), 육성(Build), 파송(Send)이다. 3중 헌신은 주님께 헌신, 민족의 입체적 구원에의 헌신, 형제들에의 헌신이다. 4대 절대는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이다. 5대 강령은 말씀, 기도, 전도, 사랑, 협심이다. 표어는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한국대학생선교회 n.d.:CCC란! 소개 및 연혁)

김준곤은 북한선교에 공헌하였다. 1998 년부터 2006 년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북한 주민을 도왔다. 2002 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박기호가 설명한 4 명의 선교 지도자의 특징은 모두가 탁월한 교육가였고 미리 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네 명의 지도자들은 모두 미국에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기독교 문명의 세계에 일찍이 접한 경험이 이들의 선교와 세계비전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며 복음화 하는 것의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될 세계선교의 준비를 선교사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 교육의 중요성에 눈뜬 사람들, 젊은 세대의 복음화가 중요한 것을 아는 네 명의 선교동원 지도자들을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서부터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4 명의 선교 지도자들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이러한 축복이 한국교회 선교의 중요한 기초를 만든 것이 초기 1970 년대 이후부터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재의 선교사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북미주 한인 선교동원가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는 한인 이민 사회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한인교회들이 개척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 한인교회들이 선교에 동원이 되도록 기여를 한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은 선교사의 경험은 없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 목회의 방향은 분명하였다. 이들이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기초를 만들었다. 그들은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선, 정상우 목사 등 이다.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선, 정상우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가는 해외 선교운동에 기여하였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의 뿌리는 한국교회 선교운동과 동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의 시작은 190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선교사 파송의 확장은

한국선교운동의 기초를 만든 4 명의 선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북미주한인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 시기가 시작되는 1970 년대에서 본격적으로 북미주에서 한인 선교사들을 동원하며 시작된다. 이때에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것이 한국선교운동의 네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김의환이 1976 년에 총신대교수직을 사임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는 이민을 와서 2/3 세계의 학생들을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국제신학교(ITS)를 설립하고 또한 나성한인교회를 개척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의 기초를 놓게 된다(박기호 1999:161). 하나님께서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를 진행하시는 과정에 첫 부분은 선교동원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은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역사와 분리 될 수 없는 영역으로 함께 있어 왔다. 70 년대 북미주한인교회 근대선교사 파송 역사를 이해함으로 북미주한인 선교동원 역사 안에 나타난 선교동원의 특징과 특성을 고찰을 해본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은 선교적 목회를 하여 본인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를 통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이 세계선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목회자들은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선, 정상우 목사 등 이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 한인 선교사들은 1980 년 이후 다양한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역활을 하고 있다. 1980 년대 초에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파송한 초임선교사들이 첫 임기 중에 미주를 방문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에게 직접접으로 선교를 도전하고 동원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김의환

김의환은 일찍 미국에 유학하였던 경험으로 북미주 한인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민 사회에 한인교회들이 성장하는 기초를 만든 것에 기여를 하였다. 1957 년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1959 년 9 월 미국 커버넌트 신대원에 입학하였고, 1960 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에서 신학석사를 취득하고 1966 년에는 템플대학교에서 철학박사(Ph.D.)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개혁장로회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김의환은 한국 총신대에서 교수로 1967 년 3 월에서 1976 년까지 교수 사역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1977 년 6 월 6 일에 나성한인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1995 년 3 월 30 일에 사임을 하였다(나성한인교회 n.d.:교회 연혁). 미주 한인교회의 시기로 볼 때 이민교회의 개척기에 나성한인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교회였고, 또한 김의환은 목회 당시에 멕시코 선교를 이주태 선교사를 도우며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주태를 통해서 중남미 목회자 수련회를 후원하였고 이주태의 3 자녀를 나성한인교회에서 교육을 지원하여 양육을 하였다(johnowenministry 2011:5 월 24 일 게시글). 김의환의 또 다른 이민사회의 기여는 1982 년부터 남가주 엘에이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의 학장을 지내며 제 3 세계의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도록 기여를 했다. ITS 는 다교파, 다인종의 선교 지향적 신학교이다(I.T.S. n.d.:학교 연혁, ITS 소개). 김의환은 항상 선교 지향적인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북미주한인교회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원상

이원상은 1968 년 달라스 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에 유학 와서 1972 년에 졸업 후 1973 년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에 입학한다. 1977 년 12 월 전도사로 청빙 받아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교역자로 부임했다. 당시 교인은 14 가정, 30 명이었다. 1989 년 목회를 하는 중 Central Mission Fellowship (CMF)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대표가 된다. 이후 2000 년도에는 CMF 와 뉴욕장로교회에서 세운 Reach Out to the World 와 합병한 SEED International 선교회를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라는 구호로 시작한다(와싱턴중앙장로교회 출판부 2017:297). SEED International 선교회는 미주 동부지역의 한인교회들을 선교 동원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17 년 10 월 현재 37 개국에 140 선교사 가정을 포함하여 총 268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시드선교회 2017:선교사 파송 현황).

이원상의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 아직 북미주한인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할 때 동부지역에는 최초로 교회가 선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동원하여 파송한 좋은 모델이 되었다.

임동선

임동선은 1965 년도에 미국에 유학 온 후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1970 년 동양선교교회를 개척을 하였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시에는 한인들이 모두 4,000 명 정도였고 교회는 6 개였었다(정숙희 2014:미주 한국일보 2 월 1 일 기사). 임동선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본인의 목회를 통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선교동원 관점으로 동양선교교회의 약사를 볼 때 특이한 것이 해외 선교의 개념으로 모국선교를 시작한 후 1976 년 10 월 3 일까지 모국선교 지원교회 21 개, 한국 농어촌교회 109 개 지원, 그리고 1982 년 1 월 1 일까지 모국선교지 123 개 지원이라는 통계를 기록하고 있다(동양선교교회 1976:해외선교 현황).

임동선은 1987 년 7 월 11 일에 세계복음선교연합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를 설립한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동양선교교회의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심으로 한 교단이었지만 이름부터 세계선교 활동을 위한 선교기구였고 북미주한인교회들을 선교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선교에 참여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기구였다. 이후 임동선은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신학교를 설립한다. 1989 년 3 월 27 일 동양선교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계선교신학원(World Mission Theological Seminary)를 개교 하였다. 임동선이 초대 학장이 되었고 처음 입학생 32 명의 학생으로 학교가 시작되었다. 2 년 후 1991 년 세계선교신학원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목회학 석사(M.Div.) 과정과 문학석사(M.A.) 과정을, 1992 년에는 학사(B.A.) 과정을 인준받게 되며 1993 년 6 월 29 일 학교 명칭을 세계선교 신학원(World Miss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월드미션 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여 학교를 통한 북미주한인교회 안에 선교사 동원사역을 이어간다.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의 특징은 198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민교회들이 생기면서 초기에 교회를 개척한 세계선교의

비전이 있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2014:미주 한국일보 2 월 1 일 기사).

김광신

북미주 전체 한인교회 중에서 단일교회로 선교회를 창립하여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은혜한인교회이다. 은혜한인교회는 “1982 년 5 월 9 일 오후 2 시 남가주 플러톤시 620. S. Roosevelt Ave.의 한 미국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당시 47 세였던 김광신은 3 가정과 함께 드렸다”(한기홍 2012:38). 2004 년 9 월 12 일에 2 대 담임 목회자로 한기홍이 취임했다. 김광산 목사의 22 년간의 선교동원 목적으로 목회를 해온 결과 김광신은 은혜교회 목회를 통해 북미주한인교회 중 새로운 선교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개교회로서 선교동원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김광신은 은혜한인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7 가지의 선교 철학을 가지고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하였다.

1.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선교의 주인의식 고취

2.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1 군 사령관(전방 사령관: 결정권자의 의미)이고 본 교회는 2 군 사령부(후원교회의 의미)라는 선교사 중심주의

3. 파송교회는 선교사의 사역비를 전담한다는 선교사 전담 지원주의

4. 정기적인 사역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선교사 자율주의

5. 선교사역의 진흥을 위하여 본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후원교회 무한책임 역할론

6. 본 교회나 단기선교팀은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방향으로 한다는 선교사 및 선교지 우선주의

7. 선교지에서 구입하는 부동산은 20 년 후 현지인 단체에게 무상으로 이양한다는 선교지 귀속주의(2012:208).

위와 같은 선교 중심 철학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1990 년도에는 아직 한국에서도 러시아 선교를 시작하지 못한 시기에 1990 년 7 월 24 명의 2 세들로 구성된 선교합창단을

러시아에 파송하게 된다(2012:210). 김광신은 교회 개척 후 17 년간 목회를 하면서 1999 년 5 월에는 은혜한인교회 안에서 선교동원을 위하여 Grace Mission International 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된다. 김광신은 본인교회를 선교동원에 가장 최선봉에 세워 본 교회 교인들부터 러시아 선교를 위한 선교동원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1992 년 3 월에 모스크바에 은혜신학교를 시작하여 2003 년도 5 월에는 정식으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5 년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승인받게 된다. 이 신학교는 1992 년 3 월부터 2010 년 4 월까지 1 기에서 23 기까지 2,400 명이 입학하여 22 명이 졸업하게 된다(2012:210). 김광신은 북미주한인교회 목회자로서 선교동원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목회자였다. 양태철은 다음과 같이 GMI 현황을 말한다.

> 은혜교회가 포함된 GMI는 저희 국제총회의 선교본부가 되며, 선교 현황은 현재 74개국에 530명 선교사(60% 파송율)가 되고, 18개의 신학교와 1개의 초교파 GMI선교사 훈련원과 2개의 크리스천 학교(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가 됩니다. 저희 국제총회 소속 71개 교회 중, 미주에 45개 교회가 GMI 선교를 함께하고 있으며, 현지사역으로는 직접 및 간접 사역을 통한 제자화와 교회개척을 통한 토착화 (자립, 자치, 자전, 자신학화, 자선교학화)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선교의 목표 및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사역, 크리스천 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역, 국제영어학교 사역, 교회개척 사역, 구제 사역, 중독자 회복 사역, 고아원 사역, 방송 사역, 기술학교 사역, 영농학교 사역, 감옥 사역, 기도원 사역, 각종 문화 사역, 건축사 역, IT 및 컴퓨터 사역, 숙박 및 식음료 사역, 봉제 공장 사역, 미전도 종족사역, TD(Tres Dias) 사역, G12 사역, 전도특공대 사역 등이 됩니다. 구소련 선교는 1990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특별히 1992년 3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신학교(2003년에 신학대학과 대학원으로 승격 됨)를 통하여, 2,700명이 입학하여(현재 27기), 2,400명이 졸업하였으며, 그들 졸업생이 세운 교회가 2,000 교회가 되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교회는 1,200개가 됩니다. (양태철 2016:8월 22일 개인적인 인터뷰)

정상우

정상우는 1984 년 3 월 30 일 LA 충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며 남가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한다. 정상우의 목회를 통한 선교동원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충현 새일 세계선교회를 동시에 시작한다. 1985 년 8 월 11 일 충현선교교회 위임목사가 되어 2002 년 12 월 31 일 은퇴하기까지 충현선교교회 목회와

선교회를 동시에 하였다. 충현선교교회는 2017 년 1 월 기준 27 개국의 73 명 선교사 파송 및 10 개국 26 명의 선교사를 협력 지원하고 있다(충현선교교회 2017:선교사 파송 현황).

위의 목회자들처럼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남가주 이민교회들이 선교동원에 참여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최찬영이다. 최찬영과 사모 김광명은 한국 해방 후 제 1 호 선교사로 1951 년 장로회신학교를 마친 후, 1952 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장로교가 아직 나누어지기 전인 6·25 동란이 끝난 지 2 년 후인 1955 년 4 월 24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956 년 6 월 4 일(최찬영 1995:362) 태국에 도착한다. 한인교회 초기에 직접 목회를 하면서 북미주선교동원에 관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1 호 선교사로 파송되어 태국으로 간 최찬영은 1992 년 2 월 1 일 홍콩에서 은퇴(1995:362) 후에 미국에 귀국하여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교육사역(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를 시작)에 참여하여 이민교회 개척과 부흥 시기에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기여하게 된다.

요약

본 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으로 선교역사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선교동원에 관계된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선교동원의 서양 지도자들로는 윌리엄 캐리와 존 모트의 기여를 살펴보았고, 한국교회의 선교동원가들로서는 김활란, 조동진, 김의환, 김준곤 등의 영향이 컸음을 살펴보았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은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원, 정상우 등 다섯 명의 목사들이 개척한 북미주 초기 한인교회들은 선교교회로서 출발을 한 역사적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출발을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의 현황을 기술할 것이다.

제 2 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관한 현장 연구

본 연구의 제 2 부에서는 현장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론, 그리고 현장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제 5 장에서는 북미주한인교회 동원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 5 장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 현황 분석과 평가

본 장은 현장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론, 그리고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현장조사의 배경

교회가 선교에 참여를 시작하게 될 때는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부적인 선교 에너지가 활동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교회의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교회 안에 잠재돼있는 선교 에너지는 교회가 선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동원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북미주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하여는 우선 북미주 한인교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교 에너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선교동원 개혁에 실질적인 첫 준비이다. 그동안 선교동원 재생산력이라는 분야는 북미주한인교회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어본 사례가 없었다. 본 현장 연구는 교회들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동원력을 실제로 수치화하여 교회들의 선교동원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현장조사의 배경이다.

미국 50 개 주에 규모는 다르지만 4,400 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모든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동원력을 부여받았다는 전제하에 교회 안에 있는 선교동원 재생산력의 실체를 수치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회들이 스스로 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동원을 해야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선교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북미주한인교회들 중에 50 개 교회들을 표본추출하여 선교동원을 시작하며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는 능력인 선교 재생산력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잠재되어 있는지 측정을 통하여 객관적 수치화를 함으로

북미주한인교회들이 현재 어느 상태에 왔는지를 확인하고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현장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의 목적

현장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 현황을 파악하고 세계선교를 위한 동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선교동원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셋째, 북미주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넷째, 북미주한인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이다.

여섯째, 북미주한인교회들 중 중소형교회들의 선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다.

일곱 번째,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보편화, 기준화하기 위함이다.

교회들 안에 있는 선교동원에 관련된 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동원 운동의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 작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내의 50 개 주에 흩어져 있는 4,400 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보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중소형교회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운동에 주체 그룹이 되고 새로운 선교동원 운동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장조사의 방법론

본 현장조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 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것이었고 질적 조사는 인터뷰를 통한 것이었다. 설문은 미국 내의 한인교회 50 개

교회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설문방법은 2016 년 4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직접 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통하여서 하기도 하였다(설문지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북미주한인교회의 동원현황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현장조사는 선교자료와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침체되어가는 선교동원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며 시대에 맞도록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동원을 위한 대형선교집회 구조로는 북미주 한인교회들을 선교에 동원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실제로 호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미주한인교회들 중 성도수가 적은 중소형교회들이 선교동원에 실제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성도 수가 적은 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들이 선교집회나 파송을 위한 선교공동체 구성과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구조는 현장 선교사들의 절대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선교동원전략의 문제에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기독교가 변혁적으로 문화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크래프트 2006:552). 한국선교계가 단순한 숫자 증가보다는 문화의 흐름과 변혁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또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은 북미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동원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선교동원을 하는 목적은 선교의 범위는 “교회가 당연히 글로벌로 가야 하는 것과 보편 구원론”(뉴비긴 2012:146)에 의해 글로벌로 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 목표의 완수를 위한 선교동원대상은 이제 북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현장조사는 현재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의 현재 능력과 수준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현장의 선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를 알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북미주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도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나눔과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이 현장조사의 결과는 사용되어질 것이다.

선교동원을 위한 개교회별 선교동원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부분으로 목회자의 선교 지도력, 성도들의 선교 공감력, 교회 구조 안에 내재되어있는 선교동원력, 교회가 선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교 재생산력 그리고 교회의 선교재정 동원능력을 조사하였다. 다섯 가지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선교지도력

선교지도력이란,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선, 정상우의 지도력을 통해 다음 5 가지 분야에 대한 답을 평가하였다. 목회 계획에 선교가 우선순위 몇 번째인가? 1 년에 선교설교를 몇 번 하는가? 선교동원을 위해서 선교 비전을 세웠는가? 선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1 년에 얼마나 전달하는가? 선교지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얼마나 연결되어있는가? 5 가지의 질문을 통해 목회자의 선교지도력을 측정하였다.

선교지도력은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한다. 진 A 게츠(Gene A. Getz)는 교회를 평가할 때 지도자의 성경적 자질, 바울이 말한 지도자들의 특성들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도자가 성숙한 수준만큼 교회가 성숙한다고 말한다(2003:39). 게츠의 지도자의 영향력에 의해 선교지도력을 이해 한다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열심, 지식, 정보력, 현장성, 선교사와의 네트워크, 선교비전, 선교설교, 선교에 헌신 된 모범적인 삶을 의미한다.

교회의 선교능력과 관심도는 목회자의 선교에 대한 수준을 넘지 못한다. 목회자가 선교의 열정이 있으면 교회는 같은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된다. **전석재는 찰스 벤 엔겐의 저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설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리더십은 하나의 연합적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뜻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그들이 선교하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동참하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는 연합된 사건이다(2014:289).

목회자가 선교적 리더쉽을 발휘하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려면 조엘리스(Joe S. Ellis)가 말하는 다음 러더쉽의 3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이 교회안에서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 첫째,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시키고 그것을 위해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To realize their common purpose and keep their attention focused on it). 둘째, 생각을 분명히 하고 행동을 지혜롭게 하고 목표를 위해 자원을 모을 것(To think clearly, act intelligently, and muster resourcesto achive their purpose). 셋째, 팀으로 함께 일하게 할 것(to work as a team) (1982:141)을 말한다. 따라서 선교지도력을 계속 개발하여 교회가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선교공감력

선교공감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 5 가지를 말한다. 목회를 시작한 후 교회에서 처음 현장 선교사가 방문하여 선교보고, 도전을 한 것이 목회를 한 지 얼마후인가? 현장 선교사가 1 년에 평균 몇 명이 방문하여 선교에 대하여 나누는가? 성도들을 선교에 동원 할 때 현장 선교사와 상의하여 팀워크로 하는가? 선교사가 간증을 나눌 때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가? 교회는 자체적으로 선교부흥회, 선교세미나, 선교주일을 1 년에 몇 번 하는가? 이다. 이런 실제적인 질문들의 성경적 기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요 3:16)에 근거를 두고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와 도전은 인간이 느끼는 필요와 동정심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공감력은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설교, 선교보고, 선교초청 등 현지 선교 소식을 전할 때 성도들이 직접 들으며 선교에 대한 소망과 의욕, 관심과 공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선교에 대한 도전과 동기부여가 되고 성도들 마음에 공감이 생겨서 선교에 헌신을 하도록 하는 결정력을 도우는 것을 말한다. 선교공감력이란 선교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의 열정, 선교지의 필요,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등을 성도들이 그대로 전달받아 선교에 대한 공감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선교공감력의 실제적인 결과는 선교에 대하여 들은 성도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이 있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선교공감력은 개인이 느끼는 선교에 대한 도전과 동의, 행함으로 출발하여 교회 전체가 가지게 되는 능력을 말한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는 것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승현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록스버그(Alen J. Roxburgh)와 보렌(M Scott Boren)의 선교적 교회로 변화하는 5 단계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인식(Awareness), 분별(Understanding), 평가(Evaluation), 실험(Experimentation) 그리고 헌신(Commitment)이라고 말하였다(정승현 2015:65). 앞의 5 가지 단계는 선교공감력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가지의 단계가 다음 단계로 갈 때에는 이미 현 단계가 함께 공유됨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동원력

선교동원력에 대한 5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교회는 단기선교가 성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교회에서 1 년에 단기선교팀들을 성도의 몇 퍼센트를 파송하고 있는가? 교회 성도 중에 한 번이라도 단기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성도 중 모두 몇 퍼센트인가? 단기선교팀을 모집할 때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다음팀 모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음팀 구성을 도와주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먼저 다녀온 단기 선교팀원들 중 다시 새로운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단기선교를 다시 가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분명한 것은 단기선교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선교동원력은 교회와 선교현장이 만나게 하는 능력, 성도가 선교지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회 안에 잠재돼있거나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능력을 말한다. 선교동원력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공감력을 얻은 후 자신의 삶의 장소를 벗어나는 변화를 통해 선교현장에 들어가 선교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면 단기선교이다. 단기선교는 교회가 성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동원력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선교동원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성도가 단기선교

또는 장기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지에 합류하기 위하여 선교지를 갈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능력을 선교동원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선교의 특성 중 하나가 선교적 실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앨런 록스버러(Alan J. Roxburgh)는 교회에는 항상 실험하기를 원하는 활기에 넘치는 사람들, 초기 수용자들(Early Adopters)은 대개 교회의 성도 중 10-15 퍼센트가 있다고 한다(록스버러 & 보렌 2014:249). 이 선교지와 연결되는 변화를 시작하여 성도 중 20 퍼센트가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앨런 록스버러는 말한다(록스버러 & 보렌 2014:289). 선교동원력은 선교적 모험과 실험으로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선교동원 초기에 참여한 초기 수용자 그룹이 교회 안에 선교동원력을 만들어내는 핵심그룹이 된다. 이 그룹이 아직 단기선교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을 선교지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과정과 능력을 선교동원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재생산력

선교재생산에 관한 질문은 다음 5 가지로 하였다. 단기선교를 다녀와 장기선교사로 헌신하여 파송된 선교사로 있는가? 전체 성도들 중 선교훈련 프로그램에 그동안 참여한 총인원은 전체인원 중 몇 퍼센트가 되는가? 현장 선교사의 설교 또는 강의를 듣고 성도들이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한 경우가 있는가? 선교훈련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성도들이 훈련 후에 단기선교로 연결되어 선교지 방문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교회가 본 교회 성도 중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될 때 선교비 후원은 얼마나 하는가?

선교재생산력은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거나 교회의 선교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교회의 선교가 단회성으로 지속적이지 못하는 현상은 교회 안에 선교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선교재생산력에는 선교교육도 한 분야이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또는 선교지방문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선교재생산력이 증가가 될 수 있다. 또한 단기선교를 참여했던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 활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는 것이 선교재생산력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선교지도력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목회자의 선교재생산과 선교사역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계속하여 비전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인 재생산에 초점을 두었다. 제자훈련 참여자의 성장도 당연한 목적이었지만 그 개인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전도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성장을 위해 교인 재생산의 시스템이었다. 이후천은 다음과 같이 교회의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교적인 특징을 말한다. “구조에 있어서 단순 체계에서 복잡한 체계로 발전, 철저한 교인 재생산구조, 평신도 동력화, 기존교회 내 구조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 형성의 기회제공, 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도 마인드의 고취, 교파초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형성, 관심 및 참여교회들의 네트워크 화, 프로그램의 상품화(전도프로그램 컨설팅 사업화)이다”(2008:143) 라고 하였다.

이 분석은 교회의 제자훈련에 관한 것이지만 선교재생산이라는 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 전도를 통한 교인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선교도 교회 안에 선교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선교훈련이나 교육 또는 선교지 현장의 프로그램도 선교재생산의 구조에 맞추어져야 한다.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정착이 되면 교회 안에 재생산구조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교도 교회 안에 구조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선교를 수행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때 선교재생산 구조가 구성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적교회와 선교동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선교재생산구조가 안정되게 구성되어있어야 한다.

선교재생산 구조는 외부적인 선교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도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선교의 특성상 선교지와의 연결, 선교단체와의 연결, 타 교회와의 연결, 전문인들과의 연결 등 외부와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야 재생산의 구조가 될 수 있다. 선교재생산의 구조에서 대형교회들은 외부의 네트워크가 필요 없이도 교회자체내에 선교 인력과 자원들로 인하여 외부적 연결이 약해도 선교재생산의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작은 교회들은 서로의 필요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교공동체를 만들어 선교재생산력을 키우고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대부분이 작은 교회의 규모이기에 선교공동체를 만들어 선교재생산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선교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

선교재정헌신력

선교재정헌신력 분야 5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교회예산 중 선교예산은 몇 퍼센트 되는가? 전체 교인 중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1 년 중 교회서 선교 특별 헌금하는 횟수는 몇 번인가? 전체 예산 중 장기 또는 협력선교사 정기후원금은 몇 퍼센트인가? 전체 예산 중 단기선교후원 금액이 선교예산 중 몇 퍼센트인가?

선교재정 헌신력은 교회가 선교에 더욱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 성도들의 재정헌신력을 의미하며 또한 성도들의 선교를 위한 재정헌신을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선교재정은 선교사역 예산과 일반선교비로 구성되어있고 이 예산안에서 장기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선교재정은 성도들의 헌신적인 헌금이 없으면 따로 모으기가 어렵다.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은 교회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보다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적 헌신을 위함이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악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갈 6:10). 돈은 양면의 날 선 검과 같아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재정이 필요한 것은 한 예의 말씀으로“가난한 자를 도와주며”(렘 22:16) 라고 나와 있는데 선교의 한 부분이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재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갈 때, 선교를 할 때 필요한 재정을 성도들이 헌신하여 채우기 위함이다. 근본적으로 재정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로일 뿐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 선교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얼마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재정헌신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재정헌신력은 교회가 선교동원재생산력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된다.

선교동원 재생산력

선교동원재생산력은 위의 5 개 분야를 조합하여 총점으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교회가 선교동원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 수준을 말한다. 설문을 통해 교회들 안에 있는 선교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종합평가 한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동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기준으로 보다 실제적인 선교동원을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하였다.

설문을 통해 본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긍정 평가

현장조사의 설문과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은무 선교사가 설문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현장조사 Sample 이 50 명이지만 북미주 전 지역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본다. 설문결과 그래프가 말해 주는 것은 목회 기간을 빼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각 한인교회들의 문제와 선교에 대한 안목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추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설문결과가 말해 주는 것

설문결과가 말해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두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선교의 재생산을 위한 재정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2.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 전망은 아직도 건전하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작은 교회도 인적인 자원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선교지도력면에서는 대형교회들의 경우 담임 목회자의 선교비전 여부에 따라 교회가 선교생동력(선교 에너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연령별로 볼 때 젊은 층의 담임 목회자들이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며 동원력이나 지원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5. 목회자들이 목회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선교의 공감대는 비슷하지만, 선교의 구체적인 동원과 참여도는 목회의 초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목회자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은 평신도들 보다 비교적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참여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실제 참여도는 약한 것으로 본다.

설문결과를 통해 본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특징

설문결과를 통해 발견한 미주한인교회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미주 한인 대형교회 역시 목회자가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2. 중소형교회는 교회 내의 선교 에너지가 대형교회들에 비교할 때 부족하지만 선교의 공감력은 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 대형교회나 중소형교회의 담임목사의 선교역량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4. 안주형 교회가 되느냐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느냐는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소형교회의 가능성과 방향 제시

설문조사 결과는 소형교회의 가능성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방향 제시를 필요로 한다.

1. 중소형교회는 선교의 비전도 있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지만, 교회 자체의 생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선교 참여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2. 재정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헌신 된 일꾼들이 훈련되어 파송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타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이제는 더 이상 대형교회의 선교모델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중소형교회가 가진 가능성과 자원의 개발과 확산의 문제를 선교포럼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재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나라 발전에 부름받은 교회가 되어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교회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타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6.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7. 믿음 선교(Faith Mission)의 원리(비밀)를 배우고 터득해서 작은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8. 중소형교회가 선교적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격려가 필요하다.

설문을 통해 본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구조개선 분야

설문을 통해 본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선교 사명(Commission): 목회자들이 선교 사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교회 안의 선교 사명 부재의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이유는 목회자들이 주일설교에 선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사명감을 느끼기에 부족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2. 소통(Communication): 목회자와 선교사 간의 긴밀한 소통이 선교지도력과 공감력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선교사와 성도들의 소통, 교회와 교회와의 소통 등이 선교동원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선교동원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교사와 연결(Connectivity): 현장 선교사와 연결 없는 것이 선교동원 운동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선교를 위한 연결의 요소들은 교회와 선교사의 연결, 목사와 선교사의 연결, 선교사와 전문인 성도와의 연결, 교회와 교회 간의 연결, 선교지와 성도들의 직접적인 연결 등이 선교동원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4. 선교의 지속성(Continuity): 지속성 없는 선교동원 구조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개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현장연결의 예가 단기선교이다. 그러나 단기선교가 단회성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단기선교 후 교회가 선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나타났다.

5. 선교의 집중성(Concentration): 집중성이 없는 선교동원 구조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서 선교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선교공동체(Community): 선교공동체가 없는 선교동원 구조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특징은 개교회주의 중심이다. 대형교회들은 자체적인 능력이 있기에 동원에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중소형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동원력이 약하지만 서로 연합으로 하든지 공동으로 하든지 하는 구조가 없는 것이 나타났다.

7. 선교에 헌신(Commitment): 장기적 헌신이 없는 단회성, 일회성 선교동원의 문제점을 보게 되었다. 이 부분은 목회자의 선교전략이 문제와 연결되었다. 또한 단기선교의 활성화가 준 부정적 측면도 있다. 단기선교를 통해 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8. 선교사와 협력(Co-work): 선교사와 목회자의 동원팀워크 구조가 없는 선교운동의 문제점이 있다. 선교동원은 어느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사역이 아니라 보내는 교회와 파송 선교사를 받는 구조에 긴밀한 팀워크 구조가 없음을 보았다.

9. 선교공감력(Common-Mission Perspective): 선교의 필요성, 현지사역에 대한 공통된 이해, 선교사가 보는 현지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공감이 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대한 공감을 성도들에게 일으키려면 더

많이 더 자주 선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하는데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수가 매우 저조함을 통하여 이 부분이 약함을 확인하였다.

10. 선교의 부르심(Calling): 부르심에 대한 우선순위와 불순종의 이민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있다. 북미주한인교회 성도들의 이민목적이 보다 개선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온 것이 우선이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온 성도가 없다. 따라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과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사명의 도전을 받는 것이 힘들고 교회에서 선교집회를 하거나 선교부흥회를 하지 않기에 사명에 대한 헌신이 적다.

이상과 같이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북미주한인교회의 목회현장의 문제들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조사를 통하여 관찰하고 정리를 하였다.

인터뷰를 통한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에 관한 질적 조사

이제부터는 현재 이민 목회를 직접하고 있는 담임목회들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지도력, 선교공감력, 선교동원력, 선교재생산력, 선교재정헌신력 증대를 기반으로 후에 선교동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인터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주 중소형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선교 참여가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둘째,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셋째,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제안하는 선교동원 가능 그룹은 누구인가? 넷째, 현장 선교사들이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선교 지도력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북미주 중소형한인교회의 목회자들 선교 참여가 어려운 점

중소형교회 목회자 소그룹 2 개 그룹을 결성하여 2017 년도 1 월 중 인터뷰하여 현장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2 개 그룹의 목회자들은 모두가 선교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한 중소형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동원 운동의 장애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목회자들은 80 퍼센트 이상이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했다. 가장 힘든 문제는 그들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의 의미는 교회가 생존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재정적으로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형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었다. 인터뷰 중에 목회자들이 한 말 중에 “선교는 사치이다”(K. 2016:4 월 15 일 개인적인 인터뷰)라는 말이 충격적인 현실로 와 닿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가주에 있는 중소형교회의 문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생존의 문제이다. 교회의 자립과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가정의 생계가 절실한 문제이다.

2.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선교가 아니라 성장이다.

3. 선교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4. 성도들은 이민 사회에서 생존하는 것과 십일조를 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5. 남가주 한인침례교회 100 개 중 20 퍼센트는 자체건물을 가지고 있고, 40 퍼센트는 미국교회를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40 퍼센트는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6. 성도 수 50 명 이상 교회는 한인교회의 규모상 큰 교회라고 볼 수 있다.

7.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비와 은퇴연금이 없다는 것이다.

8. 한인침례교회들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에 15 년 전에 25 개 교회를 개척 하였지만 2017 년 1 월 현재 2 개 교회만 유지되고 있다.

9. 사모들이 거의 다 일하고 목사들은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 많다.

10. 선교가 목회에서 우선순위에 없다.

11. 목회자가 선교지를 방문 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이 없다.

12. 중소형교회들이 선교공동체를 만들어 선교를 함께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재정자립이 안 된 중소형교회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와 현실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하여 플로리다의 인터넷선교교회의 김순식은 다음과 같이 그 실제 문제를 말한다.

>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설교 내용 중에 헌금에 대한 유도, 내지 강요로 이어진다면 초심자들은 시험에 빠져 어렵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시험에 들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 사명 가운데,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례비, 기타 운영비로 시달리는 교회재정 때문에 선교는 감히 실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2016:국제선교신문 2월 1일 기사).

김순식의 의견은 실제적으로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보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8 년의 조사이지만 미주중앙일보 기사는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담임목회자 연봉을 교회 규모별로 세분화하면 교인 수 1,000 명 이상의 대형교회 담임목회자 연봉은 8 만 6,566 달러 100 명 이상 1,000 명 미만의 중형교회는 5 만 3,511 달러 교인 수 30 명~100 명 사이(정기적으로 연봉이 지급되는 교회만)는 3 만 7,416 달러로 집계됐다"(오수연 2008:미주중앙일보 2 월 20 일 기사).

<표 1>

한인목회자 연봉현황
(2008:미주중앙일보 2월 20일 기사)

교회규모 (괄호안은 교인수)	한인교회 담임목사	미국교회 담임목사
대형교회(1000명이상)	8만 6,566달러	12만 9,196달러
중형교회(100-1000명)	5만 3,511달러	8만 9,316달러
소형교회(30-100명 이하)	3만 7,416달러	4만 9,177달러

당시 2008 년도 인구통계국 조사 통계에서 미국의 중산층 평균소득이 $57,677 로 발표가 되었다(Department of Numbers 2016:"US Household Income). 2016 년의 중산층 소득은 $57,617 로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 기준을 보면 한인목회자들이 중소형교회 목회를 하면서 받는 사례가 평균 $37,416 인데 이런 소득이면 미국의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계층이 된다. 2 그룹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중소형교회가 단독으로 선교를 수행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생활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중소형교회들의 개교회를 통한 선교동원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단독으로 선교를 하지는 못해도 다른 교회들과 공동으로 선교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사에 부정적인 면들

소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본 중소형교회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가 재정보고 하지 않는다.

2. 선교사 자주 오면 부담이 된다.

3. 선교비를 보낼 때 목회자들 자신들은 선교비 수금사원 역할 정도로 스스로 생각이 된다.

4.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내면 다른 기존의 내야 할 헌금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교회재정에 차질이 생긴다.

5.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 동원은 교회의 인재방출이라는 개념이 목회자들에게 있다.

6. 작은 교회의 재정 형평성 작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추천하는 선교동원 가능 그룹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교회 안에 선교동원이 가능한 그룹은 다음과 같다.

1. 무임, 혹은 은퇴목회자그룹.

2. 은퇴 장로 그룹.

3. 권사 그룹.

4. 작은 교회의 평신도전문인들이다.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은퇴 전의 평신도들을 내보기를 싫어한다. 그 이유는 교인수가 적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멤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따라서 교회 운영에 비중심적인

그룹들을 추천하였다. 교회의 중요한 평신도지도자 일꾼들을 선교에 내보내면 교회에 타격을 준다는 개념이 강함을 보았다.

현장 선교사들의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지도력 개발

본 현장 선교사 인터뷰는 SNS 장점을 활용하여 현장에 사역하는 선교사 5 명을 인터뷰하였다. 태국 김정웅, 송용자 선교사, 인도네시아 안성원, 김병선 선교사, 필리핀 앤드류 김 선교사를 그룹을 만들어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지도력 개발에 대한 현장 선교사가 보는 북미주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대담을 하였다. 대화 중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선교는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2. 목회자는 선교지도력을 개발해야 하며 그때부터 중소형교회도 강소형선교교회로 성장한다.

3. 선교사는 분명 목회자와 선교동원에서 동반자이다.

4. 선교사는 건강한 선교지를 만들어야 한다.

5. 목회자는 선교지를 방문하여 유니버설처치의 현실을 보고 주님의 대위임령을 가슴으로 받아야 한다.

6. 작은 교회 성도들도 선교할 수 있다. 선교후원의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가 중요하다.

7. 중소형교회가 선교에 동원되어야 한국선교의 미래가 있다.

8. 선교동원이 이제는 한국선교계의 중요한 주제와 이슈로 인정되어야 한다.

9. 선교학자들이나 현장 선교사들은 이제 지역교회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에 문을 열고 나가도록 집중적인 연결, 교육, 세미나, 현장방문을 하도록 투자해야 한다.

10. 선교의 미래를 오늘의 현상을 통해 미리 진단하며 예견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5 년-10 년 안에 선교사 수가 증가보다는 감소의 형태로 갈 것으로 볼 때 최소한의 현상유지의 발판부터 신중히 만들어야 한다.

요약

본 장에서는 첫째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재생산력을 측정하여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동원재생산력을 구성하는 5 가지 분야를 측정하여 총점을 내어 분석을 하였다. 현장조사의 측정목표는 두 가지였다. 샘플 50 개 교회들의 선교동원에 대한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특징들이 나타내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느 그룹을 선교동원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전략적인 면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북미주지역에 진행되는 선교동원운동에 대한 구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개혁, 선교동원을 위해 세우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은 선교에 강한 선교교회 들을 만들기 위하여 신약시대의 원심적선교와 같이 찾아가는 선교, 흩어져 가는 선교운동구조로 변환해야 하는 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게 되었다.

제 3 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전략

본 제 3 부에서는 제 1 부에서 다룬 선교동원에 관한 문헌연구와 제 2 부에서 다룬 현장 연구를 근거로 하여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제 6 장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기록하도록 하겠다.

제 6 장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제안

제 5 장에서 필자는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 현황을 분석 평가하였다. 본장 제 6 장에서는 제 1 부 문헌연구, 곧 선교동원의 성경적 관점, 선교학적 관점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발견한 통찰과, 제 2 부 현장조사, 곧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현황 조사에서 발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 전략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중소형교회 선교동원재생산력을 키우라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동원전략에서 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개교회별 선교재생산력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북미주 한인교회의 중소형교회의 수는 전체교회수위 평균 3 분의 2 이상이 된다.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의 근간은 중소형교회들이 되어야 앞으로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이 선교동원의 대상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교회들을 선호한다. 일단 재정과 조직력, 인력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형교회들 위주로 세계선교를 수행하기에는 우선 그 교회들의 수가 제한되어있고 전체적인 자원의 필요를 볼 때는 대형교회들의 적은 수로는 필요를 채울 수가 없다. 주일예배 출석 교인이 작은 교회들 일지라도 개교회별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차적으로 지역별 개교회들 안에 선교동원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키우는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현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동원의 패러다임 시대를 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선교역사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대를 따라 교회가 고착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여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건국 2007:51).

현장 선교사들이 북미주한인교회들 선교공동체 구성과 선교사 부흥단을 구성할 것

현재 북미주와 한국에서 파송된 현장 선교사들은 지난 40 여 년간 북미주한인교회들과도 교류를 하며 동반성장을 함께 해왔다.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북미주지역 방문을 통해 한인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도전과 후원을 모집하였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북미주한인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사역들을 위해 물적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교를 후원하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러한 필요를 느끼기는 하지만 북미주 한인교회들 안에 선교동원력에 있어서 선교사를 동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는 아직 아니다. 따라서 본연구를 통한 관찰에서는 현장 선교사들의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부흥회를 인도할 선교사 부흥 단 구성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스스로 성도들에게 선교를 도전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 본인의 선교사역을 위한 모금을 위해 섬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를 도전할 수 있는 선임선교사들 중 최소한 300 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선발하여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 북미주 전 지역의 한인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집회를 인도하도록 한다. 선교집회는 지역교회들이 5-10 개 교회들이 같은 교단 또는 초교파로 선교공동체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선교부흥회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 부흥단이 현재는 절대로 필요하다. 선교사 부흥단 은 전 미주에 결성되는 한인교회 선교공동체(5-10 교회)들을 찾아가는 선교대회 형식으로 사례를 받지 않고 본인의 사역보다는 성도들에게 선교 공감력이 증대되고 목회자들의 선교지도력이 개발되도록 강의와 부흥회를 인도한다. 선교부흥단은 선교계의 각 사역과 지역별 선교사들로 구성하여 학문적인 바탕과 현장사역의 경험 그리고 북미주한인교회의 상황과 선교지 상황을 잘 아는 선교사들이

강사로 선정되어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 30 년의 북미주 한인교회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영향력 있는 일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 선교사들 중 북미주한인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동원을 일으킬 수 있는 선교사 부흥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목회자들의 선교지도력 개발을 위한 목회자 선교학교를 열 것

스캇 선퀴스트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는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상관없이, 이류 또는 열등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선교는 언제나 공동의 결속 안에서 이루어진다”(2015:698)고 강조하며 모든 교회의 동반자 역할을 말하였다. 따라서 소형교회들은 선교적 동반자로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우며 공동으로 선교동원에 함께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선교동원의 구조는 중소형교회들의 동반자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을 아래와 같이 한다.

첫째, 중소형교회들이 지역별로 선교공동체를 구성하여 매년 2 회 정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연합선교훈련학교를 한다. 둘째, 전문인선교사 공동발굴을 위한 목회자들의 선교 비전과 전략을 나누고 키우기 위하여 선교공동체에 속한 중소형교회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학교 만든다. 셋째, 목회자 선교학교를 통하여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운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개혁 운동에 주체로서 적극적인 선교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북미주 전 지역에 새로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이 확장되어가도록 한다.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시작은 목회자들의 선교지도력을 개발하는 일이 우선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의 선교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훈련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는 *효과적인 리더쉽개발 이렇게 하라*에서 세 가지 훈련유형들을 언급했다. 공식 유형, 무형식 유형, 비공식 유형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2009:37, 281).

또 다른 문제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회자들의 선교지도력이 부족할 때 생기는 중복투자의 문제를 박기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선교지에 대한 정확한 **사전 지식** 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을 펼침으로 한인교회는 인적 물적 중복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투자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선교사들의 재정과 시간이 비효과적인 선교사역에 낭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2001:68). 따라서 목회자의 선교지도력 개발은 북미주 한인선교 선교동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별 전문인 선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전문인선교사 동원은 두 가지 구조와 네트워크를 준비하여 효과적인 동원을 해야 한다. 하나는 전문인 성도들의 개인적 인맥을 통한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네트워크 동원구조이다. 이 동원구조는 같은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공동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사역을 개발하여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다. 같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전문 사역별 전문인들을 연결하여 지역별 모임을 한다.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교와 연결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연결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통하여 실제로 선교지와 연결이 되고 헌신자들이 전문인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전문인선교사 동원 운동은 각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은퇴한 목사들, 평신도전문인들로 장로들, 권사들 세 그룹을 동원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둘째로는 평신도전문인들의 자비량 선교를 더욱 장려해야 한다. 남후수는 현대 선교에서 모라비안의 자비량 선교의 예를 들었다(2008:103). 남후수의 *미래의 세계선교전략*은 교단 선교부의 선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다룬 문헌으로 교단의 선교정책과 방침을 이해하며 평신도전문인 자비량 선교를 진행하는데 교단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한국선교사들의 사역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인 선교전략(Professional Mission Strategy)'들에 대해 김태연은 그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실제적인 전문인 선교사의 선교지 현장과 사역사례를 소개한다(2010:176).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높이기 협력사역을 시도하라

선교동원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보다는 중소형교회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형교회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 볼 때는

작은 규모이지만 북미주한인교회의 교계 전체에서 볼 때는 다수이며 이들이 모여서 선교의 동반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선교동원의 주 대상 그룹이 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동원대상 그룹이 된다. 그러나 북미주에서 교회들이 개척이 될 때 폴 히버트의 신생교회들의 독립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선교원칙, 자전, 자립, 자치를 교회 개척의 원칙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1996:276).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개척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만 이런 기초를 가지고 시작하면 다른 교회들과 선교 재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에서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의 원심적인 선교운동을 할 것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 구조의 개혁은 원심적 선교운동 구조로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제는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찾아가는 선교대회, 흩어지는 선교대회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중소형교회들의 선교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연합적인 소규모 선교대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소규모 선교대회가 각 지역마다 정기적으로 자주 열리게 되면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매우 실제적인 선교성장이 있게 될 수 있다. 원심적 선교대회를 다른 표현으로 찾아가는 선교대회, 흩어지는 선교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심적인 선교대회를 할 때의 장점은 대회운영경비가 적게 들고 참여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교에 대한 강의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교사 강사들과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선교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북미주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운동은 원심적 선교운동 구조를 만들고 이 운동을 통하여 중소형교회들을 강소형선교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강소형선교교회는 교회성장학에 나타나지 않는 선교 지향적 중소형교회를 말한다.

선교공동체 연합 전문인 단기선교운동을 할 것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전문인 단기선교운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저 피터슨(Roger Peterson)과 고든 애스흐리만(Gordon Aeschliman) 그리고 웨인 스니드(R.

Wayne Sneed)는 단기선교의 성경적 요소를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평범한 성도들의 전략(Average-people Strategy)”이고, 둘째로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ver)의 일이고, 셋째로 하나님이 단기선교를 통하여 개인의 은사발견(Gift discovery), 훈련(Training),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 마지막 시대의 세계관의 확대(Worldview Extended)가 되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하여 열정이 생긴다”(2003:236)고 말한다. 그러므로 중소형교회들이 단기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선교사 부흥단을 구성하여 매년 50 개 주를 조직적으로 방문하여 중소형교회들을 위한 선교부흥회를 할 때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공감력이 생겨서 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단기선교이므로 전문인 단기선교운동이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 선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전문인 단기선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전문인 단기선교가 어느 지역에 어느 때 필요한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셋째, 중소형교회 선교공동체의 연합전문인 단기선교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단기선교팀 인원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에 선교공동체 교회들이 함께 전문인 단기선교팀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는 선교훈련도 연합으로 할 수 있고 재정과 사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기에 매우 효과적인 선교동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인 단기선교를 중점으로 중소형교회들이 공동으로 팀을 파송함으로써 교회 안에 선교동원력과 선교 재생산력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선교공동체의 연합 전문인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동원 운동을 전개한다.

인터넷네트워크 구축 통한 전문인 선교사 동원 시스템 구축할 것

홍완표는 21 세기의 특징인 정보화 시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보화 시대의 세계화와 맞물리는 각 분야의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설명한다(2010:102). 선교동원도 이제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선교에서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공동의 관심사, 둘째는 정규적인 커뮤니케이션, 셋째는 실제 함께 일하는 것,

넷째는 함께 공유되는 비전이 필요하다(Butler 2006:35). 미국의 경우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 정보를 공유한다. 그 실례를 포코크는 다음과 같이 실례를 말한다. 1983 년도에 시작된 Global Mapping International 은 세계선교지도와 통계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교 정보를 나눈다. 1984 년도에 시작된 미국의 단기선교 전문단체인 STEM International 은 단기선교의 통계와 정보들을 나누는 전문단체이다(포코크 & 리넨 & 매콘넬 2008:363).

따라서 북미주한인교회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선교동원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첫째, 북미주한인교들이 인터넷상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나눌 수 있으므로 초교파로 선교동원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북미주한인교회들은 선교동원 대상을 전문인선교사로 집중하여 현장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인을 파송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한다. 셋째, 현장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사역을 개발할 때 북미주한인교회들 안에 있는 전문인들과 선교 파트너십으로 사역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형선교대회로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높이라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 운동은 지난 30 년간 한곳으로 모이는 대형선교대회에 의해 선교운동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교회들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한곳에 모이는 대형선교운동에서 실제로 선교동원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선교동원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현재 대형선교집회 위주로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력을 높여주며 선교동원을 끌어낼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다. 선교대회와 선교동원 운동은 차이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 특히 대회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철학에 의하여 방향과 목적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예는 선교운동 역사에서 고찰한 윌리엄 케리나 존 모트의 실제적인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해서는 대형선교집회로는 더 이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그 이유는 대형선교집회에 북미주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소형 지역교회들의 참여가 어렵고 선교동원을 위한 직접적인 도전을 주어 선교 재생산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중소형교회들을 위한 작은 선교대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며 전국적으로 매년 개최해야 한다.

적정기술 훈련학교를 세울 것

전문성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전문인선교사로 지원할 경우 현장에 필요하고 맞는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적정기술의 예로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솔라, 교육, 우물, 정수,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훈련과정이다. 이때의 특정한 대상 그룹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한 건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인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과정 중에 본인의 관심 지역인 곳에 단기선교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선교지의 현실을 배우게 하고 또한 현지선교사를 만나 사역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운동을 개혁할 것

선교운동의 개혁의 시작은 위기의식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정체성을 재정립하기를 제안한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30 년 전에 세워진 선교운동의 방향, 선교대회의 운영과 목적은 북미주한인교회의 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기에 어져 있기에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와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면이 있다. 선교는 늘 발전한다. 하나님의 선교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윌버트 R. 쉥크는 선교운동에 있어서 정체성의 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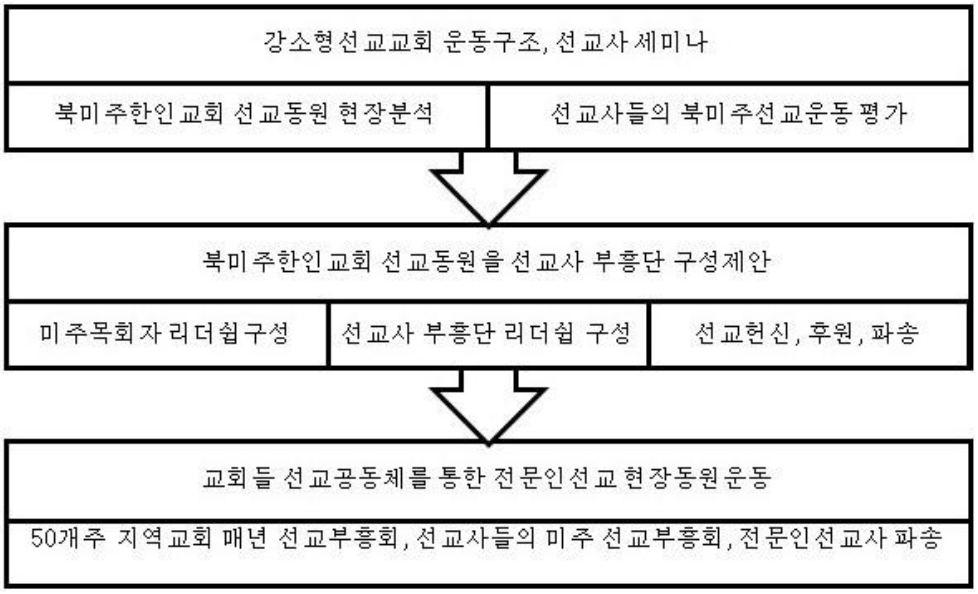
> 정체성의 위기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한 신호일 수 있다. (1) 선교기관이 사역하라고 위임받은 기관이 사역하라고 위임받은 곳의 사정은 지속적으로 바뀌었지만 선교협의회는 새 요구들에 순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단체의 지속적인 존속은 목적을 이루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 달려 있다. 이 정체의 위기는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여 왔던 선교협의회를 구조하는 경종으로 쓰였는지도 모른다. (2) 기관이 세워진 목적이 이루어졌다. 기관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고 없어져야 했다(위기는 한 단계의 봉사에서 다른 차원으로서의 통과의례의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위험한 순간이지만 또한 희망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이는 상장과 조정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가리킨다). (1999:284)

현재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의 정체성의 위기는 선교대회의 구조가 대형교회 중심, 구심적 선교운동구조. 높아져 가는 운영비, 선교대회 등록의 저조가 문제이고 또한 경험 많은 선임선교사들이 강사로 설 수 없는 구조, 현장의 선교사들이 높은 비용으로 참가할 수 없는 구조 등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의 개혁과 혁신이 중소형교회 선교동원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할 때가 되었으므로 개혁을 제안한다.

전국적 차원에서의 강소형선교교회 연합운동 네트워크 구축할 것

강소형선교교회 연합운동을 위해서 각 교회들마다 개교회별로 다섯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섯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형교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지도력 개발, 둘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공감력 개발, 셋째, 성도들이 선교현장과 연결되는 선교동원력 개발, 넷째, 교회 안에 선교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선교 재생산력 개발, 다섯째, 성도들이 선교를 재정으로 후원하는 선교재정 헌신력 개발이다. 이 다섯 가지 분야가 실제로 실현되는 단계(Performing)가 변화로 연결되어 강소형선교교회로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형교회들이 선교교회 연합운동 교회로 변화되는 Change Dynamics 의 과정과 단계를 다음과 같이 연구와 정리한 것을 통해서 각 지역별, 각 주별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전체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제안한다.



<그림 1>

강소형선교교회 연합운동 네트워크 구조
(김정한 2016:연구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도식화)[2]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높여서 강소형선교교회로 전환하라

이번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의 설문결과를 통해서 파악된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기본구조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북미주한인교회들을 작은 선교공동체를 지역마다 만들어 그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이 교회는 작지만, 선교적으로는 강소형선교교회들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에서는 파트너쉽이 관건이 될수 있다. 필립 버틀러(Philip Butler)는 효과적인파트너십은 공짜가 아니라고 한다(Effective partnership don't come free)(2006:17). 이민교회의 일반정서상 선교를 목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깊은 헌신과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은무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팀 사역의 원리를 다섯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서로를 인정할 것, 둘째는 영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 셋째는 자기의 것으로 선언하지 않는 것, 넷째는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다섯째는 서로가

[2] 본 연구에서 그림 자료 출처의 저자명이 연구자의 이름으로 표기된 것은 연구조사 결과 분석에 의한 자료들을 연구자가 작업한 것에 대한 표시이다.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2006:158-15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신약성서의 에클레시아는 순수한 인격 공동체였다는 인식과 최초의 교회는 그 자체로 제도적인 특징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음(브룬너 2013:30)을 알고 초대교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운동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북미주 한인교회들을 강소형 선교교회들을 만들어 가려면 제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정체성이 없어지고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제도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 강소형교회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북미주선교동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중소형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강한 소형선교교회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운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세대별 특성에 맞는 선교동원을 할 것

선교동원을 함에 있어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선교동원을 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동원, 중년 세대 동원 그리고 노년 세대 동원이 달라야 한다.

차세대

차세대 선교동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동원이다. 따라서 차세대 선교동원을 위해서는 단기선교를 통한 선교동원을 제안한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차세대를 단기선교에 동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의 선교동원에 대한 참여와 역할, 둘째, 차세대 선교사 발굴과 파송, 셋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차세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 선교동원을 위하여 우선 차세대 선교와 한인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한인교회의 목회는 차세대 선교동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차세대 목회는 관리 차원이 아니라 선교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영어목회는 교회건축, 양적 성장보다는 차세대 선교교육, 동원, 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차세대 선교동원에서 특별히 동원할 수 있는 또 하나 그룹이 MK 선교사 자녀들이다. 김삼성은 다음과 같이 그 절박성을 말한다. “한국교회의 선교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실태 가운데 한국선교의 주체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차세대 선교사가 될 MK 들의 선교동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2015:517).

안디옥교회는 타문화와 타 인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교회로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을 통한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이다. 예루살렘교회가 생각지도 않는 부분의 선교를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했다. 한인교회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를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영어목회가 차세대를 교회에 붙잡아두는 차원의 사역이 아니라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목회철학의 전환과 교회 주일학교의 선교교육강화 등 선교에 대한 방법 전환이다. 차세대 목회자들은 다음 세 가지의 목회 패러다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선교지향적 패러다임, 선교자원으로 준비시키는 패러다임, 어릴 때부터 선교의식을 심어주는 패러다임, 그리고 차세대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와 협력 체제를 개발해야 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를 제안한다. 위의 세 가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차세대 단기선교 동원이다.

중년 세대

중년 세대의 선교동원은 선교지 방문경험과 선교사들의 교회방문 선교 도전을 통한 도전과 선교교육을 통한 동원을 제안한다. 북미주한인교회에서 중년 세대는 현실적으로 가장 선교동원이 어려운 세대이다. 이민자 생활의 현실과 교회들의 현실을 볼 때 중년 세대가 선교에 동원되는 것의 기본은 전문인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비량 또는 비즈니스 선교의 구조에 의해 선교사로 파송 받지 않으면 북미주한인교회 현실상 중년 세대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중년 세대에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때는 부모를 따라 미국의 교육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중년 세대의 선교동원은 우선 단기선교에 동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지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앞으로 나갈 선교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현지사정을 미리 조사하며 동역할 선교사가 있다면 미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중년 세대의 선교동원은 단기선교에 집중하는 것과 또한 본인의 전문성이 아니라도 현지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미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제안한다.

노년 세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 노년 세대의 선교동원은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또한 선교가 가능한 세대이므로 노년 세대를 선교에 동원할 것을 제안한다. 최성훈은 성경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의미를 “기쁨과 축복의 상징”,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 “인생의 영적 스승”, “복의 전수자, 매개자”,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신앙유산과 신앙 공동체 전통의 전승자”로 설명한다(2017:120-121). 이민 교회 안에 늘어나는 노인세대는 이민교회 안에 귀중한 영적 자산이며 동시에 선교자원이 된다. 이민 1 세대는 선교동원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 세대들임을 볼 수 있다. 건강과 전문성 그리고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 선교에도 여러 방법으로 동원이 될 수 있다. 선교에 참여는 현지를 직접 갈 수도 있고 또한 본인의 거주지에서 집을 떠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연결될 수 있다. 노인세대의 선교동원 중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직접 훈련하여 파송을 하고 중소형교회들이 공동으로 소액을 헌신하여 모아서 파송하고 본인의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선교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민 1 세대는 고난을 통과한 세대로 강인한 정신력과 믿음이 있는 세대이다. 이들을 동원하는 과제는 교회중심의 친교 생활에서 선교 중심의 생활로 바뀔 수 있는 인식전환과 선교 도전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실버” 또는 “시니어”라는 사회적 호칭이 있지만, 선교적으로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세대를 동원할 때는 이들을 “황금기선교사”라는 호칭으로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동원할 수 있다. 이 노인세대가 선교에 동원이 되면 첫째, 그 교회 안의 노인세대의 친구 네트워크가 선교네트워크 화 될 수 있다. 둘째, 가족이 선교화 될 수 있다. 부모님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경우 자녀들과 가족들은 더욱 진지하게 기도와 선교헌금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본인이 알고 있는 교회 밖의 일반 사회 전문인들 네트워크가 본인의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넷째, 교회 안에 단기선교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본 교회 노인세대인 장로, 권사가 선교지의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보내는 것이 우선권이 될 수 있다. 이에 여러 중소형교회들이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보낼수 있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 노인세대를 동원 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노인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이다. 의료보험과 은퇴 후 받는 연금 등이 노인세대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문화적으로도 이미 다문화 권에서 다인종들의 미국 사회에서 살아왔기에 선교지의 문화적응에도 유연한 사람들이다. 또한 국제 언어인 영어도 익숙한 세대이다. 또한 선교에 참여하거나 선교지로 파송을 하기 전에 철저한 선교훈련을 잘 받게 함으로 현지선교사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보완을 한다면 매우 좋은 선교동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의 조사발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인실 2017:크리스찬 투데이 1 월 24 일 기사). 바로 노인세대 성도들의 인구가 교회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4,421 개의 한인교회를 미주 한인 총인구 172 만 2,840 명(2014 년 인구센서스 기준)에 맞추어 보면 한인 390 명당 한 개꼴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전국한인 인구 중 65 세 이상이 5 년 사이에 10.4 퍼센트에서 13.1 퍼센트로 증가(2015 년 아메리칸 커뮤티니 서베이)되었음을 비추어볼 때 한인교회들 성도들도 고령화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맞춘 교회 프로그램의 시행 등도 새로운 목회전략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인실 2017:크리스찬 투데이 1 월 24 일 기사).

노인세대 인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늘어나는 현상은 새로운 선교동원 대상이며, 이 중에 전문인들이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 세대를 선교동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노년 세대에 대한 호칭을 “황혼기”에서 “황금기세대”라고 호칭을 하여 노년 세대를 선교에 동원 할 것을 제안한다.

교회 규모별 선교동원을 할 것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서 중요한 구조는 모든 교회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선교동원에서 대중화된 선교동원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교회들의 규모와 교단 교파에 상관없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하여 선교동원을 해야 한다.

대형교회의 지역 안에서의 중소형교회와의 협력 선교동원을 할 것

미주한인교회의 선교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개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다. 전문성 있는 선교단체와의 협력보다는 단독 파송, 단독 선교프로젝트 등을 외부와 연결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추세이다. “단절된 선교, 무 협력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선교동원에 있어서는 선교단체 간에, 교회 간에 협력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특징은 개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장을 하면서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면서 교회 자체에서 단독적인 해외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지의 선교프로젝트, 또는 교회 자체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선교훈련이나 선교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협력을 하는 사례들을 보기가 어렵다. 차세대를 선교동원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개교회 중심의 선교 활성화는 오히려 차세대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비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형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선교동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중소형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선교동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중소형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초교파 네트워크와 연대를 할 것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는 중요한 대상이 대형교회가 아니라 중소형교회들이다. 한인 이민사회의 특성상 소수의 대형화된 교회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소형교회들이다. 선교동원의 가능성이 많은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차세대를 더욱 단기선교에 참여시켜야 한다. 교회건축보다 선교건축, 사람 건축의 사명이 한인교회에는 더 중요한 사명이다.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투자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교회건물이건 사람이건 투자가 필요하다. 희생이 요구된다. 경쟁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민신학연구소 오상철은 중소형교회의 통계를 그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현재 이민교회의 평균 주일예배 출석 인원수는 21-25명의 소형교회로 22.3%를 차지하며, 20명 미만의 인원이 출석하는 교회는 12%, 40~80명의 예배 참석 인원인 응답자는 41.3%, 3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출석 인원 80명 이하의 소형교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대형교회의 비율은 이민사회에서도 한국사회와 동일하게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하라 2012:뉴스파워 5월 14일 기사)

21 세기 지구촌 시대의 선교에 있어서 단기선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전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기선교는 차세대들에게 선교를 피부로 경험하며 세계관의 변화를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선교교육과 동시에 선교지를 방문하며 타 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차세대들의 가슴을 열며 선교에 헌신하도록 도움을 준다.

교회건축보다 사람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단기선교이다. 단기선교를 진행하되 보다 전문성 있는 선교훈련과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는 차세대 단기선교를 위하여 선교후원을 늘리고 철저한 계획과 효과적인 훈련과 선교사역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교회 단독적으로 단기선교팀을 모집, 훈련, 파송이 어려우면 선교단체들과 협력 및 연대를 하여 차세대를 단기선교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많은 차세대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선교프로젝트 등은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서 선교동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개척교회(소형교회)-선교사 공동파송 시스템 구축할 것

미국의 기독교잡지 ChurchLeader 2015 월 4 월 29 일 자에서 Kelly Shattuck 은 미국교회 출석률에 대한 자세한 관찰 7 가지 사실들(7 Startling Facts: An Up Close Look at

Church Attendance in America)에서 미국교회들 중 소형교회의 장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가장 작은 교회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관해서 최근에 발표된 그의 새로운 저서 된 *작은 교회의 잠재력을 풀어주기(Releasing the Power of the Smaller church)*의 저자 인 샨 맥뮬렌(Shawn McMullen)은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친밀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이 현대 기술로 대체되는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 가정에서는 친밀한 커뮤니티와 서로 관계를 제공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올슨에 의하면 교인 수가 50명 이하의 교회는 출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사이즈가 작아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25명의 교회가 24명으로 작아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200명으로 성장할 수 있다." (Shattuck 2015: ChurchLeaders 저널-필자 역)

위의 내용은 미국교회들의 이야기이지만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중소형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찰이다. 소형교회 또는 개척교회들은 성도들의 수가 적지만 오히려 성도들 간의 깊은 관계가 형성됨으로 작은 크기이지만 선교동원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기호는 선교에 있어서 협력과 동반자 선교를 강조한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대한 제안이지만 북미주 한인교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해야 하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므로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협력과 동반자 선교를 강조한다(2015:17). 그러므로 중소형교회들이나 개척교회들이 교회성장의 경쟁대상이 아니라 선교동원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각 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재정분담과 기도로 공동파송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전문인선교사를 파송할 경우 각 교회들은 재정부담은 균등히 나누어 지원하고 전문인선교사로 파송 받은 선교사는 은퇴한 경우에는 본인의 은퇴연금과 선교공동체에서 후원하는 선교비를 받으며 파송 받게 될 수 있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성패는 중소형교회들의 개척시기부터 선교를 시작하며 소수의 성도들 중에서도 선교사를 발굴하고 파송할 수 있는 선교공동체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형교회들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시도보다는 다른 중소형교회들과 함께 전문인선교사를 공동파송 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요약

본 장에서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서 중소형교회들이 선교동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소형교회들이 교회의 규모는 작아도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다. 이 운동을 강소형선교교회 연합 동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의 현장 선교사들의 선교사 부흥단을 구성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공동체 운동이 전개되면 선교사로 동원될 대상은 단기선교 중심의 청년세대 그리고 전문인선교사로 은퇴한 노인세대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는 중요한 대상 그룹이 된다. 성서학적 관점에서의 선교동원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선교동원이 가장 첫 부분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선교동원의 중요한 자원인 사람들을 시대와 문화환경을 넘어서 부르시고 계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미주한인교회들이 선교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우선 첫 번째로 선교동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규모와 크기에 관계없이 중소형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선교사로 동원하는 사람들을 특정 세대와 안수받은 목회자만을 중점으로 두지 말고 청년세대에서 은퇴한 세대까지 넓게 보아야 하고 특히 선교지 현실에 필요한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중소형교회들이 선교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선교 역사적인 면으로 살펴볼 때는 북미주한인교회는 이민 사회가 확장되는 1970 년대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개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개척목적을 선교로 처음부터 정하고 목회를 시작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중소형교회들이 개척을 할 때부터 선교를 동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중소형교회들이 선교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선교동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의 선교동원은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있지만 폴 피어슨의 선교동원 이론 중 유럽의 강자의 복음이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에게 확장되는 것이었다는 반성으로 적용할 때 강자의 복음, 즉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동원 능력보다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학적 관점에서도 맞는 방법이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선교학적인 근거에서도 북미주한인교회들 중 중소형선교교회들이 선교동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교학적인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론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의 주체 교회그룹은 대형교회들로부터 중소형교회들로 확대를 해야 한다.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선교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 선교 에너지가 목회자의 선교지도력, 성도들이 느끼는 선교 공감력, 그 교회 안에 선교가 계속 반복하여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는 선교동원력 그리고 선교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선교가 일어나는 선교 재생산력이 있고 그 일로 성도들의 선교재정 헌신력이 생기는 것이었다. 이 다섯 분야의 선교 에너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소형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다섯 가지가 교회가 선교를 동원할 수 있는 기초 내부에너지이다. 그러나 중소형교회가 단독으로 선교동원을 하기에는 조건상 쉽지 않으므로 중소형교회들이 선교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선교를 동원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선교동원의 대상은 그동안 선교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노년 세대까지 확장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선교사로 동원하는 것이 현재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을 위한 선교운동은 대형선교대회의 구조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작은 선교대회를 찾아가며 흩어지는 선교동원 중심의 선교대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북미주의 작은 교회들과 교회들이 적은 주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선교보고와 간증, 도전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들의 선교성장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북미주한인교회에 직접연결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인교회들 안에 선교가 보편화 된 지금은 작은 규모의 흩어진 선교대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아직 선교가 본격화되기 전의 한인교회 초창기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는 이민자들의 삶은 보살피는 목양에 초점을 두었고 선교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대형선교대회가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가는 시대에 새로운 패라다임의 선교구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북미주 한인교회들은 선교적 자원이 준비되어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다. 한도수는 이민교회들의 선교적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땅에 언어와 문화와 자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왜 그들을 선교적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2015:581). 이민교회들의 목회자의 세대교체가 된 30년 후의 지금은 전에 구축되었던 선교운동의 패러다임을 위한 변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제안은 교회들이 현장 선교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초청하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간접경험과 도전을 받고 선교에 여러 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직접 교회방문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제 7 장

결론

본 논문은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관한 것이다. 북미주 한인교회는 21세기 세계선교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영적, 인적 그리고 물질적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미주한인교회들은 세계선교 운동에 있어서 아직 그 역량을 충분히 개발되지도 활용되지도 않고 있다. 1988년 이래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가 주최한 한인세계선교대회(Korea World Mission Conference)를 통하여 2012년 현재 20,000여 명의 선교헌신자들이 나왔지만, 아직 이 선교헌신자들이 선교현장에 동원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이 북미주한인교회의 상황에 맞는 선교동원 전략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라 고 보았다. 선교동원은 세계선교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선교동원 운동이 북미주 한인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라고 믿고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을 위한 선교운동은 대형선교대회의 구조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작고 찾아가며 흩어지는 선교동원 중심의 선교대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북미주의 작은 교회들과 교회들이 적은 주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선교보고와 간증, 도전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들의 선교성장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북미주한인교회에 직접연결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인교회들 안에 선교가 보편화되어진 지금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아직 선교가 본격화되기 전의 한인교회 초창기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는 이민자들의 삶은 보살피는 목양에 초점을 두었고 선교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대형선교대회가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가는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구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민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세대교체가 된 30 년 후의 지금은 전에 구축되었던 선교운동의

패러다임을 위한 변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제안은 교회들이 현장 선교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초청하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간접경험과 도전을 받고 선교에 여러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교회를 방문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서 중소형교회들이 선교동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소형교회들이 교회의 규모는 작아도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다. 그 운동을 중소형교회중심의 선교운동으로 강소형선교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의 현장 선교사들의 선교사 부흥단을 구성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중소형교회들의 선교동원을 위한 공동체 운동이 전개가 되면 선교사로 동원될 대상은 단기선교 중심의 청년세대 그리고 전문인선교사로 은퇴한 노인세대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는 중요한 대상 그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 필자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요약

본 연구는 제 1 부 문헌연구와 제 2 부 현장조사 그리고 제 3 부 변화를 위한 제언을 다루었다. 제 1 장은 선교동원에 관한 기본연구로서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 질문과 범위들, 용어 정의들, 연구의 가정과 방법론 그리고 연구개관을 다루었다. 제 1 부 문헌연구 부분을 4 장으로 나누어 제 2 장에서는 선교동원의 성서적 관점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선교 중심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제 3 장에서는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시대적인 특성에 맞는 선교동원의 선교학적 관점을 다루었다. 제 4 장에서는 세계선교에서의 선교동원의 역사적 관점과 북미주한인교회 상황에서의 특징을 다루었다. 제 2 부 현장조사 부분에서 제 5 장은 북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의 현황을 다섯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 목회자의 선교지도력, 성도들의 선교 공감력, 교회 안의 선교동원력, 선교가 지속되는 선교 재생산력 그리고 선교의 재정 헌신력을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였다. 제 3 부는 전략적 제안

부분으로 제 6 장에서는 문헌연구, 선교학적 그리고 역사적 현장조사를 통하여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현재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필요한 선교동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7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제언

본 연구는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관한 연구라지만 실제로 미국 내 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된 것이었다. 앞으로 캐나다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운동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누군가 캐나다 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에 관한 연구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

ENGLISH SUMMARY

TABLE OF CONTENTS

ENGLISH SUMMARY 113

TABLE OF CONTENTS 114

TEXT OF SUMMARY 115

CHAPTER 1 INTRODUCTION 115

CHAPTER 2 BIBL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117

CHAPTER 3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119

CHAPTER 4 HISTOR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121

CHAPTER 5 STATES OF MISSION MOBILIZATION BY KOREAN CHURCHES OF NORTH AMERICA AND ITS ANALYSIS 123

CHAPTER 6 STRATEGY MISSION MOBILIZATION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124

CHAPTER 7 CONCLUSION 126

TEXT OF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is dissertation is about mobilizing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for world mission.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posess spiritual, personnel, and financial means to play a major role in the world mission of the twenty-first century. However,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have not developed the ability to do world mission with their full potential. This writer sees this problem as a lack of proper mission mobilization strategy on the part of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Mission mobiliza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world mission movement. A proper mobilization for mission is the key to successful world mission by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erefore, every Korean-American church should establish a mission group after proper; effective missionary mobilization is understood.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erefore must continuously discover and send out licensed ministers and professional lay missionaries who have been called to do mission.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n effective missionary mobilization strategy to the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is dissertation is made up of seven chapters, including an introduction and main body. After the introduction in the first chapter, the second chapter continues with the description of mission mobilization from a biblical perspective. Chapter three describes a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Chapter four describes a histor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Chapter five describes a situation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Chapter six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of mission

mobilization by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Chapter seven gives a short summary of this report as a conclusion, as well as the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CHAPTER 2

BIBL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mobilization of mission in a biblical perspective. It is divided into six parts. The first is a bibl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The second is a review of mission mobilization through history. Mission mobilization by God revealed through history shows much diversity. Among the recorded incidents in the Bible, the goal of God's mission mobilization was to share God with all nations. The third part discusses the appearance of mission mobilization in Psalms and other biblical poetry. The central message of Psalms and other biblical poetry is the duty of Israel doing mission with Gentile nations. Through literary means, the appropriateness of Israel as a nation being mobilized to do mission is well expressed. The fourth part of this chapter contends that through prophetic writings in the Old Testament, mobilization appeared through history. God directly mobilized people for this purpose. God mobilized a Jewish servant girl in captivity to heal Nahman from leprosy, as well as using the immigrant Jews who left their homeland for Babylonia to do mission. The fifth part discusses mission mobilization in Old Testament prophetic books. God mobilized people for mission through historical events that occurred because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liaisons. The prophets who transcended borders and time were anointed by God and mobilized for mission because of national and historical events. The sixth part of this chapter explains an understanding of mission mobilization in the New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the biblical basis for mission mobilization can be discovered through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and how he mobilized fo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God mobilized his servants for mission, but in the New Testament, God's Son Jesus Christ became incarnate to do mission. A method of Christ's mission

mobilization in the New Testament as Jesus began his ministry was making a mission team. The Lord selected twelve disciples and trained them instead of many. His first ministry was recruitment for making a mission minded community.

CHAPTER 3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Chapter three describes a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There are four characteristics found in theological mission mobilization. First, when God works to mobilize for mission, the recruited person perspective on the world changes. Second, their perspective toward all nations changes. Third, when they start to do mission, the Lord Jesus anoints them with spiritual power and authority. Fourth, lay person and clergy are both mobilized for mission.

The following are four definitions of mission. First, Gailyn Van Rheenen defined mission as "all of God's work to harmo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sinful man." Second, Donald A. McGavern defined mission as "sharing the gospel to people of different culture who do not know Jesus Christ so they can receive Jesus as Savior. Furthermore, they need to become responsible member of a church, so that they can be led by the Holy Spirit to evangelize others, live righteous, and work hard to make God's will to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rough God's kingdom getting established on earth. Third, David J. Bosch defined mission as having "a relationship with crossing the border. Mission is a task from God upon the church for saving the entire world. Mission is a task of church being active, living for community, transparent, and coming out from within ('Hogandaik') toward the world." Fourth, Charles Van Engen said, "God's mission is people of God going to a place where there is no church, to where there is no faith, deliberately going over the barriers for people to make peace with God, others, and the world. In this chapter, mission is defined as "the gospel of Jesus Christ, starting with individual salvation, crossing geographical and cultural borders to where there is no church. The gospel must be deliberately increased among the Gentiles of other cultures in all the mission activities of

people who were cut off from God achieving peace with God through he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repentance."

CHAPTER 4

HISTOR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This chapter describes a historical perspective on mission mobilization. This chapter describes five parts of history in mission mobilization. First, it discusses mission mobilization hidden in church history. When God initiates mission, His very first act is always mission mobilization. Mission mobilization therefore has been an inseperable part of God's ministry as the church grew throughout history and in the history of mission. The second part of this chapter discusses mobilization for mission history with William Carey and John Raleigh Mott. Carey and Mott must be studied to understand modern history of mission. Their influence upon world mission was great as a missionary evangelist and a movement for mission mobilization. The third part of this chapter analyzes pastors of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who influenced mission mobilization by ministering with world mission in mind at Korean immigrant churches since the inception of the church. Through their church ministry, they challenged other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o do misson. Missionaries from the actual mission field connected to the church visited the church and challenged church members to do mission. This is how Korean churches started doing mission. The senior pastor made this possible by building the foundation for mission inside the church. Pastors Kwang Shin Kim, Won Sang Lee, Dong Sung Lim, Sang Jin Jung were the four pioneers of this movement. The fourth part of this chapter introduces Korean pastors in Korea who influenced Korean-American churches to beomce involved in world mission, including pastors and educators Cho Dong Jin, Kim Jun Gon, Kim Eul Whan, and Kim Hwal Ran. The fifth part of this chapter introduces an understanding of networks for mission mobilization by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Mission information

networks directly connect with the ability of transmitting mission information among Korean-American churches. Mission information is becoming an important asset for Korean American churches for mobilizing world mission.

CHAPTER 5

STATES OF MISSION MOBILIZATION BY KOREAN CHURCHES OF NORTH AMERICA AND ITS ANALYSIS

Chpater five describes field research observations of Korean-American churches' mission mobilization abilities. The field research assigns numerical values to the mission mobilization abilities of Korean-American churches, which is not typically seen. The purpose is to measure the mission mobilization ability of the churches. This research consists of eight parts. 1. background of field analysis; 2. new mission movement and reforming mission mobilization for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rough field research; 3. five Separate Main Contents of the Survey for Field Analysis; 4. basic design of field analysis; 5. purpose of survey; 6. distribution of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and the necessity of mission community movement by small and med-size churches; 7. observing the structure of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for Mission Mobilization; 8. two types of network for mobilizing professional lay person missionaries by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e purpose for the survey was to find out the potential for mission mobilization by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an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is survey method. Survey questions were drafted to determine five different areas for mission mobilization: pastors' ability for mission; empathy of church members for mission; churches' ability for mission mobilization; churches' ability to reproduce for mission; financial strength for mission. After this interview and survey conducted with Korean pastors ministering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recommendations will be made for increasing mission leadership, empathy for mission, ability to mobilize for mission, mission reproduction ability, and financial strength for and dedication to mission.

CHAPTER 6

STRATEGY OF MISSION MOBILIZATION FOR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In this chapter, a general plan for mission mobilization by small and mid-size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will be discussed. Small churches can focus on mission regardless of their size. Such a movement can be called, "Mission Church Unity Movement." A missionary revival team can be formed by currently active missionaries. They can assist small churches to participate in mission. As the movement for mission community develops, young people should be candidates for short-term missions, and retired lay people should be professional missionary candidates.

Korean mission mobilization has not changed in the last thirty years. It is currently outdated and inappropriate for today's changing world.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ree matters to rescue Korean mission mobilization through reforming and revolutionizing its structure. First, the internet should be untilized for mission mobilization. Second, small and mid-size churches should be mobilized for increasing mission movement. Third, professional lay missionaries should become the focal point of the mission mobilization and mission training while internet training should be established for distant learning.

Mission mobilization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regarding mission. Church growth in size and quantity is no longer a priority for Korean churches. It is now time for Korean churches to do mission which is the essence of the church regardless of size. Retired church members should become professional missionaries and go out to the mission field as the doors are closing for regular missionaries. In Korean-American churches, the number of retired professional church members who immigrated to America thirty

to forty years ago has increased tremendously. Furthermore, Korean churches should no longer focus on merely growing in size. Even if they are small, churches should participate in mission movements that can help them become strong.

CHAPTER 7

CONCLUSION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for a grand scale national mission mobilization movement to happen beginning with mission movements by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wo types of network must be developed. Effective and up-to-date methods for mission must b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s that exist in today's mission field. First, a movement must start to mobilize professional laypeople for mis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focus on mobilizing retired church members to be sent out as missionaries. This mission mobilization should develop into a social network in every region inclusive of all denominations. The second type of network should mobilize small and mid-size Korean churches, which make up 90% of all 4,421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o participate in world mission through the Mission Church United Movement.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rough internet social networks, small and mid-size churches can be mobilized for mission.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Church Unity Movement, churches must develop mission mobilization reproduction abilities, and for this to happen, there are five essential matters: leadership of pastor; empathy for mission by church members; ability to reproduce mission; and the ability to financially support mission.

Through this research, a strategy has been proposed for effective mission mobilization in an ever changing world which meets the character and circumstancs of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This study has been concerned with mission mobilization of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America, but it was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I recommend further study of the

missionary movements of Canadian Korean churches to form a more comprehensive study on the missionary movement of North American Korean churches.

APPENDIX A 현장조사 목적과 설계 및 분석

현장조사의 기본설계

본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본설계 인터뷰를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무작위 추출로 하였다. 표본 크기는 북미주한인교회 중 50 개 교회를 샘플로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 면담, 설문 응답자를 직접 만나 설문을 받기도 하였고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을 받았다. 설문 기간: 4 월 1 일-4 월 30 일 2016 년.

설문의 목적

설문의 목적은 북미주한인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선교동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샘플 측정을 통해서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고 이 측정의 도구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를 실험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문은 교회 안에 선교동원을 일으키는 5 개의 분야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5 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선교지도력, 성도들의 선교 공감력, 교회 안의 선교동원 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단기선교 분야를 통한 선교동원력, 선교가 지속되는 구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선교 재생산력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선교에 얼마나 헌신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선교재정 헌신력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선교동원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지

* 설문내용

1. 성별 ___ 2. 나이 ___ 3. 본 교회 목회 기간 ____년

4. 선교사로서 선교지 사역경험 1). ____ 있다. 2)___ 없다

5. 교회 성도 수 _____50 명 이하 _____51-100 명 ____101-1000 명 _____1001 명 이상

- 설문지 -

1. 목사님께서는 목회 계획에 선교가 우순 순위 중 몇 번째이신가요?

___1. 최하위에 둔다

___2. 중간에 둔다

___3. 우선에 둔다

___4. 최우선에 둔다

2. 목사님께서는 본 교회 성도들의 선교동원을 위해서 1 년에 선교설교를 몇 번 하시는지요?

___1. 0-5 회

___2. 6-10 회

___3. 11 회-15 회

___4. 16 회 이상

3. 목사님께서는 선교동원을 위해서 선교 비전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___1. 중요하지 않다

___2.. 덜 중요하다

___3. 보통이다

___4. 중요하다

4. 목사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1 년에 얼마나 전달하시는지요?

___1. 0-5 회

___2. 6-10 회

___3. 11 회-15 회

___4. 16 회 이상

5. 목사님이 선교지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얼마나 연결되어있으신지요?

___1. 10 명 이상

___2. 20 명 이상

___3. 30 명 이상

___4. 40 명 이상

6. 본 교회 목회를 시작하신 후 교회에서 처음 현장 선교사가 방문하여 선교보고, 도전을 한 것이 목회를 한 지 얼마후이신지요?

___1. 2 년 6 개월 후

___2. 2 년 후

___3. 1 년 후

___4. 6 개월 후

7. 교회에 현장 선교사가 1 년에 평균 몇 명이 방문하여 선교에 대하여 나누는지요?

___1. 0-5 명

___2. 6-10 명

___3. 11-15 명

___4. 16 명 이상

8.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선교에 동원 할 때 현장 선교사와 상의하여 팀워크로 하시는지요?

___1. 단독으로 한다

___2. 간단히 정보만 알아본다

___3. 선교사를 초청한다

___4. 본인 또는 선교담당자가 현지 방문을 한다

9. 목사님께서는 선교사가 간증을 나눌 때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___1. 반응이 없다

___2. 반응이 약간 생기는 것 같다

___3. 보통이다

___4. 크다

10. 목사님 교회는 자체적으로 선교부흥회, 선교세미나, 선교주일을 1 년에 몇 번 하는지요?

___1. 없다

___2. 2 회

___3. 3 회

___4. 4 회 이상

11. 목사님 교회는 단기선교가 성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___1. 전혀 안 된다

___2. 약간 된다

___3. 보통이다

___4. 도움이 된다

12. 목사님 교회에서 1 년에 단기선교팀들이 성도의 몇 %를 파송하고 있으신지요?

___1. 10% 이내

___2. 10-20%

___3. 21%-30%

___4. 31% 이상

13. 목사님 교회에 한 번이라고 단기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성도 중 모두 몇 %인가요?

___1. 0%

___2. 10-20%

___3. 21-30%

___4. 31% 이상

14. 단기선교팀을 모집할 때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다음팀 모집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와주는 다음팀 구성을 도와주는 비율은 몇 %인가요?

___1. 0-10%

___2. 11-20%

___3. 21-30%

___4. 31-40% 이상

15. 먼저 다녀온 단기 선교팀원들 중 다시 새로운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단기선교를 다시 가는 비율은 몇 % 인가요?

___1. 0-10%

___2. 11-20%

___3. 21-30%

___4. 31% 이상

16. 본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다녀와 장기선교사로 헌신하여 파송된 선교사로 있으신지요?

___1. 0 명

___2. 1-2 명

___3. 3-4 명

___4. 5 명 이상

17. 교회에서 전체 성도들 중 선교훈련 프로그램에 그동안 참여한 총인원은 전체인원 중 몇 % 가 되는지요?

___1. 1-10%

___2. 11-20%

___3. 21-30%

___4. 31% 이상

18. 현장 선교사의 설교 또는 강의를 듣고 성도들이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한 경우가 있는지요?

___1. 없다

___2. 1-2 명

___3. 3-4 명

___4. 5 명 이상

19. 선교훈련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성도들이 훈련 후에 단기선교로 연결되어 선교지 방문하는 비율은 몇 %가 되는지요?

___1. 10% 이내

___2. 11-20%

___3. 21-30%

___4. 31% 이상

20. 교회가 본 교회 성도 중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될 때 선교비 후원은 얼마나 하는지요? (또는 정책이 세워져 있는지요?

___1. 전체 필요의 50% 이하

___2. 전체 필요의 60% 후원

___3. 전체 필요의 70% 후원

___4. 전체 필요의 80% 후원

21. 전체 교회예산 중 선교예산은 몇 % 되는지요?

___1. 1-10%

___2. 11-20%

___3. 21-30%

___4. 31% 이상

22. 전체 교인 중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하는 비율은 몇 %인가?

___1. 1-10%

___2. 11-20%

___3. 21-30%

___4. 31% 이상

23. 1 년 중 교회서 선교 특별 헌금을 하는 횟수는 몇 번인가?

___1. 1 회

___2. 2 회

___3. 3 회

___4. 4 회 이상

24. 전체 예산 중 장기 또는 협력선교사 정기후원금은 몇 %인가?

___1. 10-30%

___2. 31-40%

___3. 41-60%

___4. 61% 이상

25. 전체 예산 중 단기선교후원 금액이 선교예산 중 몇 %인가?

___1. 0%

___2. 10-20%

___3. 21-30%

___4. 40% 이상

설문 응답 목회자 그룹분류

<표 2>

나이별 그룹

나이별	목회자 수	비율
50세 이하	14	28%
51-60세	24	48%
61-70세	10	20%
71세 이상	2	4%

<표 3>

성도 수별 그룹

성도 수	교회 수	비율
50명 이하	15	30%
51-100명	14	28%
101-1000명	13	26%
1000명 이상	8	16%

<표 4>

목회 기간별 그룹

목회 기간	목회자 수	비율
1-5년	11	22%
6-10년	10	20%
11-15년	11	22%
16-20년	8	16%
21-25년	5	10%
26-30년	3	6%
31년 이상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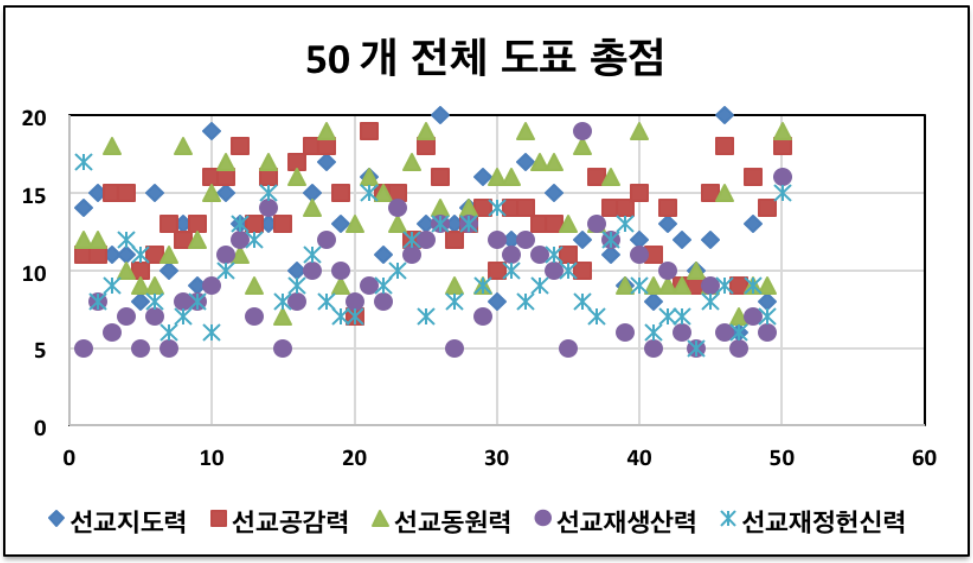
<표 5>

선교경험 여부 그룹

목회자의 선교경험	목회자 수	비율
있다	18	36%
없다	3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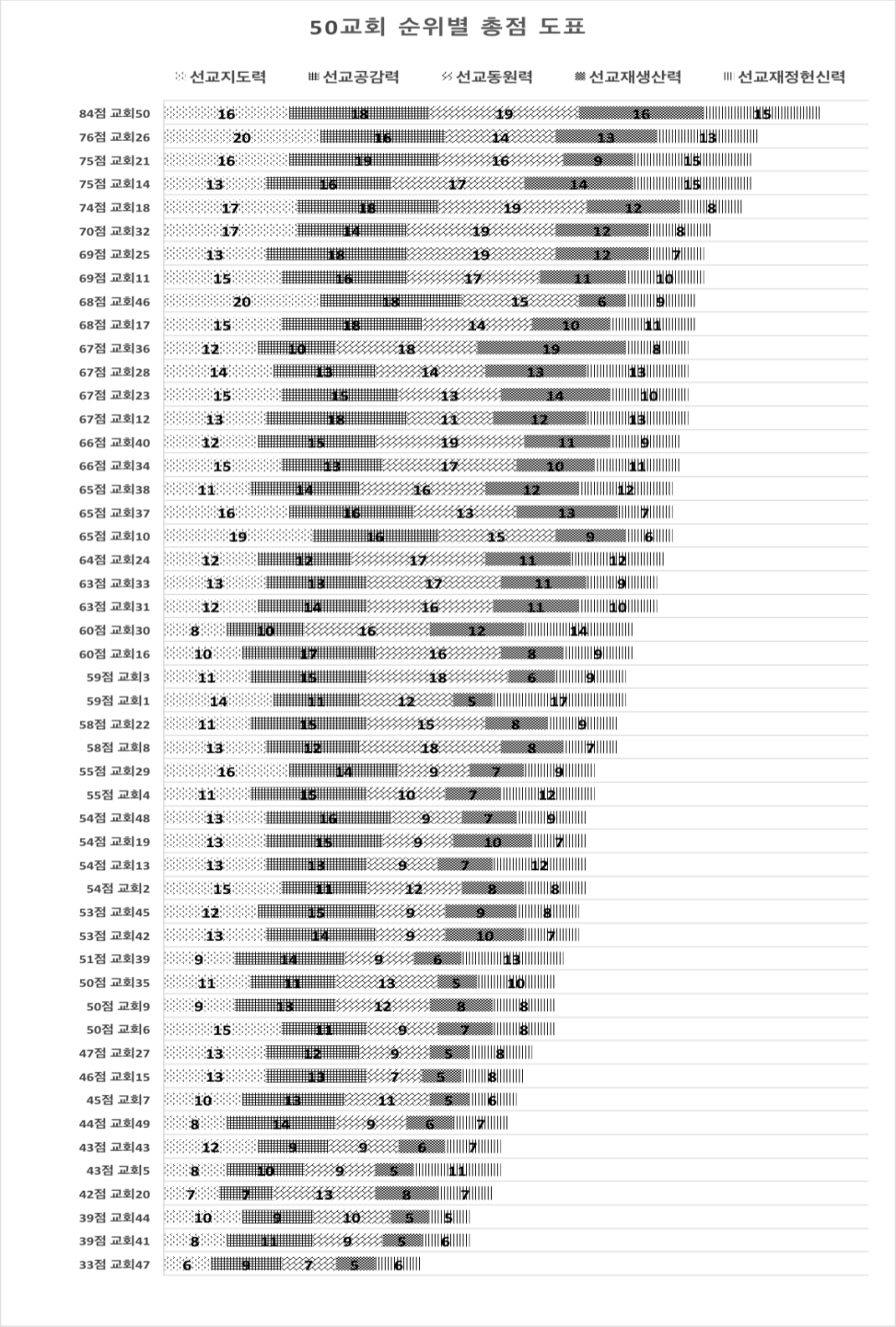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

50 개 샘플 표본추출된 교회들의 설문 응답을 분석함으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5 개 분야의 현재 상황을 수치로 도표화 하였다.



<그림 2>

전체 총점



<그림 3>

전체 총점

50교회 5개 분야 합산 총점

(전체평균 58.78 / 100점 만점)

<표 6>

50교회 선교동원 재생산력 총평가를 위한 교회 수와 비율

점수 그룹	교회 수	비율
81점 이상	1교회	2%
71-80점	4교회	8%
61-70점	17교회	34%
51-60점	15교회	30%
41-50점	10교회	20%
31-40점	3교회	6%

<표 7>

81점 이상 선교동원의 모델이 되는 교회

(1교회 2%) 교회	
성별	남
나이	51-60
목회 기간	11-15년
성도 수	1000+
선교경험	없다
점수	84

이 교회는 현재 북미주한인교회들 중 대표적으로 선교에 헌신한 교회로서 선교동원 재생산력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교회는 계속하여 선교동원 재생산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목회자의 나이로 볼 때 계속하여 선교동원 재생산력이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 교회는 선교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다른 교회들을 선교에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표 8>

71점 이상 북미주선교동원이 지속되는 기본그룹
(4교회, 8%, 평균점 75점)

교회	교회26	교회21	교회14	교회18
성별	남	남	남	남
나이	61-70	<50	51-60	51-60
목회 기간	16년-20년	1년-5년	1년-5년	6년-10년
성도 수	1001+	1001+	1001+	101-1000
선교경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총점	76	75	75	74

이 그룹의 특징은 1001 명 이상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 우수한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북미주한인교회들 중 대형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재정력, 인력, 지도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스스로 선교동원을 할 수 있는 선교동원 재생산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북미주한인 대형교회가 선교동원 재생산력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선교가 개교회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대형교회들이 북미주선교동원 운동에 기본적인 구조로서 북미주한인교회가 최소한의 선교동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교동원의 기본그룹인 것을 보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형교회 수가 적고 자체적으로 선교운동을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의 선교운동을 주도하기에는 교회 자체의 사역들로 인하여 커뮤니티를 위한 선교지도력은 약할 수 있다.

<표 9>

61점 이상 선교동원 주체세력이 될 수 있는 중심그룹
(17교회, 34%, 평균점 66.4점)

교회	성별	나이	목회 기간	성도 수	선교경험	총점

교회32	남	51-60	6년-10년	<50 이하	없다	70
교회25	남	51-60	1년-5년	101-1000	있다	69
교회11	남	61-70	31년 -40년	<50	있다	69
교회46	남	51-60	6년-10년	1001+	있다	68
교회17	남	51-60	11년-15년	1001+	없다	68
교회36	남	71-80	31년 -40년	1001+	있다	67
교회28	남	61-70	16년-20년	1001+	있다	67
교회23	여	<50	11년-15년	<50	있다	67
교회12	남	<50	11년-15년	101-1000	없다	67
교회40	남	<50	1년-5년	101-1000	없다	66
교회34	남	<50	6년-10년	101-1000	있다	66
교회38	남	61-70	21년-25년	101-1000	없다	65
교회37	남	51-60	16년-20년	<50	없다	65
교회10	남	51-60	21년-25년	101-1000	없다	65
교회24	남	51-60	11년-15년	51-100	있다	64
교회33	남	61-70	11년-15년	51-100	있다	63
교회31	남	<50	1년-5년	51-100	없다	63

이 그룹은 목회자의 나이가 51-60 세이고 또한 50 세 이하의 목회자 그룹이 중심이 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특징이 앞으로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그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룹은 선교동원에 있어 선교투자가 집중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그룹이다. 이 그룹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이 증가가 되어 70 점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선교동원 구조와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분석에서 이 중간그룹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것이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51이상 선교지도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이 필요한 그룹
(15교회, 30%, 평균점 55.8점)

교회	성별	나이	목회 기간	성도 수	선교경험	총점
교회30	남	61-70	16년-20년	51-100	없다	60
교회16	남	<50	1년-5년	<50	없다	60
교회3	남	51-60	6년-10년	51-100	없다	59
교회1	남	<50	1년-5년	<50	없다	59
교회22	남	51-60	11년-15년	101-1000	없다	58
교회8	남	<50	6년-10년	<50	없다	58
교회29	남	<50	11년-15년	101-1000	없다	55
교회4	남	51-60	16년-20년	51-100	없다	55
교회48	남	<50	1년-5년	<50	없다	54
교회19	남	51-60	21년-25년	101-1000	없다	54
교회13	남	51-60	11년-15년	<50	있다	54
교회2	남	<50	6년-10년	<50	없다	54
교회45	남	61-70	16년-20년	101-1000	있다	53
교회42	남	51-60	21년-25년	51-100	없다	53
교회39	남	51-60	26년-30년	51-100	없다	51

이 그룹 또한 선교의 가능성이 큰 그룹이라고 파악된다. 이 그룹의 특징은 60 세 이하의 목회자들이고 전체 15 명 중 13 명의 나이가 60 세 이하이며 11 명이 100 명 이하의 성도 수를 가진 목회자이기에 이 그룹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선교멘토링을 통하여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계속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그룹은 미주의 보편적인 작은 교회들인데 이 그룹에서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증가시켜 선교동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제적인 열쇠를 가진 그룹임을 알 수 있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새로운 선교개혁이 진행될 때 실제로 이 그룹들에게 맞는 적절한 선교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표 11>

41점 이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그룹
(10교회, 20%, 평균점 46점)

교회	성별	나이	목회 기간	성도 수	선교경험	총점
교회35	남	51-60	1년-5년	101-1000	없다	50
교회9	남	51-60	1년-5년	<50	있다	50
교회6	남	51-60	26년-30년	51-100	있다	50
교회27	남	51-60	6년-10년	51-100	있다	47
교회15	남	71-80	26년-30년	51-100	없다	46
교회7	남	61-70	6년-10년	<50	없다	45
교회49	남	<50	1년-5년	<50	없다	44
교회43	남	51-60	6년-10년	51-100	있다	43
교회5	남	61-70	16년-20년	<50	없다	43
교회20	남	51-60	16년-20년	<50	있다	42

이 그룹은 교회유지와 안정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룹은 선교교육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선교공동체 선교부흥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룹이다. 또한 선교지 현장을 연결할수 있도록 단기선교를 단독 또는 연합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선교정보와 선교지 연결을 도와주어야 하는 그룹이다.

<표 12>

31점 이상
(3교회, 6%, 평균점 37점)

교회	성별	나이	목회 기간	성도 수	선교경험	총점
교회47	남	<50	11년-15년	51-100	있다	39

교회41	남	51-60	21년-25년	101-1000	없다	39
교회44	남	61-70	11년-15년	51-100	없다	33

이 그룹은 선교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에 연결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한 그룹이다.

<표 13>

각 그룹 간 평균점과 그룹 사이의 평균격차
(그룹 사이 평균점 격차 9.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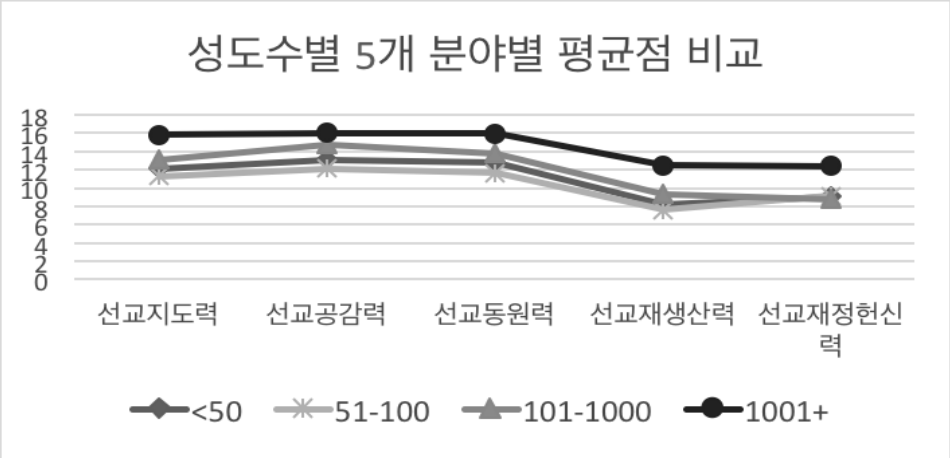
그룹	그룹 평균점	상위그룹과 격차
81점 이상	84점	없음
71점 이상	75점	9점
61점 이상	66.4점	8.6점
51점 이상	55.8점	11.6점
41점 이상	46점	9.8점
31점 이상	37점	9점

5개 분야별 점수를 통한 그룹별 분석

교회 성도 수별 비교 5개의 점선 그래프

각 분야별 총점에서 평균점을 각 5 개의 카테고리별로 점선 그래프 만듦

1. 1001 명 이상　2. 101-1000 경우　3. 51-100 명 경우　4. 50 명이하 경우



<그림 4>

교회 성도 수별 5개 분야별 평균점 비교

<표 14>

교회 성도 수별 비교

성도 수	<50	51-100	101-1000	1001+
선교지도력	12.2	11.3	13.2	15.8
선교공감력	13.2	12.1	14.8	16.0
선교동원력	12.8	11.6	13.8	15.9
선교재생산력	8.3	7.6	9.4	12.5
선교재정헌신력	9.1	9.1	8.8	12.4
총점	55.6	51.9	60.1	72.5
응답인원	15명	14명	13명	8명

분석

선교동원 재생산력 5개 분야 종합평가

1위 1001명 이상, 2위 101-1000명, 3위 50명 이하, 4위 51-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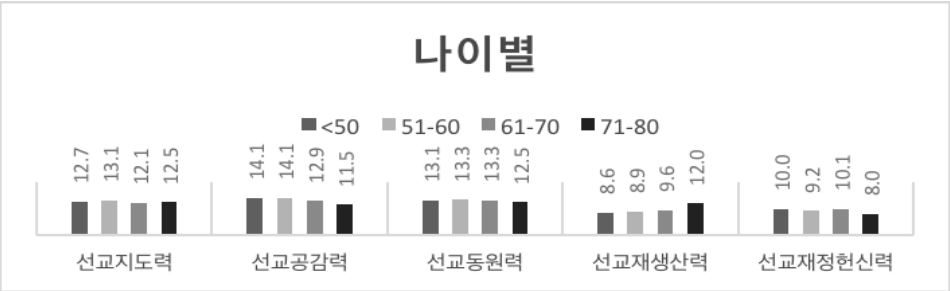
나이별 비교 4개의 그래프

1. 40-50세(14명) 2. 51-0세(24명) 3. 61-70세(10명) 4. 71세 이상(2명)

<표 15>

나이별 비교

나이	<50	51-60	61-70	71-80
선교지도력	12.7	13.1	12.1	12.5
선교공감력	14.1	14.1	12.9	11.5
선교동원력	13.1	13.3	13.3	12.5
선교재생산력	8.6	8.9	9.6	12.0
선교재정헌신력	10.0	9.2	10.1	8.0
총점	58.5	58.6	58.0	56.5



<그림 5>

나이별 평균점 비교

분석

나이 그룹 선교동원 재생산력 5 개 분야 종합평가

1 위: 51-60 세, 2 위: 50 세 이하, 3 위: 61-70 세, 4 위: 71 세 이상.

나이 그룹에서 총점 평가는 51-60 세가 50 세 이하의 목회자들과 거의 같지만 근소한 차이로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젊은 그룹이 더 선교동원 재생산력이 뛰어난 것은 30 년 전 북미주한인교회들 안에 세계선교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사역을 준비하거나 시작단계에 있던 젊은 세대들로 선교에 대한 영향력을 더 받았던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이미 선교 정보와 관심이 있었고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61-70 세의 목회자들의 특징은 목회 경험상 선교동원력과 선교 재생산력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선교재정 헌신력은 다른 그룹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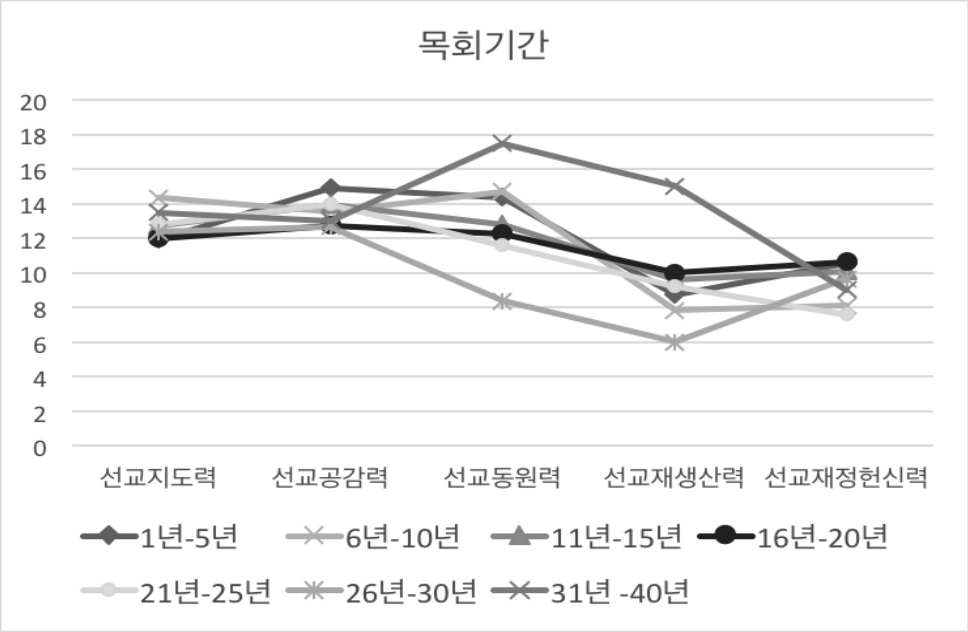
목회 기간별 비교

1. 26-30 년 2. 21-25 년 3. 16 년-20 년 4. 11 년-15 년 5. 6 년-10 년 6. 1 년-5 년.

<표 16>

목회 기간별 비교

목회 기간	선교 지도력	선교 공감력	선교 동원력	선교 재생산력	선교재정 헌신력	총점	인원
1년-5년	11.9	14.9	14.4	8.7	10.5	60.5	(11명)
6년-10년	14.3	13.5	14.7	7.8	8.1	58.4	(10명)
11년-15년	12.7	14.0	12.8	9.6	10.1	59.3	(11명)
16년-20년	12.0	12.8	12.3	10.0	10.6	57.6	(8명)
21년-25년	12.8	14.0	11.6	9.2	7.6	55.2	(5명)
26년-30년	12.3	12.7	8.3	6.0	9.7	49.0	(3명)
31년-40년	13.5	13.0	17.5	15.0	9.0	68.0	(2명)



<그림 6>

목회 기간 분야별 평균점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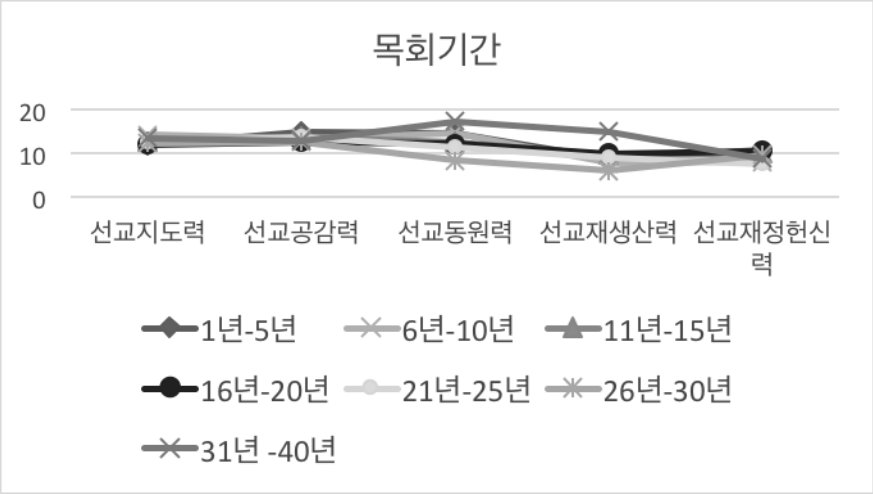
선교동원 재생산력 5 개 분야 종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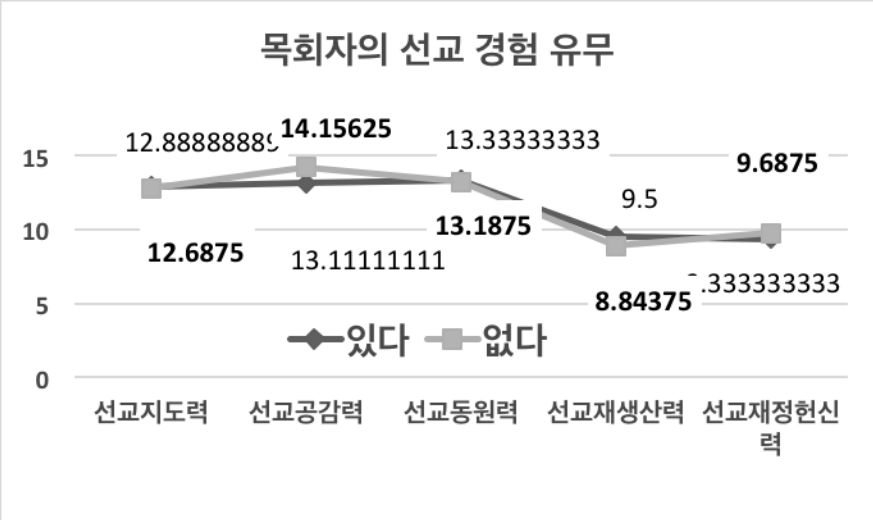
1 위: 31 년 이상, 2 위: 1-5 년, 3 위: 11-15 년, 4 위: 6-10 년, 5 위: 16-20 년, 6 위: 21-25 년, 7 위: 26-30 년.

<표 17>

목회자의 선교사 경험

선교 경험	선교 지도력	선교 공감력	선교 동원력	선교 재생산력	선교재정 헌신력	%	인원
있다	12.9	13.1	13.3	9.5	9.3	58.2	18명
없다	12.7	14.2	13.2	8.8	9.7	58.6	32명





<그림 7>

목회자의 선교경험 유무에 따른 평균점 비교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 재생산력 최고 그룹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위 그룹 51-60 세, 1001 명 이상, 목회 31 년 이상

2 위 그룹 50 세 이하, 101 명-1000 명, 목회 11-15 년

3 위 그룹 61-70 세, 50 명 이하, 목회 1-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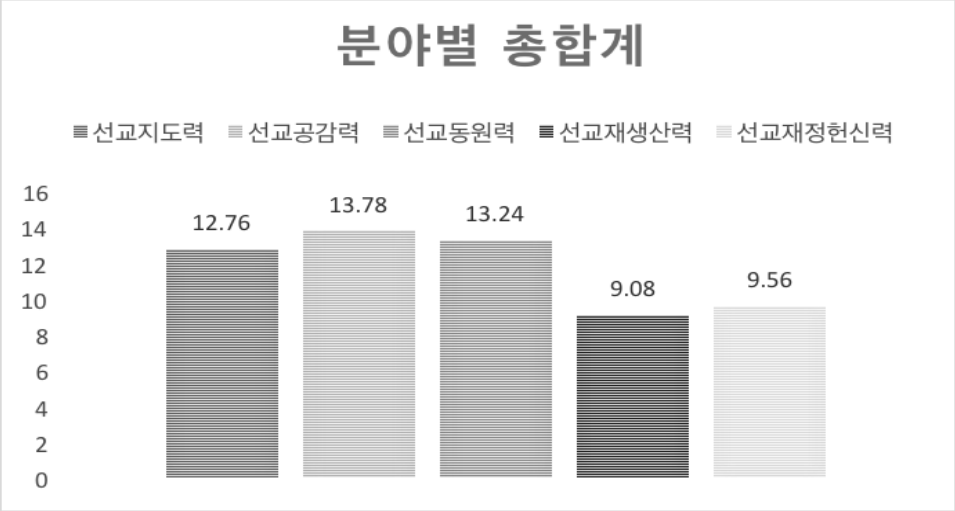
4 위 그룹 71 세 이상, 51 명-100 명, 목회 6-10 년

5 위 그룹 71 세 이상, 51 명-100 명 이상, 목회 26-30 년

6 위 그룹 50 세 이하, 101 명-1000 명, 목회 1-5 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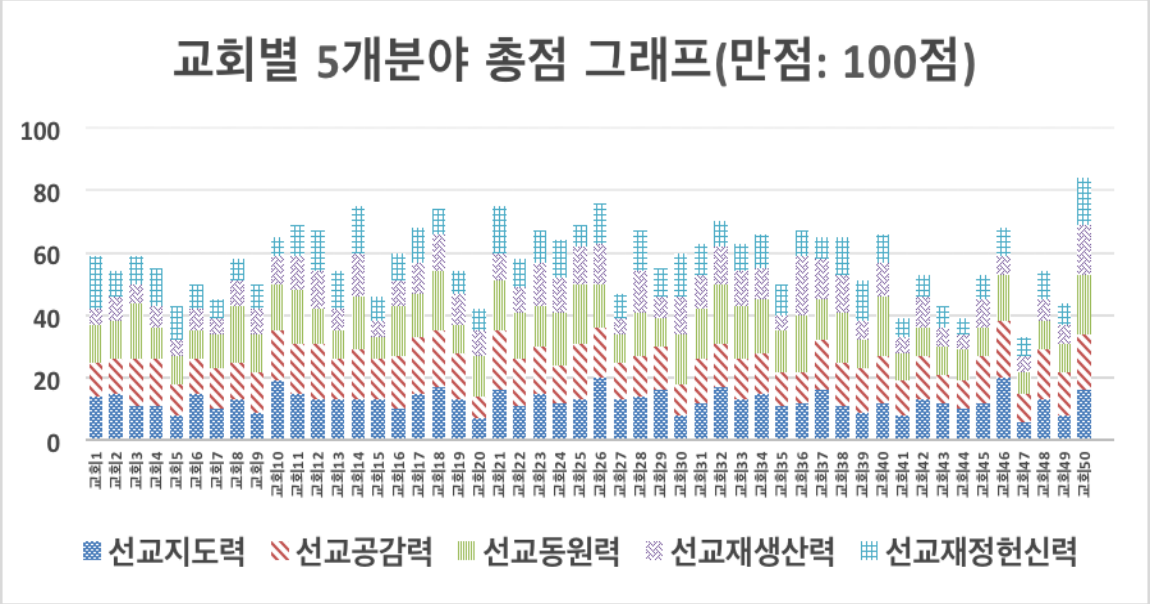
7 위 그룹 61-70 세, 50 명 이하, 목회 1-5 년

8 위 그룹 71 세 이상, 51 명-100 명, 목회 6-10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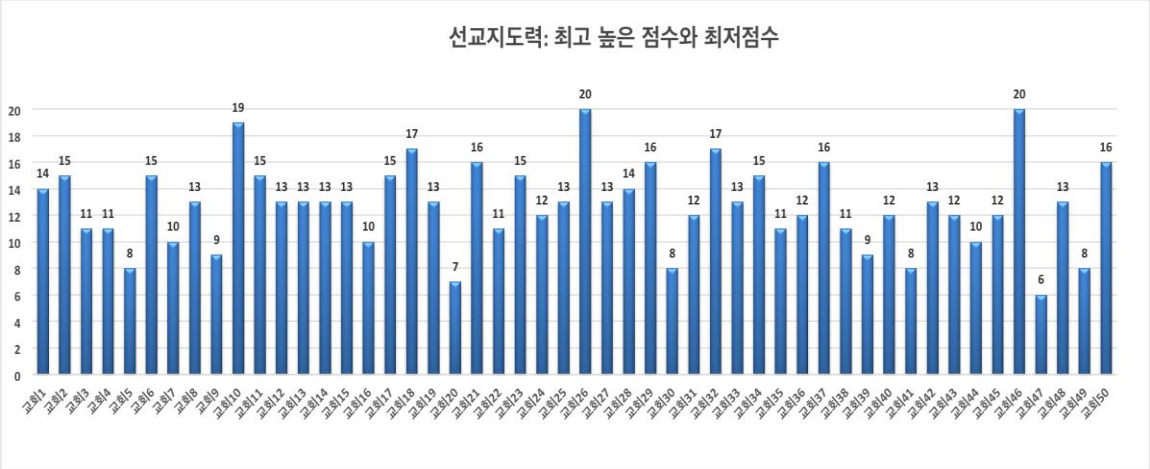
<그림 8>

50교회들의 5개 분야별 측정 평균점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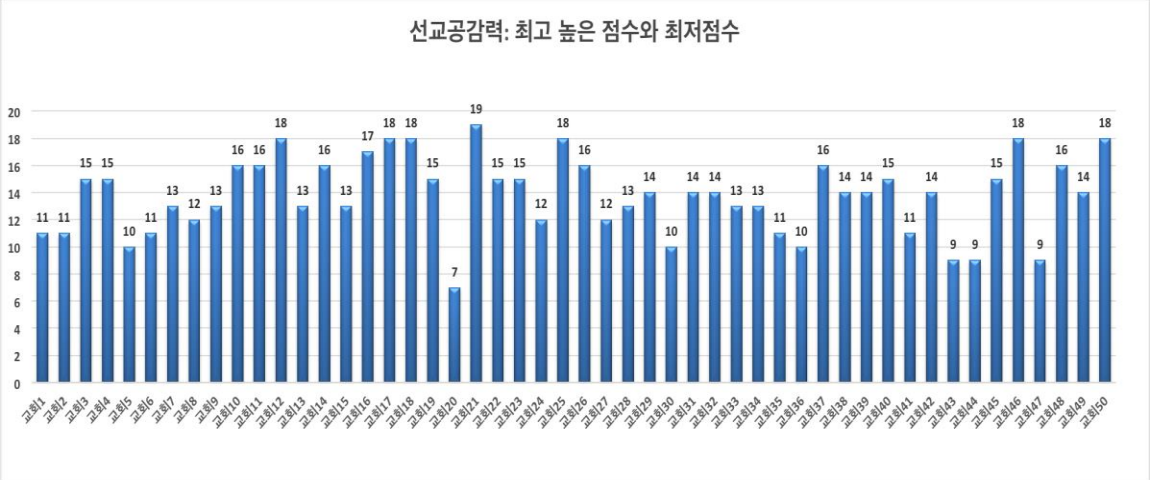
50교회들의 5개 분야별 측정 총점과 평균점
(각 분야별 20점 만점)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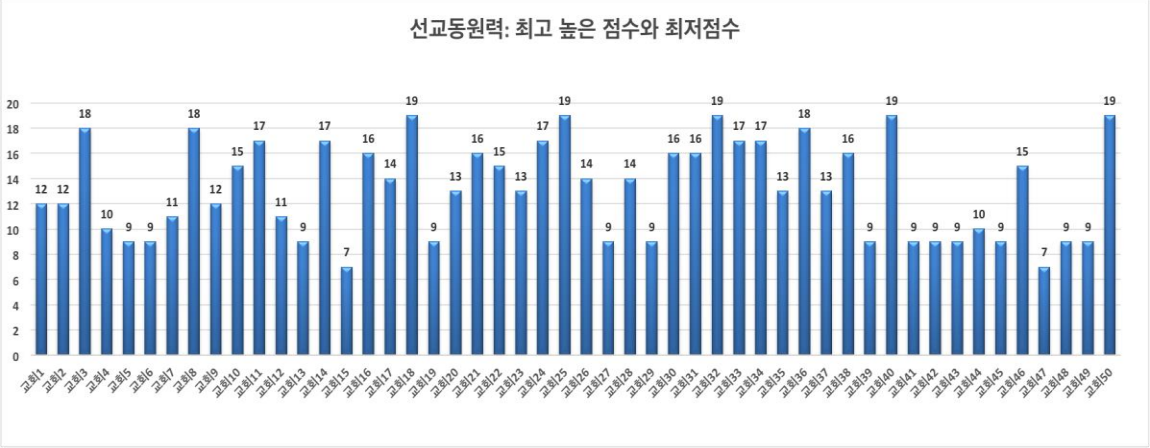
선교지도력 비교

c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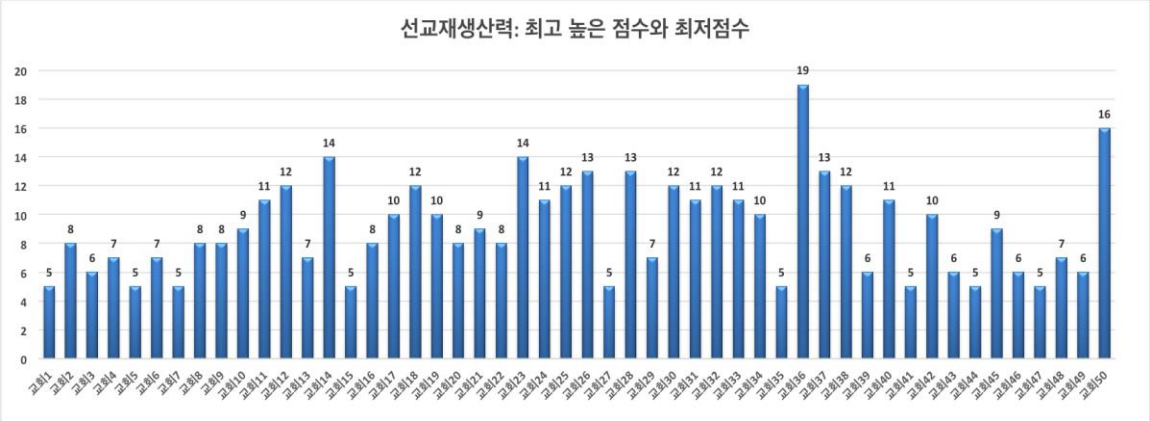
<그림 11>

선교공감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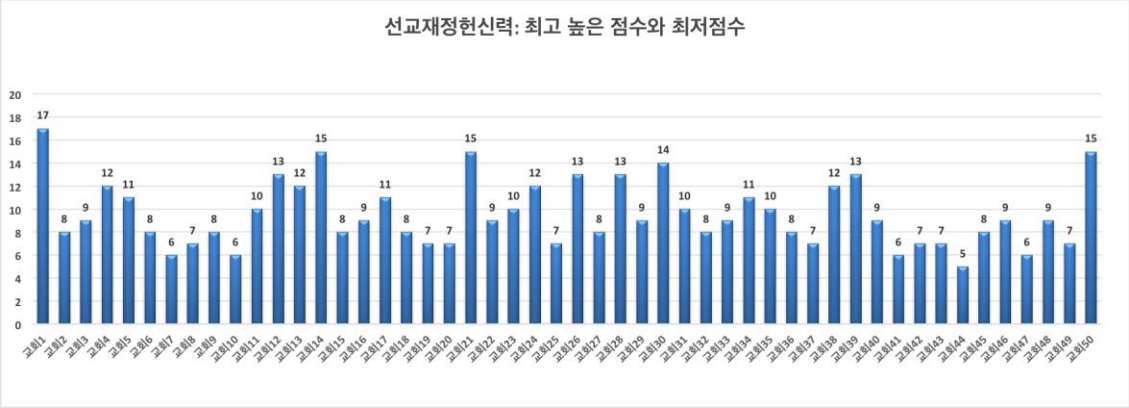
<그림 12>

선교동원력 비교



<그림 13>

선교재생산력 비교



<그림 14>

선교재정 헌신력 비교

APPENDIX B 선교교회 연합동원 모임 보고서 및 평가

선교교회 연합동원 모임 1, 2 차 결과 보고서

본 리포트는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을 위한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이론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남가주의 지역교회들의 평신도와 목회사역자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진행한 공동선교부흥회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공동선교부흥회는 평신도 그룹과 목회자 그룹을 구분하여 따로 진행하였다. 공동선교부흥회의 내용은 북미주한인교회들 선교동원을 위한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 그리고 선교의 중요성을 발표하였다. 공동선교부흥회의 특징은 소그룹으로 모인 현장을 찾아 간 것이다.

* 공동선교부흥회의 규모와 진행

1 차 공동선교부흥회: 평신도 공동선교부흥회

대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20 명

일시: 8 월 19 일 오전 10 시

장소: SON Ministries 세미나실

참석 인원: 20 명

참석교회: 14 교회 (땅끝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필라델피아교회, 성화장로 교회, 동양선교교회, 은혜한인교회, 사명의 교회, 생수의 강 선교교회, 나성교회, 감사한인교회, 토랜스 주님의 교회, 열방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안의교회)

주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에 대한 공동선교부흥회.

2 차공동선교부흥회: 목회자공동선교부흥회

대상: 목사, 전도사

일시: 9 월 4 일 오전 10 시 30 분

장소: 방동섭 목사 연구실

참석 인원: 10 명(전도사 5 명, 목사 5 명)

참석교회: 7 교회 (한미복음교회, 남가주샬롬교회, 충현선교교회, 성산교회,
청운교회, 남가주하나교회)

주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강소형선교교회 운동한 공동선교부흥회.

공동선교부흥회 내용은 PPT 를 사용하여 교회의 선교동원 재생산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5 가지 분야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공동선교부흥회를 통하여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문에 대한 결과와 분석

설문은 10 항으로 하였고 결과와 분석은 평신도 그룹과 목회자 그룹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표 18>

설문 1항

1.강소형선교교회 선교동원 전략에 대하여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6	20	30	2	10	20
2) 실현 가능성이 있다	14	20	70	8	10	80
3) 잘 안될 것이다	0	20		0	10	0
4) 잘 모르겠다	0	20		0	10	0

본 1 항의 질문은 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실현 가능성을 질문하였는데 평신도 그룹은 100 퍼센트 실현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였고 목회자들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80 퍼센트 그리고 가능성에 매우 높다라고 평가한 목회자는 20 퍼센트로 모두 100 퍼센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단 부정적인 사람은 양쪽 그룹 중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특별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이 운동은 매우 현실적이고 작은 소형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공통적으로 가능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9>

설문 2항

2. 누가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가? 한 사람을 선택할 것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담임목회자	13	20	65	6	10	60
2) 성도들	5	20	25	4	10	40
3) 강사로 오는 선교사들	2	20	10	0	10	0
4) 잘 모르겠다	0	20		0	10	0

본 2 항의 설문은 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에서 실제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당사자(Stakeholder)가 누구인지 교회 안의 사람들,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목적이 있다. 결과는 담임 목회자를 양쪽 그룹에서 1 위로 지목을 하였다. 평신도 그룹에서 담임 목회자를 65 퍼센트, 목회자 그룹에서는 60 퍼센트로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지목하였다. 양쪽 그룹에서 가장 낮은 답을 준 그룹은 선교사들 그룹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선교동원 운동을 위해 교회에 변화를 이끌어 낼 사람은 담임 목회자라는 답을 주었다. 따라서 이 강소형선교동원 운동을 교회 안에서 시작할 때의 중요한 역할은 담임목사의 역할임을 알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주 한인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 있지만, 교회의 선교를

움직이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담임 목회자인 것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성도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한 대답은 25 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라고 답한 비율이 40 퍼센트가 되었다. 이 해석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성도들 자신들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변화의 당사자들이 성도들도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표 20>

설문 3항

3. 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을 위해 공동선교부흥회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매우 효과적이다	10	20	50	6	10	60
2) 효과적이다	9	20	45	2	10	20
3)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다	1	20	5	2	10	20
4)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0	20		0	10	0

본 3 항 질문은 지역교회들이 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을 위해서 운동의 핵심분야인 연합에 대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결과는 작은 교회들이 공동선교 부흥회에 대한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주한인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개교회주의가 공동선교부흥회에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합으로 하는 공동선교부흥회에는 목회자들은 80 퍼센트가 찬성을 하지만 성도들은 95 퍼센트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 점은 공동선교부흥회의 성사가 될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있다. 성도들이 실제로 연합을 하자고 움직이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미주의 한인교회들 중 중소형교회들이 전체 4,300 교회들 중 74 퍼센트가 100 명 이하의 교회들이고 이 중에 50 퍼센트가 50 명 이하의 교회들인데 이러한 연합운동이 실제적으로 중소형교회들에게는 적합한 제안이 될 수

있음을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한 연합운동이 미주 전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활성화되면 원심적 선교운동에서 구심적 선교운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표 21>

설문 4항

4.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선교부흥회를 할 때 몇 교회가 모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20교회	3	20	15	5	10	60
2) 10교회	8	20	40	3	10	30
3) 5교회	5	20	25	2	10	20
4) 어느 수도 상관없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4	20	20	0	10	0

본 4 항 질문은 연합의 적당한 규모를 어떻게 생각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기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목회자들은 좀 더 규모가 큰 연합 공동선교부흥회를 원하고 성도들은 좀 더 작은 규모의 연합집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어느 수에도 상관없다는 질문의 답이 20 퍼센트로 나타난 것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주체가 목회자들이 된다면 20 교회들이 모이는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고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 모인다면 10 교회 정도로 모임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지역과 현장의 환경이 다르기에 일률적인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많으면 20 교회 적으면 10 교회 정도가 적당한 연합규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합의 조건은 교회 수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였고 교단이나 교파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초교파 운동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들의 장점은 교단과 교파의 벽이 거의 없이

연합운동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합의 조건은 교단과 교파보다는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거리와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2>

설문 5항

5. 이런 공동선교부흥회가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준다고 보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실제로 도전이 된다	19	20	95	7	10	70
2) 약간 도움이 된다	1	20	5	3	10	30
3) 그저 그렇다	0	20	0	0	10	0
4) 없는 것보다는 낫다	0	20	0	0	10	0

본 5 항의 질문은 실제로 선교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첫 공동선교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선교부흥회를 통해서 선교에 도전을 얼만큼 받았는지 또는 다른 면으로 이 세미나가 참석자들에게 실제로 선교 도전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실제로 세미나의 목적대로 매우 높은 비율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성도들은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사람이 1 명뿐이고 나머지 19 명 95 퍼센트는 실제로 도전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목회자들도 100 퍼센트 도움이 되었다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답을 주었다.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가 30 퍼센트 이고 나머지 70 퍼센트는 실제적으로 매우 도전이 된다라고 세미나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 질문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중소형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직접적으로 선교에 도전을 받지 못하여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에 대하여 누구든지 듣기 시작하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선교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설문 6항

6. 오늘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설명을 통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이 잘될 것으로 보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매우 긍정적인 선교동원 전략이라고 본다	12	20	60	2	10	20
2) 새로운 운동이라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20	30	4	10	40
3) 작은 교회들에는 새로운 길을 제공하게 될 것 같다	2	20	10	3	10	30
4) 잘 모르겠다	0	20	0	1	10	10

본 6 항 질문은 선교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질문하였다. 두 그룹의 견해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성도들은 긍정적인 답이 60 퍼센트가 되었으나 목회자 그룹은 긍정적 선교동원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20 퍼센트로 매우 낮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답이 40 퍼센트에 달하였다. 이 결과는 목회자들은 목회의 현실에서 부정적인 경험들과 관점이 있고 또는 이런 운동의 특징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답은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난관이 있기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회자들의 현장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이 적어서 낙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공동부흥회가 연합으로 열릴 때 참여하는 다수는 성도들이기에 성도들의 긍정적인 기대는 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에 좋은 자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교동원 운동은 성도들의 기대를 만나주는 구성이 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표 24>

설문 7항

7. 이 모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공감력이 증대가 되었다고 보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확실히 공감이 생겼다	14	20	70	6	10	60

2) 어느 정도는 공감이 시작되었다	5	20	25	4	10	40
3) 선교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	1	20	5	0	10	0
4) 모르겠다	0	20	0	0	10	0

본 7 항은 설문의 중심목적인 공동선교부흥회 참석자의 선교에 대한 공감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다. 공동선교부흥회를 통하여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깊어지고 확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공동선교부흥회를 하는 것은 참석한 사람들이 긍극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공감하는 힘이 커져서 성도들 자신 안에 선교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교공감력이 실제로 선교를 동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평신도 그룹과 목회자 그룹의 긍정적인 답변은 모두 100 퍼센트에 가깝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직접 선교에 대하여 들어야 선교공감력이 증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목적은 중소형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직접적인 선교에 대한 도전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선교에 대하여 직접 선교사로부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 안에 선교공감력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선교공감력이 커지므로 선교에 참여가 일어나는 것이다.

<표 25>

설문 8항

8. 이 모임을 통해서 은퇴 후 전문선교사역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전문인선교사로 헌신하겠다	6	20	30	3	10	30
2) 현지로 나가지 못해도 나의 전문성으로 후방에서 도움을 주겠다	10	20	50	3	10	30
3)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 전문인선교사로 가도록 격려하겠다	2	20	10	3	10	30
4) 단기선교로 전문인선교에 참여하겠다	2	20	10	1	10	10

본 8 항은 선교교회 연합운동의 결과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성도들은 30 퍼센트가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공동선교부흥회를 통하여 30 퍼센트의 헌신자가 나온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결과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고 실제로 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는 후에 설문에 답을 한 것이라 신빙성이 있다. 전 문인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후방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답이 50 퍼센트가 되었다. 아는 사람을 전문인선교사로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10 퍼센트, 전문인 단기선교로 가겠다. 10 퍼센트 모두가 전문인선교에 대한 헌신이 생기게 됨을 보았다. 목회자 그룹도 또한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이 30 퍼센트가 되었고 목회자는 도움을 주고 전문인선교사로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각각 30 퍼센트가 되었다.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선교사 발굴의 주 대상은 미주 한인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를 동원하는 것이다.

<표 26>

설문 9항

9. 이 모임을 통해서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확실히 참여할 것이다	9	20	45	6	10	60
2) 직접 가지는 못해도 단기선교가 잘 진행되도록 팀이 되겠다	9	20	45	1	10	10
3) 단기선교에 사람들이 가도록 격려하겠다	2	20	10	2	10	20
4) 아직 잘 모르겠다	0	20	0	1	10	10

본 9 항의 질문 의도는 공동선교부흥회를 통하여 선교공감력이 높아진 후에 실제로 선교에 연결되는 부분을 단기선교로 정하였다. 따라서 공동선교부흥회 후에 단기선교를 가겠다는 지원자가 성도보다 목회자가 60 퍼센트가 단기선교에 가겠다고 답하였다. 성도 그룹도 45 퍼센트가 단기선교를 직접 가겠다고 답하였지만 특이한 점은 단기선교 팀이

되어 단기선교가 잘 진행이 되도록 돕겠다는 답이 45 퍼센트가 되었다. 단기선교는 선교생산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의 결과는 1 차적으로 미주지역에서의 한인교회들을 동원할 때는 단기선교로 선교생산력이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 가장 실제적인 선교생산력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성도들이 선교공감력이 생긴 후 실제 선교와 접촉할 수 있는 선교지로 나갔다 오는 것이 동원을 일으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형 한인교회들이 교회의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 단기선교팀을 구성하거나 파송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선교공감력이 부족했고 선교생산력이 부족한 것이었는데 공동으로 교회 들이 연합 하여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게 되는 것이 선교생산력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7>

설문 10항

10. 이 모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재정후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평신도	20명 설문	%	목회자	10명 설문	%
1) 선교에 대한 재정후원을 더 많이 하겠다	3	20	15	3	10	30
2) 선교에 대한 재정후원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	12	20	60	3	10	30
3) 작더라도 재정후원을 시작하겠다	5	20	25	2	10	20
4) 잘 모르겠다	0	20	0	2	10	20

본 10 항 질문의 목적은 공동선교부흥회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후원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다. 선교에 대한 헌신 중 재정 부분이 중요한데 이 응답의 특징은 목회자 그룹이 실제로 재정후원을 더 많이 하겠다고 30 퍼센트의 응답자가 답하였다. 성도 그룹은 15 퍼센트인데 실제로 2 배의 목회자들이 재정후원에 대하여 헌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도 그룹은 60 퍼센트가 재정후원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고 답하였다. 공동선교부흥회의 목적은 선교사 후보생 발굴, 교회의 선교 헌신 그리고 재정도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선교부흥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왜 선교에 대하여 재정후원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종합평가

공동선교부흥회를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선교동원 면에서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중소형교회들을 선교교회 연합교회로 만드는 공동선교부흥회의 시범적 모임 결과는 예상 이상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APPENDIX C 2011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대상 선교지 후원 및 연결 특성 설문조사 결과

2011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 대상 선교지 후원 및 연결 특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기관 및 기간: SON Ministry 김정한 목사, 6-7 월/2011, 설문조사 범위: 미주 전 지역 목회자 대상(무작위), 설문 응답자 총 52 명, 미주목회 경험자 1 명(2%) 담임목회자 40 명(77%), 선교담당목회자 7 명(13%), 부목회자 4 명(8%)

1. 현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닌 협력 또는 후원하는 선교사와 연결된 동기

선교사역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26 명(43.0%)

선교지 지역과 종교권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5 명(8.0%)

선교사와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학연, 지연, 같은 교단 등) 15 명(25.0%)

지인 또는 타인의 소개로 7 명(11.0%)

선교사와 직접 만남을 계기로 8 명(15.0%) (총 52 명 응답)

2. 새로운 선교지 후원을 결정할 때 개인 연고가 없어도 현지사역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총 51 명)

할 수 있다 47 명 (92.0%), 할 수 없다 4 명 (8.0%)

3. 선교지 연결을 할 때 재정보다는 교회 내에 선교사역과 연결되는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이 교회 내에 있다면 연결을 결정할 수 있는가? (총 51 명)

할 수 있다 50 명 (98.0%), 할 수 없다 1 명 (2.0%)

4.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몰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비전과 같은 선교지 사역 정보를 알았을 경우 관심이 생기면 선교지에 단기선교팀 파송을 시도하겠는가?

할 수 있다 50 명 (98.0%), 할 수 없다 2 명 (2.0%)

5. 교회에서 후원선교지 선정의 기준을 선교사와 연고로부터 벗어나 선교지 사역을 기준으로 하는 방침으로 바꿀 수 있는가? (총 51 명)

할 수 있다 46 명 (90.0%), 할 수 없다 5 명 (10.0%)

6. 선교지사역을 소개받았을 때 선교사역 내용과 비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동일한 방향일 때 장기 후원으로 동역할 수 있는가? (총 52 명)

할 수 있다 50 명 (98.0%), 할 수 없다 2 명 (2.0%)

7. 신뢰할 수 있는 선교단체나 선교사가 새로운 선교지 사역을 소개했을 때 선교지와 연결되도록 당회 또는 선교위원회에게 제안할 수 있겠는가? (총 52 명)

할 수 있다 50 명 (98.0%), 할 수 없다 2 명 (2.0%)

8.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본인 또는 교회가 하고 싶은 선교사역을 어느 선교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선교사역과 동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가? (총 52 명)

그렇다고 본다 47 명(90.0%), 아니라고 본다 5 명 (10.0%)

9. 미주 한인 목회자들은 선교지 사역에 관심이 있으면 교단과 교파, 연고주의를 초월하여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다고 보는가? (총 51 명)

그렇다고 본다 43 명(84.0%), 아니라고 본다 8 명 (16.0%)

10. 미주 한인 목회자들은 선교사들 중에 소외지역과 후원이 약한 선교사들의 정보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교네트워크로부터 받았을 때 우선순위에 놓고 도와줄 마음이 있다고 보는가? (총 51 명)

그렇다고 본다 43 명(84.0%), 아니라고 본다 8 명 (16.0%)

11. 미주 한인교회의 목회자들은 새로운 선교지 사역을 찾기 위하여 기회를 늘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가? (총 52 명)

그렇다고 본다 28 명 (54.0%), 아니라고 본다 24 명 (46.0%)

12.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새로운 선교사역 정보를 받았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총 52 명)

그렇다고 본다 36 명 (69.0%), 아니라고 본다 16 명 (31.0%)

종합평가

본 설문은 중소형교회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미주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설문을 한 것이다. 설문결과 특이한 것은 본인의 교회와 직접연결이 되는 선교교회연합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질문인데 전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본 교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선교는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교사에 대한 연결도 본 교단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과 특이한 점은 전문인선교에 대한 질문에서는 98 퍼센트가 본 교회 교인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설문을 통해 보면 선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현재 중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생존과 개인 생활의 생존이란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교는 환경이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때 영적 도전과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APPENDIX D 본 연구 Change Dynamics의 사용이론

본연구 Change Dynamics의 사용이론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운동에 대한 반성(Downloading Past Pattern):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선교계의 선임선교사들이 북미주지역의 한인교회들을 방문하여 직접 선교에 대한 도전과 보고를 함으로 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이 시작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일로 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이 1988 년도에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KWMC) 대회가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1988 년 7 월 25 일-29 일에 제 1 회가 열렸다. 그리고 8 차 대회가 2016 년 6 월 6 일-10 일에 남가주에 소재한 아주사 대학에서 열렸다. 지난 32 년간의 KWMC 선교대회는 선교동원 차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또한, 이런 대형집회 구조가 지금의 시대에서 적당한 패러다임인가를 제고해야 한다. 실제로 대회에 참여하는 참석자 수가 줄었고 강사진 구성과 대회운영, 대회의 내용들이 선교동원에 초점이 아닌 것으로 되어서 대회운영을 위한 대회로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제는 굳어진 선교대회 구조와 방만한 대형구조의 선교대회 운영을 위한 자금의 문제, 변화 없는 리더십의 문제 등이 오히려 KWMC 선교대회가 더 선교동원을 방해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동안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대형 선교집회는 KWMC 였다. 그러나 이 구조는 한곳으로 대회 참가자들을 모으는 구조였다. 미국같이 넓고 전 미주 50 개 주에 흩어져 있는 4,421(서인실 2017:크리스찬 투데이 1 월 24 일 기사)여 한인교회들이 이 대회에 참가 하기 위해 모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8 차 대회가 32 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모이기 쉽고 참가하기 쉬운 그룹이

정해지게 되었고 이 선교대회는 전체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인원동원, 대회 성격과 대회 내용 등이 변화되지 못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운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 과거의 선교운동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지 않고 더 이상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선교운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KWMC 선교운동은 고착된 타성과 조직, 리더십의 문제 등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선교운동을 위한 대형집회의 구조에서 탈피되어야 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왔다.

필자가 실시한 선교교회 연합운동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 후 질의응답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 갈 당사자들,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선교운동과 동원에서 실제로 참석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첫 2 회의 모임에서 열린 마음들이 되어 대형구조 대회가 아닌 소규모의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로부터 실제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장점이 있었다.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관찰을 통해 볼 때 선교교회 연합운동은 중소형교회들에게 실제로 선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중소형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의 방법이 제시가 되지 못했고 또한 성도들도 대형집회 분위기와 다른 소규모의 모임에서 선교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에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교회 연합운동이 처음으로 진행된 2 회의 모임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선교교회 연합운동에 대하여 공감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각 교회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었다. 참석자들에게 이 운동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신뢰가 쌓이는 것을 보았다. 이 신뢰 관계를 참석자들이 소속한 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 단계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실재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단계이다. 공동선교부흥회 중 이 부분을 다룰 때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인 성도의 신앙생활에서의 우선권에 대한 실재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강소형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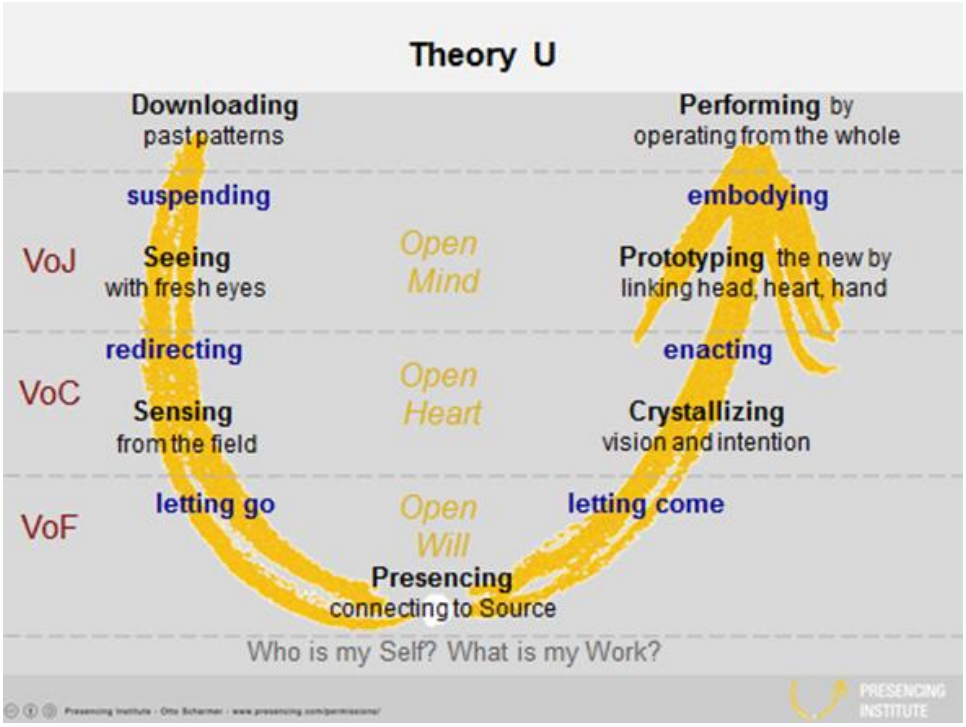
운동을 하는 것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로버트 클린턴의 U 이론이 짧은 시간의 모임이었지만 설문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모임의 결과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이 강소형선교교회 운동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을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 결과였다.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을 한 후에 비전이 생기고 성도의 삶에 대한 방향이 재설정되는 것을 보았다. 공동선교부흥회의 실제적인 효과가 참여자들과 교회들의 선교 방향의 재설정이 될 수 있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공동선교부흥회는 첫 모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을 해본 결과 현장성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았고 모임의 진행과 기타 준비들에 대하여 개념이 정리가 되었다. 공동선교부흥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실제로 모임이 시작될 때는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이 있게 될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실제로 모임이 진행되면서 하나의 모형이 분명하게 나오는 결과를 보았다. 비전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이었다.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실행하여 실제로 공동선교부흥회가 널리 확산되는 단계를 말한다. 처음 2 회의 모임은 설문조사도 목적 중에 하나였지만 실제로 선교를 도전하는 목적도 분명했다. 성도들 중 실제로 30 퍼센트의 응답자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교를 느끼고 선교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현상학이라고 한다. 현상학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에 관한 학문이다(마두스베르그 & 라스무센 2014:122).

Change Dynamics 는 중소형교회들을 선교할 수 있는 작은 규모지만 강한 선교교회로 만드는 것의 과정을 U Theory 를 통하여 실제 변화(Transforming)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적용을 하는 것이다. 선교교회 연합운동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선교동원을 잘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형교회를 선교교회 연합운동교회를 만들어 선교동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큰 의미로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림 15>

U THEORY 7단계

(Bremer 2015: Leadership & Change Magazine 10월 8일 Otto Scharmer와 인터뷰 기사)

APPENDIX E 2017년 12월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보고

2017 년 12 월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보고(2018 년 1 월 9 일 사랑의 교회) - 170 개국 27,436 명, 231 명 증가.

다시 N 곡선으로

금년도 선교사 파송 수는 170 개국 27,436 명으로 전년 대비 231 명이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활동 국가 수는 전년 대비 2 개국이 줄어들었으며(2 개국 모두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지 국가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다른 국가로의 이동 함), 선교사 파송 수는 2016 년보다는 증가되어, 2015 년 이전의 증가 숫자보다는 적은 '양'으로 늘어났지만, 한국선교사 파송 수는 2016 년을 기점으로 'N'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금년 파송 선교사 수의 집계 결과는 '한국선교가 변곡점에 서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양적 성장'의 둔화에서보다는 다른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 발표된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은 27,205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2015 년)에 비해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 결과를 놓고 드디어 한국선교 파송의 하향 곡선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아닌 우려의 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2016 년에 보고하였던 것처럼, 한 해의 수를 놓고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실제로 활발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른바 '메이저 그룹'들의 선교사 파송 수는 360 여 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자체 정리'를 하기 시작한 단체들의 선교사 수(마이너스 증가)가 정상적인 증가 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KWMA 2017:선교사 파송현황).

금년 조사에 응한 단체(회원이면서 파송 선교사 수가 100 명 이상)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이너스로 집계를 한 곳이 많이 있다. 단체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파송 선교사

수가 50 명 이상인 비교적 큰 단체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입 선교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협력 및 이중 선교사로 있는 사역자들의 정리, 외국인 사역자들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 단기 사역자들의 귀환 등의 원인들로 인해 신입 사역자보다는 정리되는 수가 더 많아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알려주었다. 2014 년부터 나타난 단체들의 '허수' 정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전적 상황 파악을 위한 선교사 통계 조사 항목 추가

통계는 한국선교의 다양한 면을 읽어내는 기초 자료가 된다. 통계 수치 조사가 갖는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통계는 선교계가 준비해야 할 것들, 또는 상황 분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KWMA 에서 효율적인 통계 조사를 위해 2011 년 시스템을 만들고 난 후, 하나씩 조사 항목들을 늘리고자 노력해 왔다. 금년부터는 선교사의 연령대와 은퇴 선교사 수를 위한 항목과 선교사 자녀들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된 항목을 넣었다. 이러한 항목에 모든 단체가 응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폭넓은 통계수치를 찾아낼 예정이다.

2017 년 파송 현황

예년과 마찬가지로 통계 조사대상은 KWMA 회원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비회원단체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와 산하 협력단체 등을 포함하였다. 협력 요청 공문 발송 후에 1 개월간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7 년 12 월 29 일로 마감하였다.

<표 28>

조사대상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구분	조사대상 수(개)	선교사 수(명)	비율(%)	이중 소속(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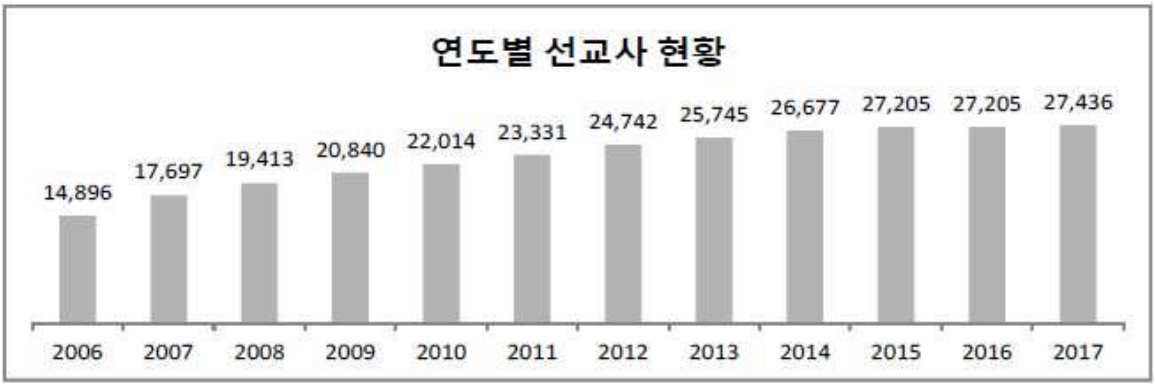
교단 선교부	39	12,374	43.3%	662
선교단체	188	16,210	56.7%	1,634
합계	227	28,584	100	2,296

<표 29>

연도별 현황

구분(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파송 선교사 (명)	16,616	18,625	20,503	22,130	22,685	24,001	25,665	26,703	27,767	28,326	28,395	28,584
이중 소속 (명)	1,984	1,856	2,180	2,579	1,341	1,341	1,847	1,916	2,180	2,243	2,380	2,296
실제 파송 선교사 (명)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6,677	27,205	27,205	27,436

일부 단체들 가운데서 이중 소속 선교사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었는데, 그 결과로 예년과 비교해서 볼 때, 소폭이기는 하지만 이중 소속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6>

연도별 선교사 현황

연도별 선교사 증가 수

년도	증가 수(명)
2006	1,578
2007	2,801
2008	1,716
2009	1,427
2010	1,174
2011	1,317
2012	1,411
2013	1,003
2014	932
2015	528
2016	0
2017	231

<그림 17>

연도별 증가 현황

(2007 년도의 높은 증가 폭은 조사대상의 확대에 따른 것임) 증가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016 년의 '0'을 다시 출발선으로 하여 '둔화된 성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표 30>

전방개척 지역 선교사 현황 비교(2016년과 2017년 비교)

구분	전체 국가 수	파송 국가 수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선교사	2016년 파송 선교사	2017년 파송 선교사	2030년까지 더 필요한 한국선교사	2030년까지 필요한 세계 선교사

F1	11	10	22,316	4,515	4,431	17,890	102,840
F2	41	40	9,911	6,698	6,841	3,063	45,694
F3	44	40	58,890	5,741	5,710	53,185	271,433
G1	74	43	4,733	3,550	3,507	1,241	21,811
G2	53	37	4,150	7,891	8,095	-3,944	19,124
계	223	170	100,000	28,395	28,584	71,435	460,902

전방개척 지역으로의 파송은 증가의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으며, F1 지역에서의 줄어드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재입국거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 G 는 General Missions 그리고 F 는 Frontier Missions 의 약자이다. G2 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 퍼센트 이상인 경우, G1 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10-15.5 퍼센트 미만이며 이중 기독교인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 한국의 것보다 더 큰 경우, F1 은 복음주 의자 비율이 5 퍼센트 이상에서 10 퍼센트 미만인 경우이며, F2 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 퍼센트 미만이고 박해 지역이 아닌 경우, F3 는 복음 주의자 비율이 0-5 퍼센트 미만이고 박해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권역별 선교 현황(2015년, 2016년, 2017년 비교)

3 년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다. 동북아시아(한국포함),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포함한다면 18,758 명(65.6%)으로 파송 선교사의 반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주요 종교권 즉, 이슬람, 불교, 힌두교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선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리적으로도 가깝다는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다.

<표 31>

활동 선교사 수
(비율로 본 2017년 권역별 선교 현황)

	활동 선교사 수 (비율로 본 2017년 권역별 선교 현황)		
권역	2017년	2016년	2015년
동북아시아	6,319	6,402	6,430
동남아시아	5,893	5,739	5,575
북아메리카	3,075	3,015	3,196
한국	2,185	2,011	1,906
남아시아	1,792	1,858	1,860
중동	1,388	1,336	1,315
서유럽	1,240	1,282	1,368
동남아프리카	1,205	1,213	1,200
중앙아시아	1,181	1,218	1,203
라틴아메리카	1,170	1,199	1,222
동유럽	1,110	1,107	1,101
남태평양	959	952	951
북아프리카	611	610	553
서중앙아프리카	366	354	348
카리브해	90	99	98
합계	28,584	28,395	28,326

최다 활동 국가

한국선교사가 600 명 이상 활동하는 국가들이 상위 10 개국 정도로 모아진다. 600 명 이상 활동하는 국가들은 매년 거의 변동이 없다. 2017 년도에는 동북아 X 국, 미국, 필리핀, 일본, 태국, 서남아 I 국, 동남아 I 국, 캄보디아, 러시아/연해주, T 국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 년과 비교하면 서남아 I 국(2016 년 1,005 명)과 태국(2016 년 890 명),

캄보디아(2016 년 795 명)와 동남아 I 국(2016 년 793 명)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 가운데 50 퍼센트 정도이다. 170 개국 가운데 10 개국에 50 퍼센트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선교사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본부 사역자, 국내 외국인 사역자(디아스포라 담당 사역자를 의미), 수습 선교사, 순회 사역자 등이 포함되는 한국에서의 활동 선교사도 600 명이 상회하지만 이 순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표 32>

10대 파송 국가

번호	2017년	개척지 수	사역단체 수(개)	전체 선교사 수(명)	2016년
1	동북아 X국	F1	151	3,934	동북아 X국
2	미국	G2	79	2,491	미국
3	필리핀	G2	91	1,651	필리핀
4	일본	F2	85	1,585	일본
5	태국	F2	66	950	서남아 I국
6	서남아 I 국	F3	85	931	태국
7	동남아 I국	F3	62	850	캄보디아
8	캄보디아	F2	82	807	동남아 I국
9	러시아/연해주	F2	64	654	러시아/연해주
10	T국	F3	61	649	T국
합계/비율			14,502/50.7%		14,459명
전체 선교사 수			28,584		

주요 사역 현황

한국선교사들의 사역 특징은 다중 사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체크하기에는 담당자들의 애로가 있다.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이 지표는 한국선교사들의 사역 경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한국선교사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사역 역시 교회개척과 제자훈련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표에 나와 있는 사역 이외에도 문화/스포츠, 외국인 근로자 사역, 선교사 자녀 사역, 비즈니스, 문서 출판 사역, 선교행정과 동원 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주요 사역 현황

주요 사역 내용	활동 국가 수	선교사 수
교회개척	153	14,624
제자훈련	141	9,663
복지/개발	82	2,017
캠퍼스	63	1,954
일반교육	79	1,671
어린이/청소년사역	78	768
의료	51	617
신학교	24	595
총계		31,909

선교사 자녀 현황

선교사 자녀를 조금 더 폭넓게 알아보기 위해 금년부터 자녀들의 연령대(20 세 전후와 기혼 여부 등)와 부모와 함께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응답이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실무자들을 격려해서 조사율을 높여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표 34>

연도별 선교사 자녀 환황
(2010년 선교사 자녀 통계는 추정치임)

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녀 수(명)	10,433	11,885	12,674	13,868	14,200	15,913	16,586	17,618	18,442	18,543	18,810	19,66

2017년 통계 조사 소결

통계 조사는 한국선교의 현주소를 읽어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에 선교사 수의 증가가 '0'으로 나타난 결과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그동안 통계를 진행해 온 KWMA 는 이것이 하향이다 아니다라고 단선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이제 비로소 질적 성장을 위해 거품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주목하도록 권하고 싶다. 한국 선교계가 2000 년 이후에 가장 많이 힘을 들인 것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양'을 유지하면서 '질'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NCOWE 를 통해 지속해 왔다.

2006 년에 함께 논의하고 발표된 'Target 2030 운동과 미래 25 년 계획'에 따르면 한국선교는 지금 제 3 기(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인 '전력투구기'를 지나고 있다. 그 시점의 출발이었던 2016 년에 '제로 베이스'가 되어 복잡한 마음이 한국 선교계에 드리워졌었다. 그리고 2017 년에 다시 증가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위기', '변곡점' 등의 현상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으로 한국선교를 바라봐야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선교사 파송 수가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수가 예전 같이 수천 명 단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없어지는

선교단체도 있을 것이고, 은퇴하는 선교사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은퇴 선교사의 수가 신입 선교사(New Coming Missionary) 수를 앞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계 조사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신생 단체들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또한 노회나 개교회 파송 선교사는 통계 범위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선교사 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교사 파송 수의 늘고 줌에 민감하기보다는 통계가 보여주는 큰 그림을 읽어 내면서, 이제야말로 한국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점이다. 선교 통계 조사에 협력해 주신 모든 단체들의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강병도

1992 *호크마 종합주석 9편*. 서울: 기독지혜사.

강승삼

2000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김삼성

2015 "차세대 선교동원."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한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편저. Pp. 507-533. 서울: 예영 B&P: 한인세계선교사회(KWMF)회장단.

김성욱

2010 *현대 평신도 전문인선교(Laymen's Tent-Making Missions Today)*. 서울: 프라미스 키퍼스.

김신숙

2015 "여성사역자의 방향."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한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편저. Pp. 467-486. 서울: 예영 B&P: 한인세계선교사회(KWMF)회장단.

김옥순

2010 *디아코니아학 입문: 디아코니아 영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서울: 한들출판사.

김태연

2010 *전문인 선교전략(Professional Mission Strategy):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서울: 보이스사.

김한성
2011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역사의 시기 구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eriodization of the History of the Cross-cultural Missions of the Korean Chuch)." *성경과 신학* Vol. 60. Pp. 109-301.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남후수
2008 *미래의 세계선교 전략(Strategy of World Mission in the Future).*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라건국
2007 *21세기 선교는 달라져야 한다: 토탈케어 선교 전략 연구, 요람에서 영광까지.* 서울: 새한기획 출판부: 아침향기.

목만수
2002 *선교 신학 문화.* Pasadena: 아시아선교연구소.

박기호
1999 *한국교회선교운동사(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church). 원서명: A Two-Thirds World Mission of the Move: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출판부.

2001 *한인선교 패스파인더: 21세기의 한인선교.*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15 "건강한 선교."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한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편저. Pp. 13-27. 서울: 예영 B&P: 한인세계선교사회(KWMF)회장단.

박기호, 마원석
2010 *소명: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Calling here I am, send me, lord!).* 20인의 소명 이야기. 서울: 쿰란출판사.

박영환
2012 *네트워크 선교역사: 한국사와 교회사를 한 통으로 보다.* 인천: 바울.

방동섭
2010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손석태
1993 *창세기 강의(Lecture on Genesis).* 서울: 성경읽기사.

신현수
2011 *선교적 교회론: 성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성경신학적 접근(A Study on Missional Ecclesiology).*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안승오
2008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선교주제 28가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오병수
1997 *(82세 老목사가 다시 쓰는) 예수던.* 서울:두란노.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출판부
2017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원상 목사의 생애와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윤기순
2011 *사도바울의 선교와 21세기 한국교회 선교방향: "훈련된 선교사의 전략"을 중심으로.* 용인: 도서출판 목양.

이수환
2009 *전문인 선교론(Professional Missiology).*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은무
2006 *(30년 선교 현장의 증인이 쓴) 한국선교를 깨운다(Awakening Korean Miss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다니엘과 이민 선교신학: 다니엘서 6장을 중심으로." 이민신학논단(제1집), 창간호. 오상철 외 5인 편저. Pp. 280-291. L.A.: 이민신학연구소.

이장식
2005 *사도행전 해설.* 서울: 한들출판사.

이현정
2010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 이론과 실제.* 서울: 쿰란출판사.

이후천
2008 *현대 선교학의 이슈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전석재
2015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Pp. 285-30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전재옥
2005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만난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승현
2015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GOCN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Pp. 40-7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조귀삼
1995 *바울과 선교신학*. 서울: 은성.

조동진
2011a *다시 쓰는 세계 선교 역사(Re-Writing a History of World Mission)*. 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2011b *조동진의 21 세기 선교행전*. 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최성훈
2017 *고령사회의 실버목회(Silver Ministry for Aged Society)*. 최성훈 교수 현대목회 시리즈3.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최찬영
1995 *최찬영 이야기: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자서전*.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최형묵
2006 *뒤집어보는 성서 인물*. 파주: 한울.

하용조
1990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서울: 두란노.

한기홍
2012 *성령의 능력받아 땅끝까지: 은혜한인교회 30 년사*. 30년사 편찬위원회 편집. 서울: 두산동아프린팅.

한도수
2015 "디아스포라 선교의 재발견."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한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편저. Pp. 568-582. 서울: 예영 B&P: 한인세계선교사회(KWMF)회장단.

한종수
2009 "요셉에 대한 연구: 이민자의 시작으로 본 비전의 성취." *이민신학논단*(제1집), 창간호. 오상철 외 5인 편저. Pp. 256-262. L.A.: 이민신학연구소.

홍기영
2015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선교."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Pp. 197-2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홍완표
2010 *인터넷선교 이론과 적용(Internet Missions Theory & Applications).* 서울: 순복음캠퍼스선교교회 인터넷선교센터. <https://www.slideshare.net/Leeonyoo/ss-10392505>.

게츠, 진 A.(Getz, Gene A.)
2003 *척도: 교회 진단 척도를 말한다(Measure of Church).* 김현회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글라서, 아서 F.(Glasser, Arthur F.)
2012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뉴비긴, 레슬리(Newbigin, Lesslie)
2012 *오픈 시크릿(Open Secret):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선교.* 홍병룡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록스버러, 앨런 & M. 스캇 보렌(Roxburgh, Alan J., and M. Scott Boren)
2014 *선교적 교회 입문(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 What it is, Why it Matters, How to Become One).* 이후천, 황병배, 이은주 공역. 고양: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올리브나무.

마두스베르그, 크리스티안 & 미켈 B 라스무센.(Madsbjerg, Christian and Mikkel B. Rasmussen)
2014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 철학과 인문학으로부터 업의 본질을 묻고 답하다(Moment of Clarity: Using the Human Sciences to Solve Your Toughest Business Problems).* 박수철 역. 서울: 타임비즈.

베르카일, 요하네스 (Verkuyl, Johannes)
1991 *현대 선교신학 개론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보쉬, 데이비드 J.(Bosch, David J.)
2000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 신학의 패러다임 변천(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선교신학: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선교(Witness to the World).* 전재옥 역. 서울: 두란노서원.

보캄, 리처드(Bauckham, Richard)
2010 *세계화에 맞서는 기독교적 증언: 성경의 눈으로 선교 바라보기(Bible and Mission: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 강봉재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브룬너, 에밀(Brunner, Emil)
2013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Das Missverstaendnis der Kirche)(번역표제-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박영범 역. 서울: 대서.

선퀴스트, 스캇(Sunquist, Scott)
2015 *기독교 선교의 이해: 고난과 영광에의 참여(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Participation in Suffering and Glory).* 이용원,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쉥크, 윌버트 R.(Shenk, Wilbert R.)
1999 *선교의 새로운 영역(Changing Frontiers of Mission).*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슈미트, 워너 H.(Schmidt, Werner H.)
1989 *(역사로 본) 구약신앙(Faith of the Old Testament).* 강성열 역. 서울: 나눔사.

아임스, 리로이(Eims, LeRoy)
2011 *사도행전 속의 제자 훈련(Disciples in Action*). 네비게이토 편집부 편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루츠, 울리히(Luz, Ulrich)
2002 *마태 공동체의 예수이야기(Jesusgeschichte des Matthaeus).* 박정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윈터, 랄프(Winter, Ralph D.)
2012 *비서구 선교운동사(Twenty-Five Unbelievable Years, 1945 to 1969).* 임윤택 역. 고양: 예수전도단.

2013 *기독교 문명운동사: 세계 기독교 문명사를 보는 거시적 퍼스펙티브스(Foundation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Larger Perspective).* 임윤택 역. 고양: 예수전도단.

카이저, 월터 C.(Kaiser, Walter C.)
2013 *구약성경과 선교(Mission in the Old Testament :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캐리, 윌리엄(Carey, William)
2008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Greater Missionary William Carey).* 박영환 편. 이희용 역. 인천: 도서출판 바울.

케인, 허버트(Kane, J. Herbert)
1988 *선교 신학의 성서적 기초(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크래프트, 찰스 H.(Kraft, Charles H.)
2006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Dynamic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 Cultural Perspective).* 임윤택, 김석환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클린턴, J. 로버트(Clinton, J. Robert)
2009 *효과적인 리더십 계발 이렇게 하라(Leadership Training Models: A Self-Study Manual for Evaluating and Designing Training).* 임경철 역. 서울: 하늘기획.

포코크, 미셸 & 가린 밴 리넨 & 더글라스 매콘넬(Pocock, Michael, and Gailyn Van Rheenen, and Douglas McConnell)
2008 *변화하는 내일의 세계선교: 현대선교의 이슈와 동향(The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Engaging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박영환, 백종윤, 전석재, 김영남 공역. 인천: 도서출판 바울.

피어슨, 폴(Pierson, Paul E.)
2009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기독교선교운동사(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 History Through a Missiological Perspective).*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휘체돔, 게오르크 F.(Vicedom, Georg F.)
1980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히버트, 폴 G.(Hiebert, Paul G.)
1996 *선교와 문화인류학(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흥호 공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벤 엔겐, 찰스(Van Engen, Charles)
1996 *Mission on the Way: Issues in Missio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9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2014 *(지역 교회의 존재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Bush, Luis K.
2015 "Ten Lessons From the Life of John R. Mott." *Asian Missions Advnce Journal,* ed. by Timothy K. Park. Vol. 47. Apr. Pp. 2-7.

Butler, Phillip
2006 *Well Connected: Releasing Power and Restoring Hope Through Kingdom Partnerships.* Fort Worth. Authentic.

Ellis, Joe S.
1982 *The Church On Purpose: Keys to Effective Church Leadership*. 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

Hesselgrave, David J.
1980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A Guide for Home and Foreign Missions.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cGavran, Donald
1983 "What is Missio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lasser, Arthur F., and Donald A. McGavra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Metenga, Jay, and Malcolm Gold
2016 *Mission in Motion: Speaking Frankly of Mobilization*. CA: William Carey Library.

Mott, John R.
1924 *Confronting Young Men with the Living Christ*. NY: Association Press.

Peterson, Roger P., and Gordon D. Aeschliman, and R. Wayne Sneed
2003 *Maximum Impact Short-term mission*. Edited by Hurst Kim. MN: STEM Press.

Smith, George
2011 *The Life of William Cary, D.D: Shoemaker and Mission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Rheenen, Gailyn
1996 *Biblical Foundation & Contemporary Strategies.*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Woodbridge, John D.
1992 *More than Conquerors*. Chicago, III., U.S.A.: Moody Press.

김순식
2016 "미주에서의 한인 목회." 국제선교신문 인터넷판, 2016년 2월 1일 선교사역면 기사. 2017년 7월 9일 접속. <http://www.wmnews.org/bbs/board.php?bo_table=news1&wr_id=160&page=9>.

나성한인교회
n.d. 나성한인교회 연혁. 나성한인교회 홈페이지. 교회 연혁면. 2017년 6월 11일 접속. <http://www.lacpc.org/cont/0104.php>.

동양선교교회
1976 교회 연혁: 창립에서 1976년까지 해외선교 현황.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2017년 6월 10일 접속. <http://www.omc.org/cont/0102.php>.

서인실
2017 "해외한인교회, 114년만에 6000을 넘다: 미주내 4421개 중 1/3이 CA에… 그중 1/3이 LA 한인타운에 집결." 크리스찬 투데이 인터넷 판, 2017년 1월 24일 미주한인교회 현황면 기사. 2017년 7월 20일 접속.

시드선교회
2017 시드선교회 2017년 10월 선교사 파송 현황. SEED International 홈페이지. 2017년 10월 4일 접속. <http://www.seedtoday.org/bbs/content.php?co_id=sub_0201&me_code=2010>.

오수연
2008 "100명 넘는 남가주 한인교회 목사 평균 연봉 7만 1043불." 미주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8년 2월 20일 미주판 1면 기사. 2017년 7월 20일 접속.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16724>.

이대웅
2016 "주님 지상명령 받들어, 내실 있는 민족 복음화 이루자." 故 유성 김준곤 목사 제7주기 추모예배 드려. 크리스찬투데이 인터넷판, 2016년 9월 30일 교계교단 기관단체면 기사. 2017년 8월 14일 접속.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4023>.

이대학보
1999 "이화, 김환란 그리고 우리." 이대학보 인터넷판, 1999년 6월 1일 Home면 기사. 2017년 11월 13일 접속. <http://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

위키백과, 김활란, n.d., 2017년 11월 1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9%9C%EB%9E%80

정숙희
2014 "지구촌 전체가 내 선교무대이지요." 임동선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신년 인터뷰. 미주 한국일보 인터넷판, 2014년 2월 1일 LA로컬/사회면 기사. 2017년 6월 9일 접속.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40201/836708>.

정하라
2012 “이민교회, 대부분 80명 이하의 교회: 이민신학연구소,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발표.” 뉴스파워 인터넷 판, 2012년 5월 14일 교계뉴스면 기사. 2017년 7월 21일 접속.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9606>.

충현선교교회
2017 충현 새일 세계 선교회 2017년 선교 현황.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선교 현황면. 2017년 6월 17일 접속. <http://www.choonghyun.org/web/mission01.php>.

코리아 타임즈
1990 김존곤이 KCCC 사역으로 학생들에게 복음 전도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어 선교에 동원한 내용. 미주 한국일보 LA 인터넷판, 1990년 1월 22일 기사. 박기호 *한국교회선교운동사*에서 재인용된 자료.

학국대학생선교회
n.d. CCC 캠퍼스사역. CCC 홈페이지. CCC 사역안내면. 2017년 7월 4일 접속. <http://nh.kccc.org/campus.html>.

한국대학생선교회
n.d. CCC란!: 소개 및 연혁. 한국대학생선교회 홈페이지. 2017년 7월 24일 접속. <http://nh.kccc.org/history.html>.

“BMS World Mission”
n.d. *Wikipedia Online*. BMS World Mission History 자료. 2017년 10월 15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BMS_World_Mission>.

Bremer, Marcella
2015 “Interview Otto Scharmer: “Change on Many Levels.”” Leadership & Change Magazine 홈페이지. How Do You Make Your Difference? Energize & Engage Your Workplace 면 기사. 2015년도 10월 8일 *Theory U* 저자인 Scharmer와의 인터뷰에 대한 기사. 2017년 10월 9일 접속. <https://www.leadershipandchangemagazine.com/interview-otto-scharmer/>.

Department of Numbers
2016 “US Household Income.” Department of Numbers Online. 2017년 7월 19일 접속. <http://www.deptofnumbers.com/income/us/>.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n.d. 학교 연혁.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홈페이지. 학교 연혁면. 2017년 7월 9일 접속. <https://web.itsla.edu/history-korean/>.

n.d. ITS 소개.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홈페이지. 학교 소개면. 2017년 7월 9일 접속. <https://web.itsla.edu/its-소개/>.

Johnowenministry

2011 "세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하게 하시다." Johnowenministry 블로그. 2011년 5월 24일 게시글. 2017년 7월 9일 접속. <https://johnowenministry.wordpress.com/2011/05/24/%EC%84%B8-%EC%9E%90%EB%85%80%EB%93%A4%EC%9D%84-%EB%AF%B8%EA%B5%AD%EC%9C%BC%EB%A1%9C-%EC%9C%A0%ED%95%99%ED%95%98%EA%B2%8C-%ED%95%98%EC%8B%9C%EB%8B%A4/>.

Shattuck, Kelly

2015 "Mid-sized Churches are Shrinking: the Smallest and Largest Churches are Growing." 7 Startling Facts: An Up Close Look at Church Attendance in America. ChurchLeaders 홈페이지. 2015년 4월 29일 저널. 2017년 7월 29일 접속. <https://churchleaders.com/pastors/pastor-articles/139575-7-startling-facts-an-up-close-look-at-church-attendance-in-america.html/3>.

양태철(Yang, Tae Chul)

2016 양태철 목사와의 개인적인 인터뷰(Personal Interview with the Pastor Tae Chul Yang). 파사데나, 캘리포니아. 8월 22일.

K.

2016 K. 목사와의 개인적인 인터뷰(Personal Interview with the K. Pastor). SON Ministries 선교회에서. 세리토스, 캘리포니아. 4월 15일.

KWMA

2017 KWMA(사단법인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A 단체들의 선교사 파송현황 자료를 기초로 정리함.

약력(VITA)

김정한(Chung Han Kim)은 1957 년 8 월 3 일(음력)에 서울에서 부친 김교혁과 모친 김춘자 권사 사이에서 2 남 2 녀 중 둘째로,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정한은 케냐에 1985 년 11 월 17 일에 감리교선교국의 파송을 받고 86 년 4 월 11 일에 케냐에 도착하였다. 케냐에서는 임종표 선교사(통합 측)가 대표로 있는 YWAM 나이로비 선교부에 합류하였다. 1988 년 7 월 7 일에 미국교포 자매인 아내 김진실(간호사)와 결혼을 하여 1991 년 11 월까지 마사이부족 마을(Nkoile Villege in Kajiado District)에서 만 6 년간 선교를 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1973), 대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76 년) 합격, 1979 년도에 동양공업전문대학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케냐선교 6 년 후 1991 년 11 월에 미국에 도미하여 1992 년 1 월 Pacific Christian College 에 입학, Cross-Cultural Mission 을 전공, BA 를 받고 1995 년에 졸업하였다. 1995 년 9 월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에 입학, 1997 년 6 월 Master of Art in Islamic Studies 학위로 졸업하였다. 2014 년 9 월에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선교학박사(D.Miss) 1 기로 입학하였다.

1995 년 9 월에 영어권 2 세들을 위한 단기선교 전문단체 SON Ministries 를 설립하여 단기선교 전문단체로 사역을 해왔고 SON Ministries 단체 안에서 새로운 사역으로 전문인 선교동원을 위한 사역인 GMAN (Global Ministries Alliance for Network) 사역을 2013 년 3 월에 시작하였다. 현재는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hip (KWMF) 제 19 대 사무총장(2016-2020)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미주선교 단체협의회(Korean American Missions Association, KAMA)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북미주의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전문인 선교동원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위한 정보네트워크와 선교 전문 인터넷방송(www.gmanradio.org)을 운영하고 있다.